전략연구 2013-10

충남도 FTA 활용실태와 대응방안

- 충남 제조업을 중심으로 -

김양중 · 백운성 · 이민정 · 이종윤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 유럽의 재정위기 등 일련의 경제적 악재와 더불어 FTA, UN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경제적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남 또한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FTA로 인한 경제적 환경변화는 충남에게 있어 또 다른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충남이 FTA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FTA는 충남에게 큰 혜택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충남의 경제는 생각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 된지 9년이 경과되었고, 이후 한미, 한EU FTA 등 경제대국 및 거대경제블럭과의 FTA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국가차원에서는 개별 FTA 성과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그 성과를 논할 연구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제 충남에서도 기 발효된 FTA의 성과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충남은 북부권(천안·아산·당진·서산)을 중심으로 국가주력산업 위주의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어 FTA의 수혜를 크게 받는 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은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았고, 충남의 중소수출기업들은 복잡한 FTA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가차원에서 FTA를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 피해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만큼, 지역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는 중소수출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기업이 FTA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FTA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충남도의 노력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수출입기업 또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업역량을 극대화하고, 도 지원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충남은 과거 10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급격한 성장은 타시도의 부러움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제 충남이 이와 같은 성장에 안위할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충남의 지역경제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충남 도민

의 행복을 담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통상정책을 수립하는데 올바르고, 소중한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산업경제연구부의 김양중, 백운성, 이민정박사와 이종윤 연구원, 그리고 본 보고서가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도움과 수고를 해주신 원내외 자문위원 및 심의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강현수

연 구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 유럽의 재정위기 등 경제적 악재와 더불어 동시다발적 FTA,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FTA 등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이며,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FTA는 우리나라에 큰 이득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생각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국가차원에서 FTA를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 이득과 피해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도 차원에서 FTA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FTA 활용실태분석

설문조사결과 FTA 활용기업의 비율은 페루→EU→칠레→인도→EFTA→미국→싱가포르→ASEAN 순으로 한·미 FTA와 한·ASEAN FTA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SEAN은 교역하는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아 이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은 높은 원산지인증증명서 발급률(EU 92.5%, 미국 89.1%)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충남 중소수출기업의 자구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도와 ASEAN의 경우 원산지인증증명서 발급률을 좀 더 높여가야 할 것이다.(인도 66.7%,

ASEAN 74.4%)

충남은 FTA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FTA 미활용 기업이 FTA 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FTA를 잘 알지 못해서',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충남은 FTA 관련 정보제공과 찾아가는 컨설팅을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을 위한 실무자 교육기회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FTA는 가격경쟁력의 증대뿐만 아니라, FTA 협정 자체만으로도 비관세장벽 완화, 국가의 이미지 개선 등 수출시장규모를 키우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이미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자체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수출지원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3. FTA 지원제도 분석

설문조사 결과 충남 중소수출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원제도는 자금지원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시장 진출강화, 무역구제제도 순이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차이가 가장 심한 지원제도는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의 경우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느끼는 지원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남 중소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충남 중소수출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충남도 사업은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FTA 시장설명회, FTA 컨설팅 지원 순이었다.

특히 지원영역에서 충남도와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간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두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영역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남도는 거래선 발굴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고, 충남 FTA활용지원센터는 실무교육과 컨설팅 등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에는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무역전문인력(원산지관리사 등)의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4. 정책제언

충남도는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혜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소수출입기업 또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업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그 안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FTA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충남에서 지원하는 FTA 지원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FTA 우수활용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그 노하우를 FTA 초보기업들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FTA활용지원센터는 그 실효성과 만족도가 높아 충남도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FTA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FTA 설명회를 단순 정보의 제시가 아닌 참여기업의 특색과 주 수출분야를 고려한 차별화된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FTA 관련전문가 양성에도 힘써, 향후 컨설팅과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FTA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부질없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FTA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FTA 원산지인증 완료기업에 기업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의 방법 및 자료 ····· 5
1)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 5
2) 연구의 자료 ····· 8

제2장 FTA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1. 중앙정부 지원정책 ····· 11
1) 피해보전 정책 ····· 11
2) 경쟁력 강화 ····· 13
3) FTA 지원센터 ····· 15
2. 충남도 지원사업 ····· 18
1) 충남도 FTA 지원사업 ····· 18
2)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사업 ····· 25
3.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지원사업 인지도 ····· 29
1) 정부의 FTA 지원제도 인지도 ····· 29
2) 충남의 FTA 지원사업 인지도 ····· 32
4. 외국의 FTA 이용촉진 현황 ····· 37
1) 미국 ····· 37
2) EU ····· 39
3) 일본 ····· 41
4) 호주 ····· 45
5) 말레이시아 ····· 48
6) 싱가폴 ····· 49
7) 정책함의 ····· 51

제3장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영향 및 활용실태

1. 충남 중소수출입기업 기초통계 ····· 54
1) 사업체 일반현황 ····· 54
2. 충남의 교역현황 ····· 61
1) 충남의 수출입 현황 ····· 61
2) 충남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 ····· 63
3) 충남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 64
3. 기 발효 FTA가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에 미친 영향 ····· 68
1)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현황 ····· 68
2)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기 발효된 FTA 영향 ····· 69
4. 추진 중인 FTA가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에 미친 영향 ····· 78
1)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 예정국과의 교역현황 ····· 78
2)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 영향 ····· 79
5. 충남 중소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실태분석 및 애로사항 ····· 90
1) FTA 활용개요 ····· 90
2)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 101

제4장 충남도 FTA 대응방안

1. 충남도 FTA 활용활성화 방안 ····· 106
1) FTA활용 정책방향 ····· 106
2) FTA 활용활성화 3대 전략 ····· 109
2. 충남도 FTA지원사업 효율극대화 방안 ····· 113
1) 충남도 FTA지원사업 운영실태 진단 ····· 113
2) 충남도 FTA지원사업 개선방안(중기계획) ····· 134

제5장 요약 및 결론 ····· 142

부 록 ····· 148

참고문헌 ····· 162

표 목 차

<표 1> FTA 추진현황 ····· 2
<표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5
<표 3> FTA활용실태조사 표본설계 ····· 9
<표 4> 충남주거실태조사 조사방법 ····· 9
<표 5> 설문항목 및 문항수 ····· 10
<표 6> 중앙정부 지원정책 ····· 11
<표 7> FTA 활용 지원센터의 주요내용 ····· 16
<표 8> FTA 무역종합 지원센터의 주요내용 ····· 17
<표 9> 충남도 지원사업 ····· 18
<표 10> 충남도 FTA지원사업(운영주체별) ····· 20
<표 11> 충남도 FTA지원사업 현황 및 증감율('12~'13) ····· 20
<표 12>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의 개요 및 지원내용 ····· 21
<표 13>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의 개요 및 지원내용 ····· 22
<표 14> 해외전시박람회 (타깃 개별참가)의 개요 및 지원내용 ····· 22
<표 1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의 개요 및 지원내용 ····· 23
<표 16> FTA전략지역 타깃 마케팅 사업의 개요 및 지원내용 ····· 23
<표 17>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사업의 개요 및 지원내용 ····· 24
<표 18>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개요 및 지원내용 ····· 24
<표 19> FTA 콜센터 운영사업의 내용 ····· 25
<표 20>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실시사업의 내용 ····· 25
<표 21> FTA 활용담당자를 위한 실무지식 교육사업의 내용 ····· 26
<표 22> FTA 시장설명회 사업의 내용 ····· 26
<표 23>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의 내용 ····· 27
<표 24>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사업의 내용 ····· 27
<표 25> 중소기업의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내용 ····· 28
<표 26> FTA 전문인력 지원 알선사업의 내용 ····· 28
<표 27> 정부의 FTA 지원제도 인지도 ····· 29
<표 28> 정부의 FTA 지원제도 중요도와 만족도 ····· 30
<표 29> 정부의 FTA 지원제도 평점 ····· 31

<표 30> 충남의 FTA 지원사업 인지도 ····· 33
<표 31> 충남의 FTA 지원사업 중요도와 만족도 ····· 34
<표 32> 충남의 FTA 지원사업 평점 ····· 35
<표 33> 충남의 FTA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성공 여부 ····· 36
<표 34>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주요제품 ····· 55
<표 35>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수출입 형태 ····· 56
<표 36>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수출 형태 ····· 56
<표 37>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주요수출지역 ····· 58
<표 38>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주요수입지역 ····· 59
<표 39> 충청남도 수출입 현황 ····· 61
<표 40> FTA로 인한 수출증대여부 ····· 63
<표 41> 2012년 충남의 품목별 수입 ····· 64
<표 42> 2012년 충남의 국가별 수출 ····· 65
<표 43> 2012년 충남의 국가별 수입 ····· 65
<표 44> 충남의 국가별 수출 추이 ····· 66
<표 45> 충남의 국가별 수입 추이 ····· 67
<표 46>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현황 ····· 68
<표 47>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국별 피해 및 혜택 여부 ····· 70
<표 48>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제품별 피해 및 혜택 여부 ····· 71
<표 49>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국별 매출액 증가여부 ····· 72
<표 50> 기 발효된 FTA 영향 요약 ····· 73
<표 51>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 73
<표 52> 기 발효된 FTA의 영향이 없었던 이유 ····· 74
<표 53> 기 발효된 FTA로 피해를 본 이유 ····· 75
<표 54>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 예정국과의 교역현황 ····· 78
<표 55>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 예정국별 피해 및 혜택 여부 ····· 79
<표 56>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 예정국별 매출액 증가여부 ····· 81
<표 57>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 찬반여부 ····· 82
<표 58>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에 대한 제품별 찬반여부 ····· 83
<표 59>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에 대한 찬성이유 ····· 84
<표 60>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에 대한 반대이유 ····· 85
<표 61>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에 대한 대비책 마련 여부 ····· 86
<표 62>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에 대한 대비책 ····· 86

<표 63>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이 향후 FTA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 … 87
<표 64>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실태 …… 90
<표 65>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활용형태 …… 91
<표 66>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원산지 인증 증명서 발급여부 …… 92
<표 67>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여부 …… 93
<표 68> FTA로 인한 수출증대여부 …… 94
<표 69> FTA로 인한 수출증대효과 …… 95
<표 70> FTA로 수출이 증가한 이유 …… 96
<표 71> FTA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변화가 없는 이유 …… 97
<표 72>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 97
<표 73> 'FTA를 잘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이유 …… 98
<표 74>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라고 응답한 이유 … 99
<표 75> 'FTA 활용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이유 …… 99
<표 76> '관세인하 효과가 적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이유 …… 100
<표 77>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 …… 101
<표 78>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무역장벽 …… 102
<표 79>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 103
<표 80> 인터뷰 기업리스트 및 내용 …… 115
<표 81> FTA지원사업 단계별 활용(案) …… 133

그 림 목 차

[그림 1] FTA활용실태조사의 진행순서 ····· 8
[그림 2] 미국의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 38
[그림 3] EU의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 40
[그림 4] 영국의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 41
[그림 5] 일본의 EPA /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 44
[그림 6] 호주의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 47
[그림 7] 말레이시아의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 49
[그림 8] 싱가폴의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 51
[그림 9] 충남의 수출 및 수입 추세 ····· 62
[그림 10] 충남의 연도별 무역수지 ····· 63
[그림 11]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 108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13년 현재 발효 9주년이 되었다. 한·칠레 FTA 이후 한·싱가포르 FTA, 한·EFTA[1] FTA, 한·ASEAN[2] FTA, 한·인도 CEPA[3], 한·EU FTA, 한·페루 FTA가 발효되었고,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한·미 FTA는 우리가 체결한 8번째 FTA로서 우리나라의 FTA 기체결 국가는 총 45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와 협상 중에 있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도 협상 및 여건 조성 중에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 유럽의 재정위기 등 경제적 악재와 더불어 동시다발적 FTA,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FTA 등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는 우리나라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FTA는 우리나라에 큰 이득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생각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

1)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노르웨이·스위스·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4개국이 회원국들 간에 공산품 교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2)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의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가입하고, 그후 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아세안은 10개국)

3)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음

〈표 1〉 FTA 추진현황

발효	서명/협상타결	협상중인 국가
▪ 한·칠레 FTA(2004.4.1) ▪ 한·싱가포르 FTA(2006.3.2) ▪ 한·EFTA FTA(2006.9.1) ▪ 한·ASEAN(2007.6.1) ▪ 한·인도 CEPA(2010.1.1) ▪ 한·EU FTA,(2011.7.1) ▪ 한·페루 FTA(2011.8.1) ▪ 한·미 FTA(2012.3.15)	▪ 한·터키 FTA ▪ 한·콜롬비아 FTA ▪ 한·호주 FTA	▪ 한·캐나다 FTA ▪ 한·인도네시아 FTA ▪ 한·중 FTA ▪ 한·베트남 FTA ▪ 한·중·일 FTA ▪ RCEP

국가차원에서 FTA를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 피해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차원에서 FTA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충남과 인접한 경기도와 대전의 경우 한발 앞서 FTA 관련 대응방안을 연구보고서로 제시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김군수 외, 2011)는 한·EU FTA, 한·미 FTA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FTA에 대응한 경기도 정책을 제시하였다.

1장은 연구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소개하였고, 2장에서는 FTA 추진과 그 주요내용을 EU, 미국, 중국 별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경기도 산업별 수출입동향과 FTA에 의한 산업별 효과를 분석하였고, 4장에서는 FTA에 대응한 경기도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건의를 제시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한·미 FTA효과로 연평균 2조2,009억원, 한·EU FTA효과로 3,100억원의 정(+)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다만 농축산업은 생산액이 연평균 1,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도출된 정책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FTA 원산지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고, 둘째, FTA에 대응한 경기도 산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FTA로 인하여 수혜를 입는 업종은 FTA 혜택을 빨리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피해를 보는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 및 R&D 지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대표적 피해산업인 축산업과 제약업에 찾아가는 전문 컨설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넷째, FTA 대응한 기술개발사업 신설을 제안하여 현재까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전략기술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FTA대응 기술개발사업"을 편성하여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경기개발연구원이 산업별 FTA에 대응한 전략을 위주로 기술하였다면 대전상공회의소의 연구(대전상공회의소, 2012)는 대전지역수출ㆍ수입기업의 FTA활용실태조사에 초점이 있다.

도출된 정책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FTA체결로 인한 관세철폐 등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선을 FTA가 체결된 국가들로 변경토록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함은 물론 국가들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정부가 마련한 FTA활용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기업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중언론매체나 다양한 기업지원기관을 통한 홍보 또는 교육 등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지역수출, 수입 사업체의 FTA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촉진 또는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부차원의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하였다. 넷째,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도 촉진 또는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FTA를 이해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또는 컨설팅이 시급하고, FTA관련 전문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일정수준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실무교육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산지 검증 방법, 원산지 증명서 서류제출 방법, 원산지 충족 기준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투자관련 조치의 검토, 도입, 시행 등 제반 단계에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분쟁이 ISD 절차로 회부될 경우, 성공적인 방어와 사전적 차단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충남도는 2011년 연구용역(김양중 외, 2011)을 통해 FTA에 대비한 농어업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은 FTA에 대응함에 있어 피해산업인 농어업에 초점을 두었다. 충남발

전연구원은 FTA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의 9대 정책방향(탈농 및 폐업, 작목전환, 규모화, 소득보조, 품질제고, 유통경쟁력 증진, 수출촉진, 가격경쟁력 제고, 가공산업육성)과 품목별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였고, 9개의 유형(육성, 시설, 경영, 기술, 인력, 수출,유통, 가공, 자금)으로 사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충남도 보고서는 한·미와 한·EU FTA 및 농업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거대경제권인 중국과의 FTA를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제조업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구경북 및 전남에서도 FTA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한 "한·EU FTA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이춘근 외, 2009) 보고서에 의하면 한·EU FTA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GRDP가 약 2.5%~3%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2조 6,000억원 정도 생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섬유, 자동차부품, IT 및 가전제품은 다소 증가하고, 조선, 철강, 금융 분야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정밀기계, 정밀화학, 낙농제품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한·미 FTA가 경북지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이춘근 외 2012) 보고서에서는 관세즉시 철폐시 9,644천달러에서 15,995천달러 수출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하였고 주력산업인 전자산업과 자동차부품, 기계금속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림축산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은 원산지기준을 확인하여 자사제품과 협력업제의 철저한 원산지관리를 강화하고 모바일산업과 IT, 융복합산업, 실용 로봇관련 부품산업 구조고도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와 유연생산체계를 구축 방안 등 지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해규모가 큰 농축산업은 구조 및 체질개선, 종자사업 고부가가치화, 해외시장 수출과 기술개발, 생산자 직영 판매장 건립 등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전남의 대응방안"(이기웅·조창완, 2012) 보고서에서는 전남의 농업생산 감소액은 발효 10년차에 4,4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고 과실류, 특작류 등 특화 농산물은 큰 폭 생산 감소를 예상하였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고품질 안전·안심 위주의 전남 농산물 유기농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한 차별화, 비교우위 농식품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기능성 농식품 및 융복합산업 육성과 영세경영의 조직화, 중국 주요 수입지역에 농업정보 제공 및 품목별 관측시스템 도입,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중심으로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육성, 피해가 예상되는 채소류, 식량작물은 기계화, 품목별 조직화, 연합마케팅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한편, 통합무역정보시스템과 FTA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더불어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의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동 센터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각종 수출컨설팅, FTA 관련 다양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중국 현지 경제 상황을 감안한 수출유망업종 발굴 및 지원 활동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및 자료

1)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충남도 수출입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FTA 활용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기존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구분	주요 내용		분석방법
영향분석	① 기 발효 FTA 영향분석	충남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계량화	설문분석
	② 향후 FTA 영향분석	충남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계량화	
미시분석	③ FTA 활용실태 분석	충남 중소기업의 활용현황 파악	
	④ FTA 지원사업 분석	기존정책에 대한 평가를 계량화	
거시분석	⑤ FTA 활용 활성화 방안	FTA 활용 활성화 방안 및 중앙정부 건의사항 정리	정성분석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5개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5개 과제는 ① 기존 FTA 영향분석, ② 향후 FTA 영향분석, ③ FTA 활용실태 분석, ④ 지원사업 분석, ⑤ FTA 활용 활성화 방안 제시이다.

(1) 기 발효된 FTA 영향분석

기 발효된 주요 FTA를 대상으로 충남경제에 미친 영향을 FTA 발효 전후 시점을 대상으로 경제의 성장률 변화를 파악한다. 특히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여, 기존 FTA로 인한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을 구분하여 피해산업의 경우 특별관리 산업으로 선정한다. 한국무역협회의 산업별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되, 무역협회의 자료가 중소기업만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바, 최종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향후 FTA 영향분석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발효될 주요 FTA를 대상으로 충남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한다. 주요 산업별로 구분하여 향후 FTA로 인한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을 구분하고자 한다. 향후 발효될 FTA로 인한 피해산업을 올바르게 파악한다면 FTA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깃 산업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장세분화는 FTA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FTA 활용실태분석

전 세계 주요 교역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발효된 FTA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FTA가 지역기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부산, 울산 등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행중인 FTA 활용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FTA 활용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역기업들이 FTA 활용 극대화를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FTA별 협정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산지 증명을 위한 내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며, 특히 CEO의 FTA에 대한 관심과 활용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대전상공회의소, 2012). 그러나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남지역 기업의 FTA 활용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FTA 활용실태분석은 FTA 체결에 따른 충남지역 수출과 수입 기업들의 FTA 활용도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기업들의 FTA 활용현황과 애로사항, 지원제도의 성과, 문제점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4) FTA 지원사업 분석

FTA 지원사업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FTA 지원제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기관별 중복사업과 수많은 사업들이 복잡하게 엉켜있어,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전략과제가 충남에서의 정책반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충남도 지원사업과,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의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FTA 활용실태조사로 파악이 어려운 애로사항 등을 정성적인 기업 및 지원기관 인터뷰를 통해 개별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분석의 목적이다. 먼저 충남도 및 FTA 활용지원센터의 사업을 파악하고, 기업 인터뷰를 통해 충남도 및 FTA 활용지원센터 사업의 문제점을 정책별 취약지표 카드의 항목별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기간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5) FTA 활용 활성화 방안

FTA 활용 활성화 방안은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로부터 최대의 이득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실행이 불가능한 지원정책은 정부건의사항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기발효된 FTA가 충남경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둘째, 향후 추진될 FTA가 충남에 미칠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한다. 셋째, FTA 활용실태 분석은 FTA 체결에 따른 충남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도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기업들의 FTA 활용현황과 애로사항, 지원제도의 성과, 문제점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들과 지원제도의 개선사항 등을 마련한다. 넷째, FTA 활용실태조사로 파악이 어려운 애로사항 등은 정성적인 기업 및 지원기관 인터뷰를 통해 개별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로부터 최대의 이득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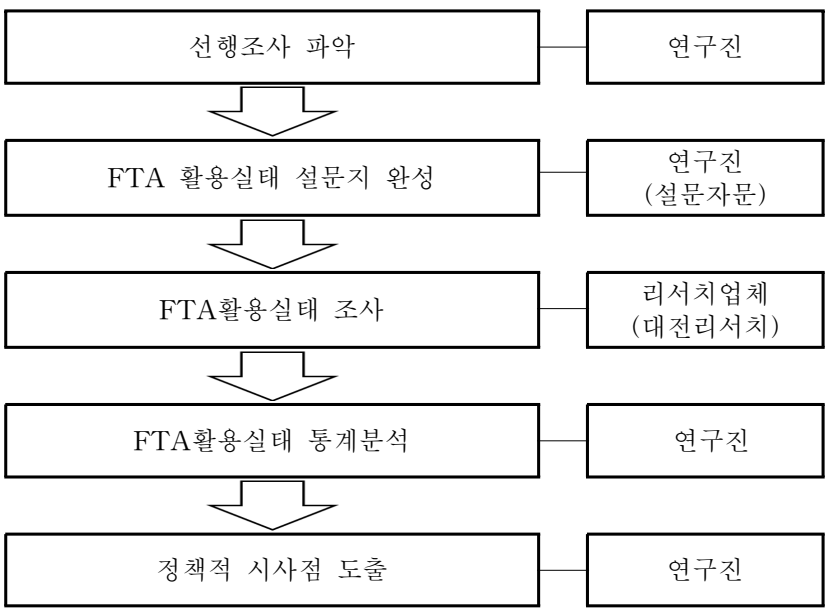
2) 연구의 자료

(1) 설문조사개요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이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가. FTA활용실태조사 순서

〔그림 1〕FTA활용실태조사의 진행순서



나. FTA활용실태조사 개요

○ 조사 대상

FTA활용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충남도내 제조업기반 수출입 중소기업이다.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표본은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자체조사한 수출입 기업리스트에서 랜덤추출된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 FTA활용실태조사 표본설계

구분	FTA 활용실태 조사
모집단	충남지역 수출·수입 중소기업 - 충남도내 15개 시군
표본 크기	- 조사대상: 도내 수출기업 300업체
표본 추출방법	-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자체조사한 수출입 기업리스트에서 랜덤추출

〈표 4〉 FTA활용실태조사 조사방법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의 사업체 방문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원의 사업체 방문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 설문의 주요내용

본 조사의 주요목적은 기 발효된 FTA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액을 예상해보고, 피해산업을 올바르게 구분해내는 것이다.

또한 향후 발효될 FTA로 인한 피해산업을 올바르게 파악한다면 FTA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깃산업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장세분화는 FTA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아울러 전 세계 주요 교역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발효된 FTA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FTA가 지역기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만 한다.

부산, 울산 등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행중인 FTA 활용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FTA 활용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정책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남지역 기업의 FTA 활용실태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FTA 활용실태조사는 FTA 체결에 따른 충남지역 수출과 수입 기업들의 FTA 활용도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기업들의 FTA 활용현황과 애로사항, 지원제도의 성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표 5〉 설문항목 및 문항수

항목	설문문항
사업체 일반현황	14문항
기 발효된 FTA 영향	38문항
향후 FTA 영향	38문항
FTA 지원제도	71문항
FTA 활용실태	33문항
중소수출기업 애로사항	15문항
계	208문항

제2장 FTA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1. 중앙정부 지원정책

본 절에서는 FTA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피해보전, 경쟁력강화, FTA 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지원정책을 정리하였다.

〈표 6〉 중앙정부 지원정책

구분	정부의 FTA 지원제도	주지원처
피해보전	- 무역조정지원제도	중진공
	- 사업전환지원제도	중진공
	- 자금금융지원	중기청/중진공
	- 무역구제제도(구제/분쟁해결)	무역위원회
경쟁력강화	- 해외시장 진출지원강화	KOTRA
	- 기술협력 및 R&D 지원	중기청
	- FTA-PASS	관세청
FTA 지원센터	- FTA 원스톱 지원센터	관세청
	- FTA 활용 지원센터	산업부
	- FTA 무역종합 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1) 피해보전 정책

（1）무역조정지원제도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에 컨설팅, 융자 및 정보제공, 기타 연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회복, 생산성 향상, 구조조정 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수입증가로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10%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고려한 피해가 5~10%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요건이 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융자(업체당 30억 한도) 및 컨설팅(업체당 24백만원), 정보제공 등을 지원한다.

（2）사업전환지원제도

FTA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 품목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FTA이행에 따라 당해 업종의 경영이 어려워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주 지원내용은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업체당 40억)과 신제품·신기술 개발(R&D) 사업 지원(과제당 1억원 한도)이다.

（3）자금금융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정부 또는 각급 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저리사업자금 지원이 제공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 융자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국산설비를 대여하는데 필요한 장기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이며, 중소기업은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3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도 지원규모는 3조

8,500억규모이며,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4）무역구제제도(구제/분쟁해결)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외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이 WTO 등 다자간 무역협정 및 FTA와 같은 양자간 무역협정에 의거하여 정부에 시정조치 또는 발생한 피해의 복구를 위한 조치를 위해 조사를 요청하고, 조사결과 규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상대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 처음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 도입하였으며 이후 GATT 및 WTO협정을 통하여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특히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무역구제에 대한 국제규범들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니와, 우리나라는 나아가 이들 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이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피해구제법')』 및 『관세법』 등 국내법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현재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WTO협정과 같이 국제무역규범에 위반되는 교역상대국의 법령·관행·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경쟁력 강화

（1）해외시장 진출지원강화

해외시장조사사업의 경우 KOTRA 전 세계 해외무역관(81개국 119개 무역관)을 통해 해외 바이어 찾기,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무역사절단 사업은 KOTRA에서 지방자치

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진흥을 지원한다. 수출상담회는 한국상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업계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 증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다. 해외시장 설명회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해외시장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에 세계 각국의 시장동향, 상품 및 마케팅 정보, 투자환경 및 투자절차 등의 무역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국내업계의 수출증진 및 해외 투자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설명회를 통해 세계 각지에 있는 KOTRA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현지 유력바이어의 구매정책 및 유통업체 정보, 각국의 무역 및 투자 정책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외시장설명회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해외시장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에 세계 각국의 시장동향, 상품 및 마케팅 정보, 투자환경 및 투자절차 등의 무역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국내업계의 수출증진 및 해외 투자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명회를 통해 세계 각지에 있는 KOTRA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현지 유력바이어의 구매정책 및 유통업체 정보, 각국의 무역 및 투자 정책에 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기술협력 및 R&D 지원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확장된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 제품과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국내 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R&D기획역량혁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FTA 대응 글로벌 전략품목 및 녹색・첨단기술 분야 등 혁신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며,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R&D기획역량혁신사업은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

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사전검증하고, 시장동향 및 개발전략 등을 수립 · 제공하고, 조합 · 단체 등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 기술기획 활동을 통한 유망기술과제 발굴하며, 중소기업 차원의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R&D전략을 수립 · 제공한다.

(3) FTA PASS

1년에 2~3회 정도 수출하는 영세업체가 FTA관련 교육을 받지 않고 FTA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FTA PASS는 인력·비용 부담으로 FTA활용에 애로가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청에서 개발·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으로 원산지를 판정해주고, 향후 상대국의 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FTA-PASS 보급으로 쉬운 안내글에 따라 원산지판정을 위한 최소 데이터를 입력하여 판정 후 원산지확인서(증명서 포함)등을 발급할 수 있다. FTA-PASS 서비스는 4단계(준비 → 등록 → 판정 → 발급)로 구현되어 있으며, 준비단계에서는 사전서류 준비, 확인 및 발급항목을 선택하고, 등록단계에서는 제품 및 원재료 자료 입력, 판정단계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고, 최종 발급단계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서를 발급하여 FTA에 활용할 수 있다.

3) FTA 지원센터

(1) FTA 원스톱 지원센터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본부세관)에 FTA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FTA활용 애로사항 상담에서 맞춤형 컨설팅제공, 사후관리까지 기업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FTA 원스톱 지원센터는 '기업상담관', '현장지원팀', '컨설팅지원팀', '통관애로해소팀', '대외협력팀' 등 산하세관 포함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 기업상담관제도를 통한 FTA 활용상담 △ FTA-PASS 구축·인증·원산지사전진단 맞춤형 Total 컨설팅 △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간 잡매칭(Job-Matching) 사업 확대 △ FTA 활용애로 해소 등 수출기업 FTA 활용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한다.

(2) FTA 활용지원센터

FTA활용지원센터는 FTA의 활용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간 협력·지원 체계를 위한 Sub-Center로서 활용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지원기관의 수도권 편중으로 FTA 활용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방소재 기업의 수요를 현장에서 대응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FTA 활용지원 사업의 발굴·운용을 통한 사업 효과성 증대 뿐만 아니라, FTA에서 발생하게 되는 법적 분쟁 및 애로요인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전문가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밖에도, 수출제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 및 FTA활용 관련 컨설팅 그리고 FTA이해와 FTA활용정보 제공, 무역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표 7〉 FTA 활용지원센터의 주요내용

사업내용	주요업무
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	- 수출업체의 협력업체 대상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 교육 -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 교육과정 운영 - 원산지증명 발급 실무 교육(실습교육) - 특정 FTA 및 국가별 유망품목 위주의 전력형 시장 설명회
찾아가는 FTA활용 컨설팅	- 한-EU FTA 발효를 대비하여 6,000유로 이상 EU로 수출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될수 있도록 컨설팅 실시 - 한-EU FTA, 한-미 FTA 발효 후 예상되는 원산지 검증에 업체가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원산지를 관리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실시 - 대상품목 HS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검토, 원산지 판정결과 분석,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등 컨설팅 지원
FTA콜센터 운영	- 콜 센터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구비서류, 작성요령, 신청절차 등 수시 상담, FTA 관련 피해사례 및 기업애로 접수 및 처리 - 전문상담 :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등 FTA 활용관련 전문상담, FTA 관련 정책정보 제공
충남지역 FTA 실태조사	- 전문연구기관 연구를 통한 충남지역의 중장기 FTA 활용방안 수립 - FTA가 충남지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긍정적/부정적) 분석 - FTA에 대한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인식 및 대응 분석
FTA활용 가이드북 및 홍보 리플렛 발간	- 센터 지원사업 홍보 및 FTA활용관련 안내 - 기업체의 FTA 활용 분위기 조성

(3) FTA 무역종합 지원센터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활용의 전 과정을 한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 기관이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FTA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하여 관세, 회계, 법무 법인 등 전문기관 컨설팅,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의 실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유권해석 및 절차 간소화, 다양한 정책 건의 등의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사업내용은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애로해소이다.

〈표 8〉 FTA 무역종합 지원센터의 주요내용

사업내용	주요업무
정보제공	- 세미나, 설명회, 상담회 개최 - FTA 활용 성공 사례집 및 매뉴얼 제작 - FTA 활용정보 통합 제공 -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교육	- FTA 실무교육 제공 -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회사별 원산지 관리 시스템 Edu-sulting (교육+컨설팅)
컨설팅	-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 품목분류, 인증 수출자 신청, 원산지 관련 서류 컨설팅 -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애로해소	- FTA 신문고, 업계 자문그룹 운영을 통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 건의 - 협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 FTA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 - 거래당사자간 계약서(영문, 국문) 표준화
지역센터	- 각 지역센터에 전문가(관세사 등)를 상시 배치해 컨설팅 지원

2. 충남도 지원사업

본 절에서는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충남도의 지원사업을 충남도 자체사업과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사업을 정리하였다.

〈표 9〉 충남도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충남도	-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단체참가, 타깃 개별참가)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 FTA 활용 지원센터 운영
충남 FTA활용 지원센터	- FTA 콜센터 운영
	- FTA 원산지 관리사 양성 교육
	- FTA 활용 실무지식 교육
	- FTA 시장설명회
	- FTA 컨설팅 지원
	-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 FTA 전문인력 지원 알선

1) 충남도 FTA 지원사업

2013년 충남도는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을 ① 국내 강소기업 발굴, ②수출초보에서 중견까지 기업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식 지원, ③ FTA가 발효된 국가의 수혜품목 중심의 해외마케팅 확대로 정하고, 이에 맞추어 기(旣)사업 및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의 수출지원사업은 대부분 통상지원(진흥)시책과 관련된 간접사업이다. 통상지원(진흥)사업의 대부분은 효율적 추진과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관계법령[4]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추진, 실행한다. 충남도는 관계법령 및 사업성격에 따라 해외

4)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등

마케팅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무역거래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 7개 기관을 선정[5], 수탁기관이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총 16개 사업을 위탁대상사업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다. 유관기관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충남/대전),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이 있다. 16개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사업분야 (11개)와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5개)로 나눌 수 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분야는 중소기업의 직접 마케팅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해외전시박람회 타깃 개별참가,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바이어찾기 및 해외시장 조사,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단체참가,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초보수출기업 역량강화사업, 중견기업 수출선도화사업이 있으며,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 사업으로, 수출보험지원, 수출 통번역지원,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수출유공자), 해외시창개척 항공료 지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FTA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충남도의 7개 위탁사업과 FTA 활용 지원센터의 8개 자체사업만을 다루고자 한다.

---

5) 위탁대상기관 선정기준은,

①관계법령에 근거해 적정한 수탁자격을 갖춘 기관

-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
- 시도지사가 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
-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

②지식경제부 「해외마케팅 집행창구 일원화지침」상의 수행기관

- 해외 수출지원활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국내 수출지원활동: 중소기업진흥공단

〈표 10〉 충남도 FTA지원사업(운영주체별)

운영 주체	사업명칭	자체 사업	위탁 사업	위탁기관
충청남도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O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해외전시박람회(단체참가)		O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해외전시박람회(타깃개별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O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O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O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충남 FTA활용 지원센터	FTA 콜센터 운영	O		
	FTA 원산지 관리사 양성 교육	O		
	FTA 활용 실무지식 교육	O		
	FTA 시장설명회	O		
	FTA 컨설팅 지원	O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O		
	FTA 전문인력 지원 알선	O		

자료 : 도 내부자료,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내부자료

〈표 11〉 충남도 FTA지원사업 현황 및 증감율('12~'13)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칭	업체수	사업비	증감율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114	1,165	△30.1 / △13.7
해외전시박람회(단체참가)	84	500	23.5 / △33.3
해외전시박람회(타깃 개별참가)	90	327	△8.2 / 22.0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60	150	△16.7 / △25.0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50	100	0.0 / 0.0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500	70	신규

자료 : 도 내부자료

충남도의 7개 위탁사업과 FTA 활용지원센터의 8개 자체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해외무역사절단의 목적은 수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여 수출 저변 확대 및 수출역량을 배가하는 것이며, 사업개요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2〉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의 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 개요	❍ 사 업 량 : 19회 114업체 ❍ 사 업 비 : 1,165백만원 ❍ 지원대상 : 도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제조업체 ❍ 지원횟수 : 업체당 연 4회 이내 ❍ 지원절차 : 모집공고 → 업체신청 → 시장성평가 → 업체선정 → 준비 → 수출상담 → 사후관리 → 수출계약 성사
지원 내용	❍ 현지 기업(바이어·투자자) 사전 섭외 1:1 상담 주선 ❍ 상담장 임차 및 현지 이동차량 및 개별 통역 제공 ❍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등 사전 시장조사비 ❍ 업체당 1인 항공료 40% 지원 ❍ 현지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마케팅기법 지도·지원 ❍ 일정기간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수출계약 성사율 제고

(2)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의 목적은 도내 중소업체의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사업개요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3〉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의 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 개요	❍ 사 업 량 : 14회 84업체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지원대상 : 도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제조업체 ❍ 지원횟수 : 업체당 연 4회 이내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업체 신청서 제출 → 신청업체 평가 → 지원업체 선정 → 업체 전시회 참가 ❍ 업체선정 : 경쟁력 있는 업체 발굴 세부 심사기준 마련 - 현지시장성조사, 유망 중소기업 지정서, 특허·인증 등 * 지원제외 : 개별 참가지원 사업 참여업체
지원 내용	❍ 업체당 매회 800만원 한도 - 기본부스 1개 임차료, 편도 운송료, 통역비(50만원 내) ❍ 전시회 참가자 1인 왕복 항공료 40% 별도 지원

(3) 해외전시박람회 (타깃 개별참가)

해외전시박람회 타깃 개별참가지원의 목적은 품목별 전문화된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사업개요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4〉 해외전시박람회 (타깃 개별참가)의 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 개요	❍ 사 업 량 : 90업체 ❍ 사 업 비 : 327백만원 ❍ 지원대상 : 도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제조업체 ❍ 지원횟수 : 업체당 연 2회 이내 ❍ 업체모집 : 연중 수시모집 * 제출서류 : 참가계획서, 유망 중소기업 지정서, 특허·인증서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참가희망업체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평가 및 지원업체선정 → 업체 전시회 참가 →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검토 확인 → 지원금 교부
지원 내용	❍ 업체당 매회 500만원 한도 - 기본부스 1개 임차료의 70% ❍ 전시회 참가자 1인 왕복 항공료 40% 별도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의 목적은 수출경쟁력 있는 제품의 해외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초청, 수출상담을 주선하는 것이며, 사업개요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의 개요 및 지원내용

<table>
<tr><td>사업
개요</td><td colspan="2">❍ 사 업 비 : 150백만원
❍ 지원대상 : 도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제조업체
❍ 개최시기 : 상반기 6월, 하반기 9월
❍ 품 목 : 종합품목
❍ 해외바이어 초청 : 60명(상·하반기 각 30명)</td></tr>
<tr><td>지원
내용</td><td>해외바이어
▪ 국내 체재비
▪ 숙박비
▪ 왕복 항공료(70%)</td><td>도내 중소기업
▪ 해외바이어와의 1:1 세일즈 상담기회 제공
▪ 상담장 임차료 및 운영비
▪ 통역비 지원</td></tr>
</table>

(5) FTA 전략지역 타깃 마케팅

FTA 전략지역 타깃 마케팅 지원의 목적은 FTA 전략지역에 대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및 FTA활용 극대화이며, 사업개요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6〉 FTA전략지역 타깃 마케팅 사업의 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 개요	❍ 사 업 량 : 50업체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40, 도비 60) ❍ 지원대상 : 도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제조업체 ※EU·미국·동남아·인도 등 FTA 전략지역(47개국) 수혜품목 중심 ❍ 추진절차 : 추진계획 수립 → 업체모집 및 수탁사업자 입찰 → 사업추진 → 정산 및 분석보고
지원 내용	❍ 업체당 연간 2백만원 이내 - 해외검색엔진 마케팅, e-catalogue 등 SNS 마케팅 지원 등

(6)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배양 사업지원의 목적은 도내 중소기업의 무역실무 기초 및 FTA 이해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역량 강화이며, 사업개요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7〉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사업의 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 개요	❍ 사 업 량 : 150업체 ❍ 사 업 비 : 5백만원(전액 도비) ❍ 지원대상 : 도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제조업체
지원 내용	❍ 무역마케팅 및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 무역실무이론 기초 및 무역 통신문 통·번역 지원 - FTA 협정국가별 관세율, 통관, 원산지 규정 및 증명서 발급방법 등 - FTA 대상국가별 시장특성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교육 등

(7)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의 목적은 중소기업에게 FTA활용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원산지 판정능력 향상 및 관세절감 효과 극대화를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개요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8〉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개요 및 지원내용

사업 개요	❍ 사 업 량 : 500업체 ❍ 사 업 비 : 70백만원 ❍ 지원대상 : 도내 본사·공장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제조업체 ❍ 추진방법: 충청남도 FTA활용지원센터 출연금 지원 ❍ 추진절차: 지원계획 수립 → FTA 활용지원센터 추진계획 수립 → 사업수행 → 정산 및 분석·보고
지원 내용	❍ FTA 전문인력(원산지 관리사) 양성교육 지원 ❍ FTA 활용 수출기업 무역실무 교육 ❍ FTA 활용 시장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등

2)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사업

(1) FTA 콜센터 운영

FTA 콜센터 운영사업 지원의 목적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FTA관련 주요정보 및 동향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9〉 FTA 콜센터 운영사업의 내용

사업 내용	❍ 충청남도 FTA활용 지원센터 추진사업 홍보 ❍ 콜센터 운영방법 : -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 파견관세사와의 직접연결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컨설팅과 연계지원)

(2)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실시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실시사업 지원의 목적은 도내 수출입기업 실무담당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원산지관리사로 양성하는 것이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0〉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실시사업의 내용

사업 내용	❍ 개최횟수 : 2회 ❍ 대 상 : 도내 수출입기업 실무담당자 ❍ 교육시간 : 24시간(09:00~18:00) * 3일 ❍ 교육인원 : 1회 50명 정도 ❍ 추진방법 - 협력기관 : 국제원산지증명원 - 교육내용 : 원산지관리사 관련교육 ❍ 지원내용 : 1인당 교육비 27만원

(3) FTA 활용담당자를 위한 실무지식 교육

FTA 활용담당자를 위한 실무지식 교육사업 지원의 목적은 도내 수출입기업 실무담당자에게 FTA 제도 및 실무적 활용내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 FTA 활용담당자를 위한 실무지식 교육사업의 내용

사업 내용	❍ 개최횟수 : 3회 ❍ 대 상 : 업종별 수출입기업 실무담당자 - 기계, 전기전자, 화학, 플라스틱 등 ❍ 교육시간 : 8시간(09:00~18:00) ❍ 교육인원 : 1회 60명 정도 (3회 * 20명) ❍ 교육내용 : - 업종별 원산지 결정기준 설명 활용 - FTA 지역별 · 업종별 협정서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

(4) FTA시장 설명회

FTA시장 설명회 사업 지원의 목적은 도내 중소기업의 담당자 및 임직원에게 FTA에 대한 소개 및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 FTA 시장설명회 사업의 내용

사업 내용	❍ 개최횟수 : 1회 ❍ 대 상 : 도내 중소기업 담당자, 임직원 등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인원 : 1회 60명 정도 ❍ 교육내용 : - 업종·시장별 원산지 결정기준 분석 및 활용방법 - 신규FTA 진행현황 및 이에 대한 대비책 제시 등

(5) 맞춤형 컨설팅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의 목적은 도내 수출입기업에게 FTA의 활용에 대해 업체 특성에 맞춘 내용지도를 통해 정확한 FTA 제도활용을 돕는 것이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3〉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의 내용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수출입기업 중 컨설팅 희망업체(특정업체) ❍ 지원목표 : 20업체 ❍ 인력구성 : Biz-콜센터 및 FTA활용지원센터 전문위원 ❍ 지원내용 : - FTA협정관세율 확인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분석 -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절차 안내 - 원산지 증명서 신청·발급지도 -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안내 등

(6)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사업의 목적은 도내 수출입기업을 자체발굴을 통해 방문하여 FTA 제도 소개 및 동 센터 사업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상담하는 것이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사업의 내용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수출입업체(자체발굴을 통한 불특정업체) ❍ 지원목표 : 20개사 ❍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컨설팅효과 극대화 - 도내 산업·농공단지, 기업인 협의회 등 현장애로 상담 ❍ FTA관련 현재 애로사항 파악 후 즉각적 해결책 제시

(7) 중소기업의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의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목적은 FTA 수혜품목(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 및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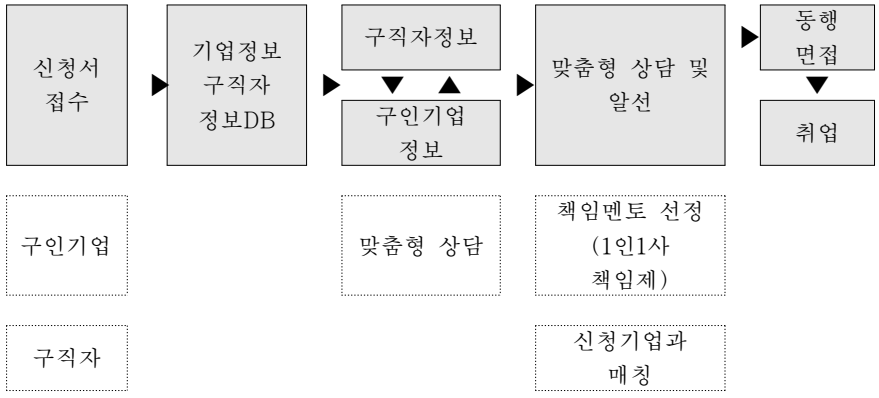
〈표 25〉 중소기업의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내용

사업 내용	❍ 국가별 유망품목 위주의 전략적 시장설명회 개최 ❍ 현지 유망품목 시장조사 지원 및 바이어 알선 ❍ 무역사절단 및 특화 해외전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道 국제통상과와 업무연계를 통한 지원 추진)

(8) FTA 전문인력 지원알선

FTA 전문인력 지원알선 사업의 목적은 FTA 전문인력의 채용을 희망하는 도내 수출입기업에게 구직자 정보를 제공 및 구직을 알선하는 것이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6〉 FTA 전문인력 지원 알선사업의 내용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연중(충남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 ❍ 지원대상 : 충남소재 수출입기업 및 구직자 ❍ 추진방법 : 충남 일자리종합센터 구직자DB를 활용하여, FTA 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구직자 정보제공 및 알선 ❍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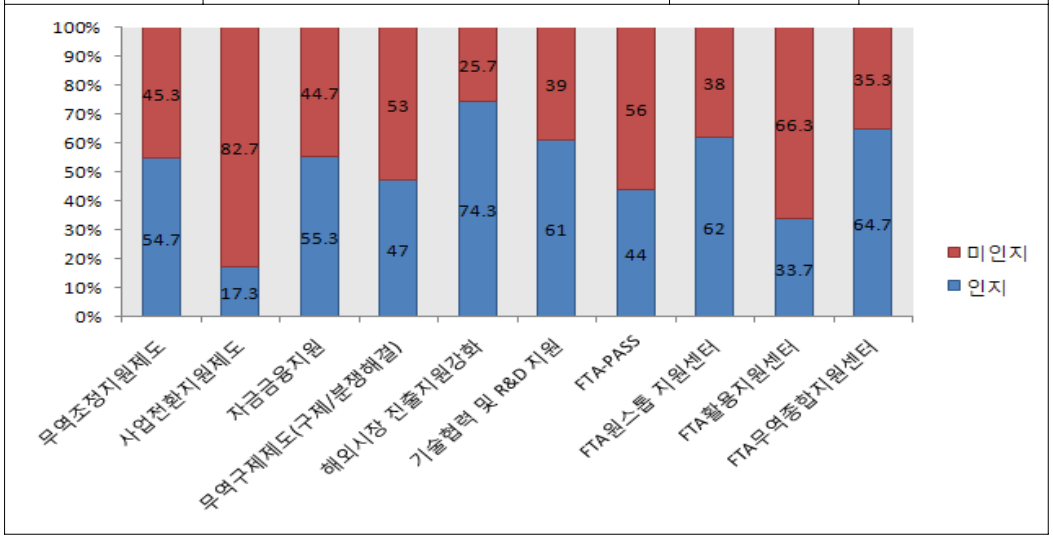
3.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지원사업 인지도

1) 정부의 FTA 지원제도 인지도

〈표 27〉 정부의 FTA 지원제도 인지도

(단위: %)

정부의 FTA 지원제도		인지	미인지
피해보전	무역조정지원제도	54.7	45.3
	사업전환지원제도	17.3	82.7
	자금금융지원	55.3	44.7
	무역구제제도(구제/분쟁해결)	47.0	53.0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진출지원강화	74.3	25.7
	기술협력 및 R&D 지원	61.0	39.0
	FTA-PASS	44.0	56.0
FTA 지원센터	FTA원스톱 지원센터	62.0	38.0
	FTA활용지원센터	33.7	66.3
	FTA무역종합지원센터	64.7	35.3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정부의 FTA지원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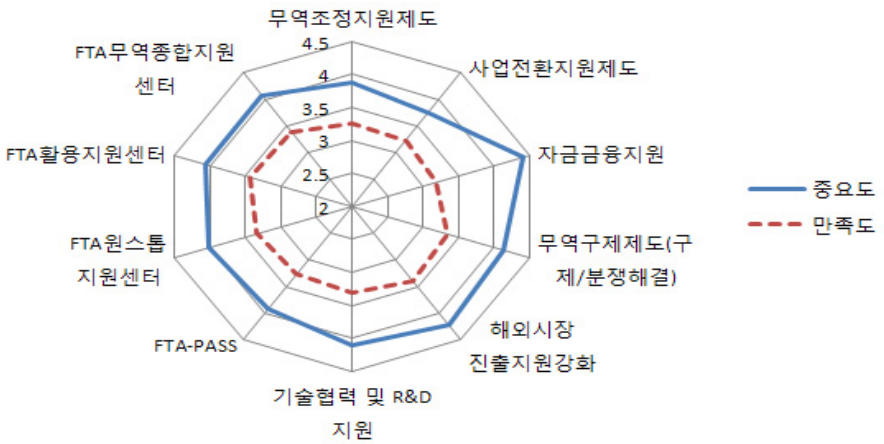
피해보전과 관련한 제도 중 사업전환지원제도의 경우 82.7%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FTA 원산지 증명을 위한 FTA-PASS의 경우 인지도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각종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FTA활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는데, 주요 FTA 컨설팅이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인지도를 더 높여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피해보전은 FTA 피해기업(특히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제조업)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와 지원강화가 필요하며, FTA활용지원센터의 경우 인력을 더 확보하고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표 28〉 정부의 FTA 지원제도 중요도와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평균)

정부의 FTA 지원제도		중요도	만족도	차이
피해보전	무역조정지원제도	3.88	3.26	0.62
	사업전환지원제도	3.75	3.23	0.52
	자금금융지원	4.41	3.18	1.23
	무역구제제도(구제/분쟁해결)	4.15	3.35	0.80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진출지원강화	4.21	3.41	0.80
	기술협력 및 R&D 지원	4.11	3.30	0.81
	FTA-PASS	3.93	3.27	0.66
FTA 지원센터	FTA원스톱 지원센터	4.03	3.34	0.69
	FTA활용지원센터	4.07	3.44	0.63
	FTA무역종합지원센터	4.06	3.38	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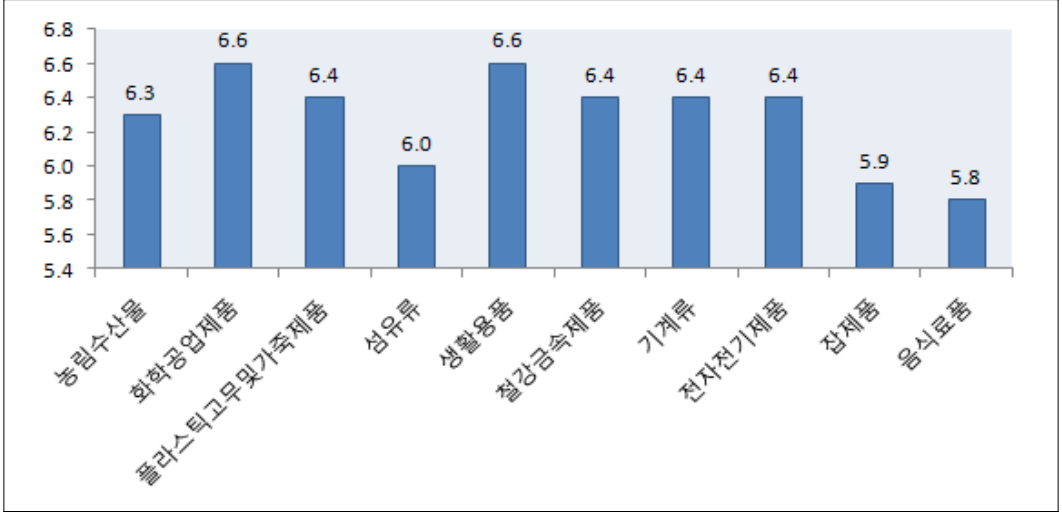
충남 중소수출입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원제도는 자금지원(4.41)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시장 진출진출강화(4.21), 무역구제제도(4.15)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원제도는 FTA활용지원센터(3.44)로 나타났으며, 해외시장 진출지원강화(3.41), FTA무역종합지원센터(3.38) 순이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차이가 가장 심한 지원제도는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FTA활용지원센터의 경우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느끼는 지원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남 중소수출입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29〉 정부의 FTA 지원제도 평점

(단위: 10점 척도 평균)

제품	평균값
농림수산물	6.3
화학공업제품	6.6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6.4
섬유류	6.0
생활용품	6.6
철강금속제품	6.4
기계류	6.4
전자전기제품	6.4
잡제품	5.9
음식료품	5.8
계	6.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10점만점에 6.3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특히 음식료품, 잡제품, 섬유류를 수출하는 기업에서 점수가 낮았으며, 화학공업제품,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향후 낮은 FTA 지원제도의 평가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음식료품 제조업의 만족도가 낮은데, 이는 FTA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지속적인 밀착지원이 필요하다.

2) 충남의 FTA 지원사업 인지도

충남 지원사업의 인지도의 경우,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 콜센터 운영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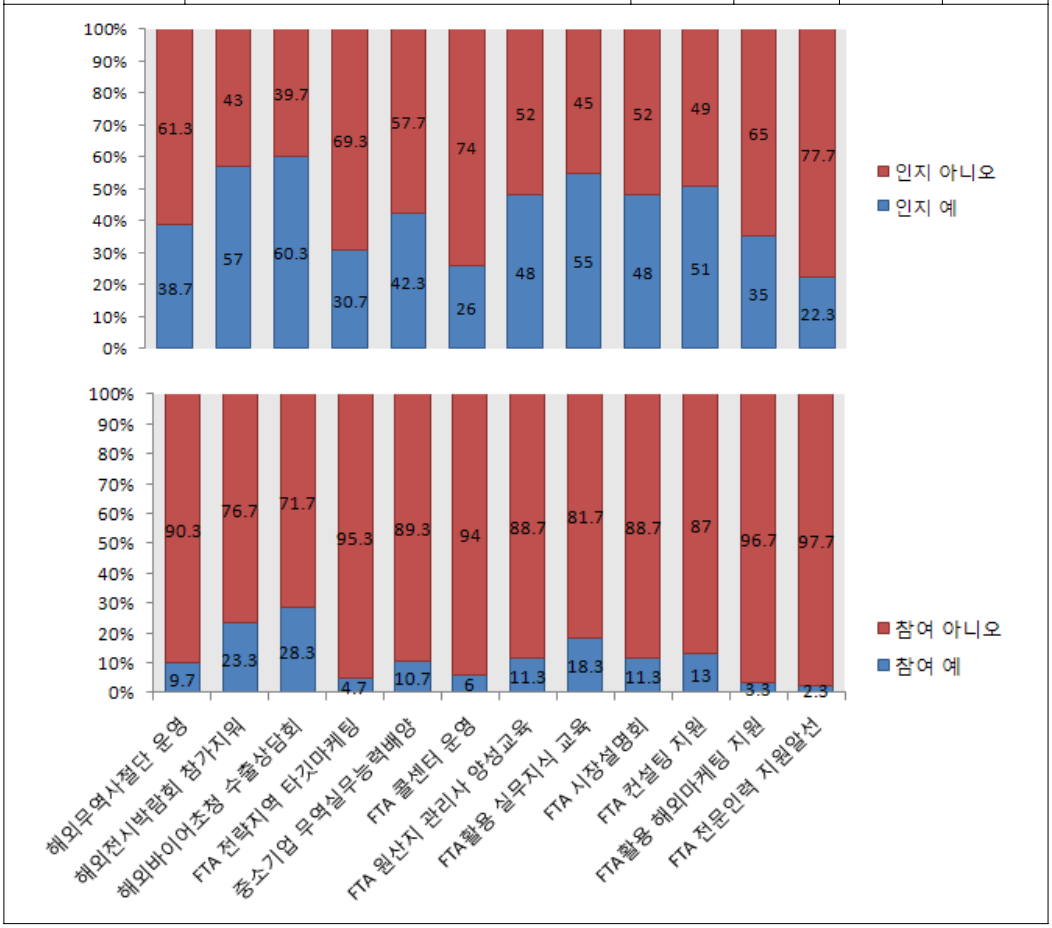
충남도 사업의 경우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등 거래선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충남 FTA활용 지원센터의 경우 FTA활용 실무지식 교육, FTA 컨설팅 지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 FTA 지원사업의 경우 충남도와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간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두 기관 추진 사업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거래선발굴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충남 FTA활용지원센터는 실무교육과 컨설팅 등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30〉 충남의 FTA 지원사업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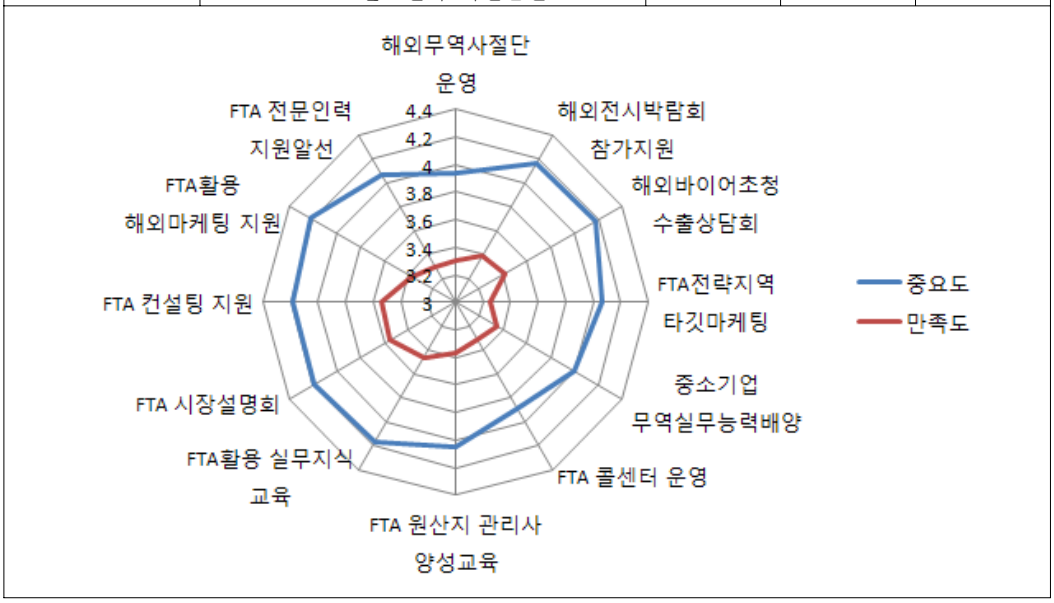
충남의 FTA 지원사업		인지		참여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충남도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38.7	61.3	9.7	90.3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57.0	43.0	23.3	76.7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60.3	39.7	28.3	71.7
	FTA 전략지역 타깃마케팅	30.7	69.3	4.7	95.3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배양	42.3	57.7	10.7	89.3
충남 FTA활용 지원센터	FTA 콜센터 운영	26.0	74.0	6.0	94.0
	FTA 원산지 관리사 양성교육	48.0	52.0	11.3	88.7
	FTA활용 실무지식 교육	55.0	45.0	18.3	81.7
	FTA 시장설명회	48.0	52.0	11.3	88.7
	FTA 컨설팅 지원	51.0	49.0	13.0	87.0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35.0	65.0	3.3	96.7
	FTA 전문인력 지원알선	22.3	77.7	2.3	97.7



〈표 31〉 충남의 FTA 지원사업 중요도와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평균)

충남의 FTA 지원사업		중요도	만족도	차이
충남도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3.93	3.30	0.63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4.16	3.39	0.78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4.17	3.42	0.75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4.06	3.25	0.82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배양	4.00	3.35	0.65
충남 FTA활용 지원센터	FTA 콜센터 운영	3.89	3.31	0.58
	FTA 원산지 관리사 양성교육	4.05	3.37	0.68
	FTA활용 실무지식 교육	4.17	3.46	0.71
	FTA 시장설명회	4.19	3.55	0.64
	FTA 컨설팅 지원	4.18	3.54	0.64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4.22	3.37	0.85
	FTA 전문인력 지원알선	4.07	3.30	0.77



충남 중소수출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4.22)으로 나타났으며, FTA 시장설명회(4.19), FTA 컨설팅 지원(4.18)와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원사업은 FTA 시장설명회(3.55)로 나타났으며, FTA 컨설팅 지원(3.54),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3.42) 순이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차이가 가장 심한 사업은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나타났다.

충남 중소수출입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해외마케팅, 시장설명회 등 바이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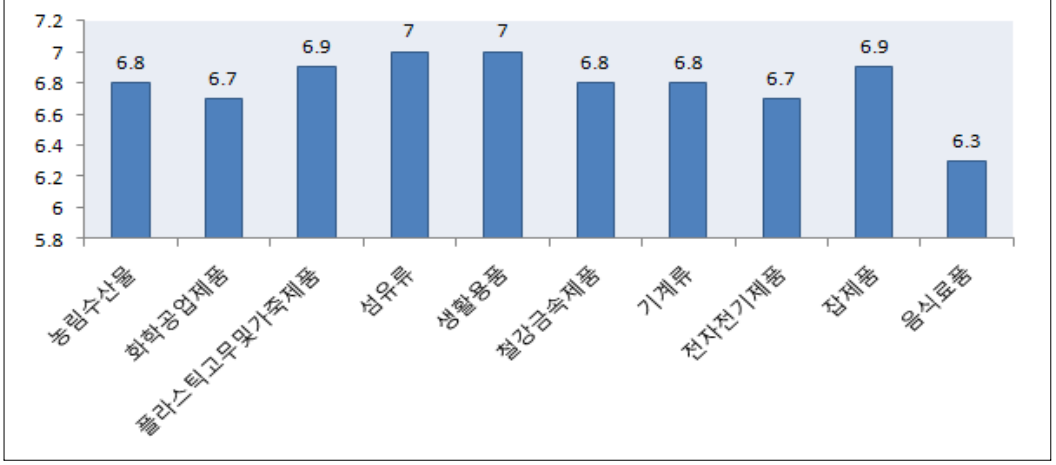
발굴이었으며, 다음으로는 FTA 컨설팅으로, 향후 거래선 확대와 초보수출기업의 수출방법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사업재편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충남도 FTA활용지원센터의 기능이 약해,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무역전문인력의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32〉 충남의 FTA 지원사업 평점

(단위: 10점 척도 평균)

제품	평균값
농림수산물	6.8
화학공업제품	6.7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6.9
섬유류	7.0
생활용품	7.0
철강금속제품	6.8
기계류	6.8
전자전기제품	6.7
잡제품	6.9
음식료품	6.3
계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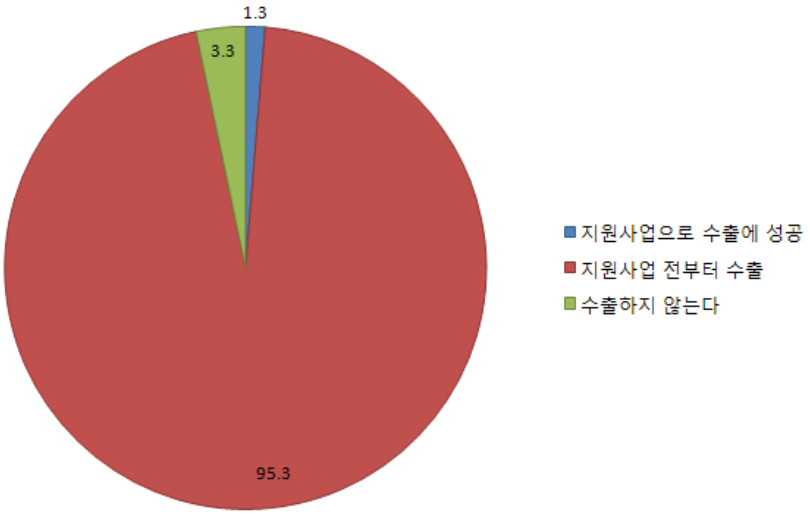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10점만점에 6.7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특히 음식료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 점수가 낮았으며, 섬유류와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표 33〉 충남의 FTA 지원사업을 통한 수출성공 여부

(단위: %)

구분	백분율
지원사업으로 수출에 성공	1.3
지원사업 전부터 수출	95.3
수출하지 않는다	3.3



충남도 FTA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경우는 전체 기업 중 1.3%에 불과하여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현재 수출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위주이고, 이에 따라 수출초보기업이 참여할 만한 사업이 부족하다. 따라서 수출이 전무하여도,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수출초보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초보기업만을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4. 외국의 FTA 이용촉진 현황[6)]

1) 미국

(1) 통상대표부(USTR)·상무부

FTA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통상대표부(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와 상무부가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상대표부의 홈페이지에는, 기발효 및 기교섭된 FTA의 전(全)조문 및 현재 교섭중인 FTA관련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FTA 활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련 링크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세관절차에 관한 내용은 관세국[7)], 한국으로의 수출 세관절차에 관한 내용은 한국 정부의 「U.S.Korea Connect[8)]」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상무부의 산업통상관리국(ITA) 상업서비스과(USCS)는 무역관련 서비스의 하나로, 기존의 무역협정 활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미국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수출포털[9)]」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은 FTA의 활용촉진을 위해 법률고문을 고용할 수 있으므로, USCS의 무역에 관한 상담은 수출전반 또는 FTA의 활용에 관해 비교적 안내가 미치지 못한 중소기업이 주요대상이 되고 있다.

동 수출포털 사이트는 ITA가 에너지부, 농무부, 국부무, 재무부, 수출입은행, 미 중소기업청, 해외민간투자공사 및 USTR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미국이 체결한 FTA 협정에 쓰여 있는 어려운 규정내용을 미국의 수출자에게 평이한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컨텐츠 중에는 FTA에 관한 용어, 정의, FTA의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획득하는 방법, 협정에 기반한 특혜관세대우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작성 규칙 및 절차에 대해 1시간짜리 웹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수출자는 동 사이트에서 FTA 관련 세미나 및 웹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다. 이들 세미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FTA 목적에 관한 기초적 지식, 각 FTA 공통규정, 서류작성(원산지 증명서) 및 법률준수(Compliance)를 제공하고 있다.

---

6) 본 장의 내용은 일본 機械輸出組合 (2010) EPAの普及·利用促進に關する調査報告書의 내용을 부분발췌(일본 내용 제외)

7) http://www.cbp.gov/xp/cgov/trade/trade_programs/international_agreements/free_trade/korea/을 참조

8) http://www.uskoreaconnect.org/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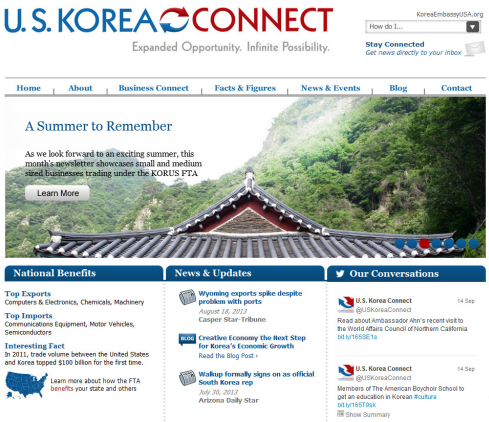
9) http://www.export.gov/index.asp 을 참조

〔그림 2〕 미국의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통상대표부(KORUS FTA 부분)

상무부 수출포털

관세국 홈페이지



USKorea Connect 홈페이지

(2)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FTA 연수

International Business Training(IBT), Unz & Co.,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등의 법률사무소, 컨설팅 회사가 FTA의 활용에 관한 유료 연수세미나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유료연수는 통상 1일의 세미나로, 제품의 관세분류, 품목별 원산지기준, 원산지 증명서 규칙, 원산지 기준의 법률준수 등을 취급한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그 이후 체결한 몇몇 FTA의 기본틀(frame)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NAFTA 이외의 FTA에 관한 지식을 요구하는 수출자는, 요금은 높으나 그 테마에 특화한 연수를 별도로 수강할 수 밖에

없다. 사업자단체와 연구기관(think-tank)도 기(旣)교섭 혹은 교섭중인 FTA에 관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단체의 멤버에게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 및 세미나는 FTA의 효과적 활용법을 알리는 통상적인 세미나의 목적과 다르다. 도리어 자유무역 지지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벌이는 장(場)이며, 자유무역 회의론자에게 장점을 피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의 FTA 관련자료 및 세미나도 무역의 이익에 관해 자유무역 회의론자를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수출자에 의한 FTA 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업자단체와 싱크탱크와 동일하다.

2) EU

(1) EU위원회

EU위원회 무역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de(DG Trade))가 FTA 추진 및 관련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무역총국은 홈페이지에서[10] 기(旣)발효 및 교섭중인 FTA에 관해, FTA의 전(全) 조문 개제 및 FTA로 얻을 수 있은 주요 이익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EU위원회 세제·관세동맹총국(DG for Taxation and Customs Union(DG TAXUD))의 홈페이지에서는, EU의 특혜무역의 결정관세에 관한 측면(주로, 원산지규칙 및 서류작성요건)에 관한 개요 및 사용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웹사이트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아, 사용자에게 불편한 점이 많은 관계로 일반적으로 FTA 인식 및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라고는 말하기 힘들다.

EU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대담(Civil Society Dialogue)이라는 장(場)을 통해 EU의 통상정책 등 여러 측면에 관해 EU산업과의 대담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서 FTA에 관한 회의 및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FTA 활용을 위한 연수 목적은 아님).

FTA 홍보활동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위원회는 EU와 개도국 간의 FTA에 관한 정보를 실은 팜플렛 및 기타 서류를 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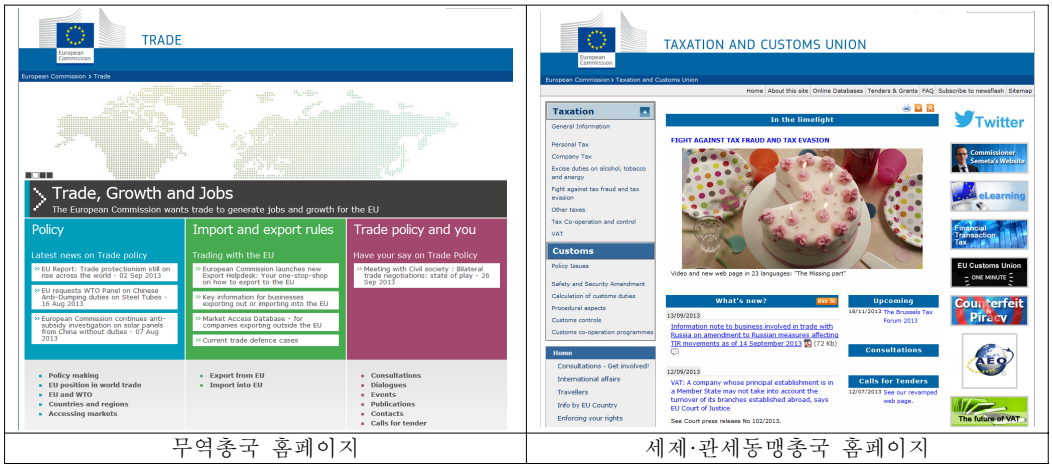
개발도상국 수출자의 EU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무료 온라인서비스인 '수출

10) http://ec.europa.eu/trade을 참조

Help Desk'에 특혜무역협정의 기술적 요건, 관세율, 문서작성요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DB 정보는 특정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출에 맞추어 작성되었으나, 기술(技術) 및 문서작성 상의 요건 및 각 EU가맹국의 적용세율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어 선진국의 수출자에게도 유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EU의 산업단체, 상공회의소 및 BusinessEurope, Eurochambres, Eurocommerce 및 ECIPE 등의 정책 연구기관(Think-tank)이 특정 교섭 중 및 기(旣)발효된 FTA에 관한 정보지 발행 및 세미나 개최를 하고 있다. 세미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며, FTA 체결 후 업무상 가이던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3〕 EU의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무역총국 홈페이지 | 세제·관세동맹총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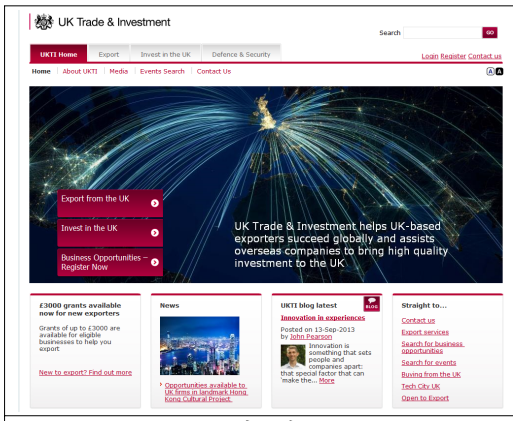
(2) EU 가맹국- 영국 사례

EU 가맹국 및 지역의 산업단체는 개별적으로 EU FTA에 관한 가이던스를 국내산업에 제공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영국의 경우, FTA에 관해 주요책임을 갖는 정부기관인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및 무역투자국(UK Trade & Investment)가 FTA에 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언 및 설명회 정보 등을 제공하고 개별상담을 하고 있다(단, 홈페이지 상에 FTA 활용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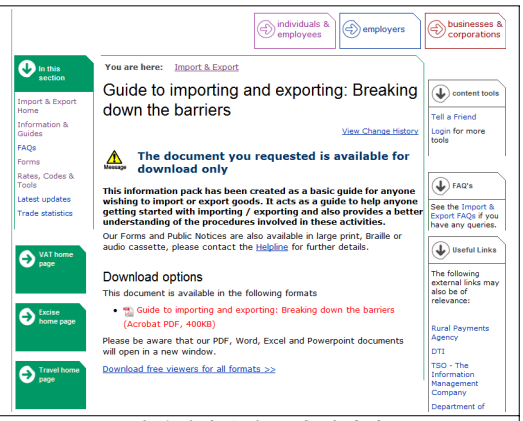
영국왕실세입관세국(HM Revenue & Customs)은 EU FTA에 기반한 특혜관세의 특징 및 수혜요건에 관해 일반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국 상공회의소 및 지방지부의 상업단체들은 비정기적으로 EU의 FTA에 관한 연수활동을 가맹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영국의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무역투자국



왕실세입관세국 홈페이지

3) 일본

일본은 FTA보다 EPA(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EPA는 FTA를 기본축으로, 관세철폐 등의 통상장벽 제거 뿐만이 아닌, 협약국 간의 경제거래의 원활화, 경제제도 조화, 서비스 및 투자·전자상거래 및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력(사람) 이동, 기술협력, 등 각종 경제영역에서의 연계강화·협력촉진 등을 포함한 조약이다.

양자간 협력의제를 포함한다는 점 이외에는 FTA와 대동소이하다.

EPA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창출, 즉, 외부 압력을 통해 구조개혁을 가속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대외경제정책과 국내제도개혁 추진·융합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 1월 일-싱가포르 EPA을 시작으로 2012년 3월의 일-페루 EPA까지 13개국과 협정체결했다. EPA의 특징으로는 다음 내용을 들 수 있다.

① 비관세장벽 철폐

② 양국간 협력 : ODA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무역, 투자촉진, 인재양성, 에너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등의 FTA 상대국의 요청에 응할 수 있음.

③ 노동력 이동 : 노동력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향후 양국간의 이해 심화, 비즈니스 활성화 및 R&D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일-싱가포르 EPA에서는 기술자 자격의 상호인정에 따라, 양국 국민이 서로 이동 및 체류하기 쉬운 환경이 정비되었음.

EPA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기관들에서 제공하고 있다.

(1)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EPA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다자간 무역체제를 중시하면서도, 침체된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EPA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스탠스라 할 수 있다. 적극적인 EPA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동아시아 EPA의 추진과 APEC의 FTAAP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정책소개, 가이드라인, 세미나 설명회(비정기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1]

(2) 외무성

외무성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견지 및 보완하는 역할로 EPA를 설정한다. 동 부처는 일본이 경제대국이면서도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이 약하다는 인식 하에, EU 및 NAFTA와 같은 수준의 동아시아 경제통합(ex.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협력(TPP))을 실현해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일본의 영향력 행사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공동주최로 정기적 EPA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도설명 및 성공사례 소개 등을 진행한다.

(3) 농림수산성

동 부처는 EPA를 통해 다음 내용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1) http://www.meti.go.jp/policy/trade_policy/epa/seminar.html을 참조

① 자국 식료수입의 안전화, 다원화
②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식품수입 확보
③ 일본 브랜드 농림수산물, 식품의 수출 추진
④ 자국 식품생산의 비즈니스 환경 정비
⑤ 아시아의 농·산·어촌 지역의 빈곤 등 해소
⑥ 지구환경 보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러나, 일본의 경제협력은 농업분야 시장개방 문제로 인해 좀처럼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13개 국가 및 지역과 EPA를 체결했으나, 이 중 농업대국으로 불리는 국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무역진흥기구(JETRO)

동 기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체결국 정보, 제도소개, 온라인 세미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12)]

12) http://www.jetro.go.jp/theme/wto-ft 을 참조

〔그림 5〕 일본의 EPA /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경제산업성

무역진흥기구(Jetro)

세관

상공회의소

(5) 기타 정부기관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상대국 정보, 협정조문, 기재양식 등의 정보를 제공[13]

상공회의소 : 홈페이지에 "EPA에 기반한 특정원산지 증명서 발급사업"를 준비하여, 신착정보 및 확인사항, 발급절차 등의 내용의 동영상 및 서류가 업로드. [14]

이외에도 국가전략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대외경제정책종합사이트 등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호주

FTA의 인식제고 및 이용촉진 도모는 호주의 외무무역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가 맡고 있다.

더불어 통상촉진을 담당하는 호주 통상위원회(AUSTRADE)는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무역상대국에 관한 FTA관련 일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외무무역부

동 부서에서 운영하는 FTA 홈페이지에는[15] 각 FTA의 개요,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기(旣)발효협정의 협정문, 교섭중인 FTA에 관한 교섭개요, 공동연구 및 예비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보고서, 각 FTA에 관한 질문의 문의처가 제공된다. 더불어, 일반적 정보로써 보도발표자료, FTA 체결· 교섭상대국과의 관계 등도 제공된다.

또한 FTA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활용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 및 후원하고 있다.

---

13) http://www.customs.go.jp/kyotsu/kokusai/fta-epa_index.htm 을 참조

14) http://www.jcci.or.jp/international/certificates-of-origin/을 참조

15) http://www.dfat.gov.au/fta/index.html을 참조

(2) 호주 통상위원회

FTA에 관해 간결하고 일반적인 개요만을 제공한다. 홈페이지에는[16], 기(旣)발효 및 향후 가능성이 있는 FTA 일람을 게재하고(우리나라 포함), 기(旣)발효된 FTA에 관한 기본적 개요를 제공한다.

(3) 호주 관세국

홈페이지에서[17] 기(旣)발효된 각 FTA의 원산지규칙에 관한 상세설명, 동 국에 관계된 법령, 통달·공고, 각 FTA의 가이드라인, 운용방침, 증명서 등의 샘플을 제공한다. 그러나, FTA 활용 추진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4)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의 통상·마켓 액세스국(Trade and Market Access Division) 홈페이지의 FTA 관련페이지에서[18] , 호주의 FTA에 관한 방침 개요, FTA의 이익, FTA에 관한 농림수산부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기체결된 FTA의 농산품에 관한 개요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5) 기타 정부기관

각료연설, 특히 무역부 장관 및 외무부 장관의 연설을 웹에서 공표하고 있다. 이는 FTA 방침 및 추진상황을 알리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생산성위원회(PC)는 호주정부의 FTA에 관한 방침을 분석한 연차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

16) http://www.austrade.gov.au/Free-Trade-Agreements/default.aspx 을 참조

17) http://www.customs.gov.au/site/page6010.asp 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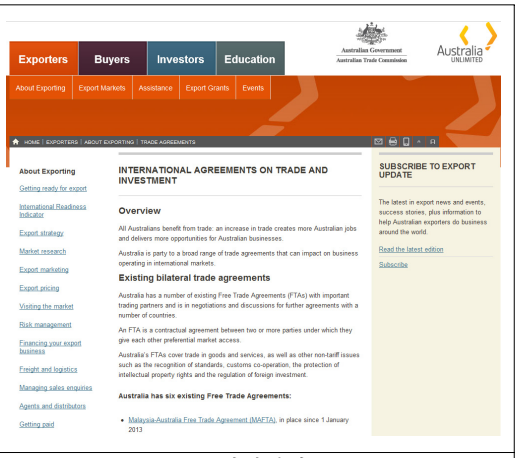
18) http://www.daff.gov.au/market-access-trade/fta 을 참조

호주정부의 주요 비즈니스 정보원(源)인 business.gov.au에서는 FTA관련 웹을 링크해 두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AIG가 International Trade Policy의 홈페이지에서 기(旣)체결된 FTA에 관해, AIG 의견서, 제출물 등을 게재하고, 각 국가들의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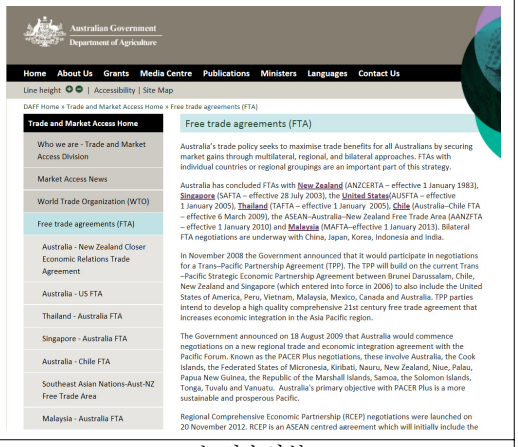
〔그림 6〕 호주의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외무무역부



통상위원회

관세국



농림수산부

5) 말레이시아

(1) 말레이시아 무역개발공사(MATRADE)

말레이시아의 무역진흥을 담당하는 동 공사의 홈페이지에는 기발효된 FTA에 관한 별도 홈페이지를[19]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홈페이지에는 FTA의 기초지식, FTA로 얻을 수 있는 혜택, FTA에 따른 주요 수출입품목 등 일반적인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또한 각 FTA에 관해, 관세삭감 등의 혜택(commitment), 원산지규제, 서비스 및 투자 등의 FTA 구성요소가 소개되어 있다.

또한 동 공사는 무역 및 FTA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무역업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FTA의 중요요소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통상산업부(MITI)

FTA 협정본문, 관세인하 및 철폐일정, 원산지규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은 통상산업부의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동 홈페이지에서는 교섭 중인 FTA의 최신상황에 관한 간단한 개요도 제공된다.

전(全) FTA교섭의 최신상황은 매주 발행되는 MITI Bulletin에서 입수 가능하다. 동 소식지는 무역액 및 수출액 등의 개황, 주요 FTA에 기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발행건수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동 부처는 FTA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미나 및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들 세미나는 말레이시아 무역개발공사와 말레이시아 산업개발국(MIDA)와 공동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 상기 3기관이 합계 50회의 세미나를 개최)

동 부처에서 전자특혜 원산지증명서(EPoS) 시스템에 관한 워크샵도 실시한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수출자 대상의 설명회 및 상담회에서 FTA 이용실무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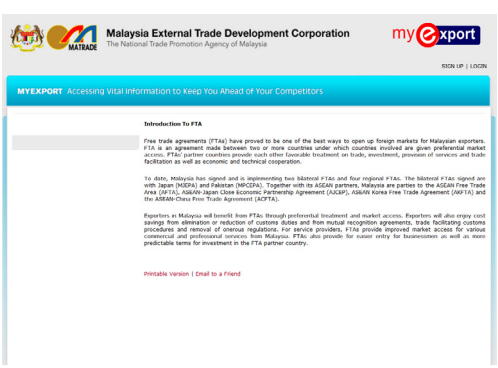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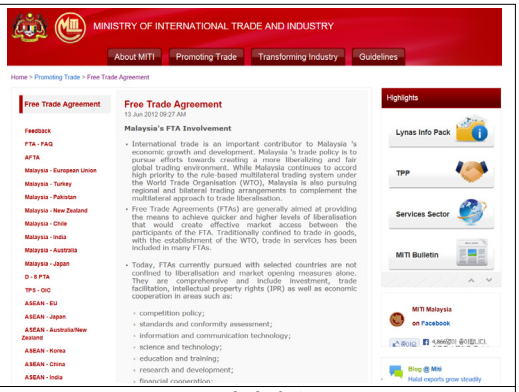
---

19) http://www.matrade.gov.my/cms/content.jsp?id=com.tms.cms.section.Section_IntroFTA 를 참조

(3) 기타 단체

말레이시아 제조업자연맹(FMM) 등의 민간단체도 중소기업의 FTA 이용촉진을 위해, FTA의 최신동향과 비즈니스 기회, 말레이시아 기업에 대한 FTA 영향 등에 관한 최신정보, FTA 이용시 원산지규칙 및 증명서취득 절차에 관해, 부정기적이나 유료로 워크샵을 개최한다.

〔그림 7〕 말레이시아의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table>
<tr>
<td> 
</td>
<td> 
</td>
</tr>
<tr>
<td>무역개발공사</td>
<td>통산산업부</td>
</tr>
</table>

6) 싱가폴

(1) 싱가폴 국제기업청(IE Singapore)

FTA에 관한 홈페이지인 「싱가폴 FTA 네트워크[20]」를 개설하여 국내 수출업자의 FTA활용 촉진에 힘쓰고 있다. 동 사이트에서는 싱가폴 및 싱가폴과 FTA를 체결한 상대국의 비즈니스 관계법령, 세제 등에 관한 최신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동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 지원사업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① 4단계의 간단한 절차로 구성된 관세액 계산「FTA Tariff Calculator」[21]

20) http://www.fta.gov.sg 을 참조

21) http://www.fta.gov.sg/calculator/tariff-calculator-step1.aspx 을 참조

②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시장환경 등을 이해하기 위한 무역투자 세미나 「iAdvisory Seminar」[22]

③ 1: 1로 기업대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FTA Advisor」[23]

한편, 민간기업인 Orissa International의 「수출자 개발프로그램(Exporter Development Program)」[24] 을 후원하여, 중소기업에게 업계관행 및 FTA에 대한 이해제고, 해외사업 확대 역량 배양을 통해 수출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싱가폴 경제연맹 및 FTA 체결상대국의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FTA 이용촉진 세미나 개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싱가폴 경제연맹(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싱가폴 국내 기업에게 무역, 투자 및 산업관계에 관한 지원사업과 관련지식 지식을 제공한다. 국제기업청과 동 연맹, FP Consultants(싱가폴에 거점을 둔 민간컨설팅 회사)를 통해 싱가폴 FTA 인증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25]

동 프로그램은 2일간의 유료 세미나 및 워크샵으로, 대화형 워크샵 형식의 FTA 개략설명, 강의와 실천적 그룹 프로젝트 및 논의를 조합하여 진행된다. 내용은 싱가폴의 FTA 개요, 물품무역, 비관세조치, 무역구제조치, 무역의 기술적 장애, 원산지규칙과 기준, 제조보고서 갱신과 비용명세서 분석, 특혜원산지 증명서 적용, 상호인증협정 및 관세절차 등을 망라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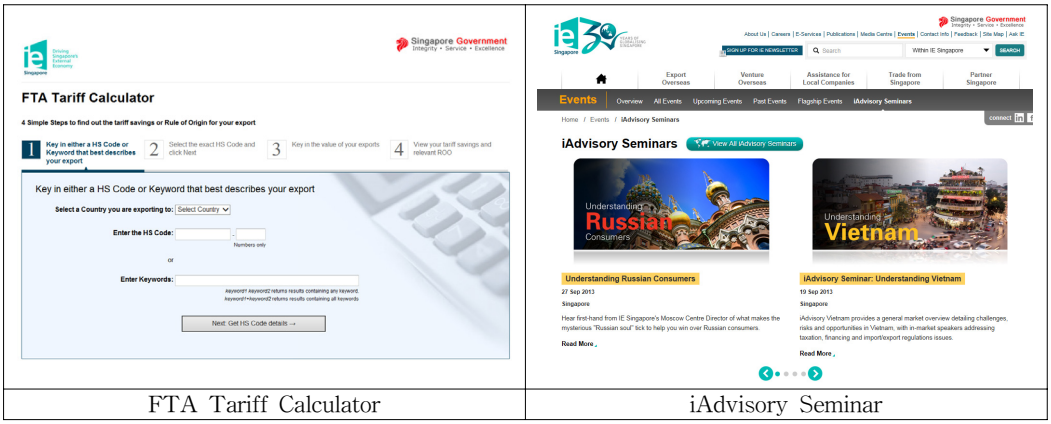
22) http://www.iesingapore.gov.sg/Events/iAdvisory-Seminars 을 참조

23) http://www.fta.gov.sg/fta_adv.asp 을 참조

24) http://orissa-international.com/news.html 을 참조

25) http://www.fp-consultants.com/fta/programmedetails.htm을 참조

〔그림 8〕 싱가폴의 FTA 관련정보게재 홈페이지



FTA Tariff Calculator	iAdvisory Seminar

7) 정책함의

FTA 활용정책의 기본구성은 각국이 대동소이하다.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한 관계법령, 세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워크샵/세미나 개최 등을 주최 및 공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싱가폴의 경우, 4단계 조작만으로 간단히 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호주의 경우는 관세국조차도 FTA 활용추진을 위한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는 등, 각국의 무역특성(싱가폴은 중개무역 중심) 및 FTA에 대한 정부 스탠스에 따라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 상황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정책은 수위의 수준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너무 많은 정보채널에 따른 정보 혼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술하겠으나, 실제, FTA 활용기업 인터뷰에서도, 참조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으로부터 너무 많은 FTA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을 들을 수 있었다. 정보제공원, 추진기관, 지원프로그램 등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된다.

요약

▶ 피해보전은 FTA 피해기업(특히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제조업)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와 지원강화가 필요하며, FTA활용지원센터의 경우 인력을 더 확보하고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정부지원제도의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차이가 가장 심한 지원제도는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FTA활용지원센터의 경우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느끼는 지원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남 중소수출입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낮은 FTA 지원제도의 평가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음식료품 제조업의 만족도가 낮은데, 이는 FTA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이기 때문

▶ 따라서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와 지속적인 밀착지원이 필요

▶ 충남도와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간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두 기관 추진 사업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

▶ 충남도는 거래선발굴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충남 FTA활용지원센터는 실무교육과 컨설팅 등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충남 중소수출입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해외마케팅, 시장설명회 등 바이어의 발굴이었으며, 다음으로는 FTA 컨설팅으로, 향후 거래선 확대와 초보수출기업의 수출방법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사업재편이 필요

▶ 아직 충남도 FTA활용지원센터의 기능이 약해,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무역전문인력의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수출이 전무하여도,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수출초보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초보기업만을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FTA 활용정책의 기본구성은 각국이 대동소이함.

▶ 각국의 무역특성 및 FTA에 대한 정부 스탠스에 따라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상황은 상당한 차이를 보임.

예) 싱가폴의 경우, 4단계 조작만으로 간단히 관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호주의 경우, 관세국조차도 FTA 활용추진을 위한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음

▶ 현재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정책은 수위의 수준이라 말할 수 있음.
이는 정부의 FTA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너무 많은 정보채널에 따른 정보 혼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정보제공원, 추진기관, 지원프로그램 등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됨

제3장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영향 및 활용실태

1. 충남 중소수출입기업 기초통계

1) 사업체 일반현황

（1）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주요제품

무작위 랜덤추출한 결과 충남은 기계류와 전자전기제품의 기업이 각각 17.7%, 17.3%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제품(15.3%), 음식료품(13.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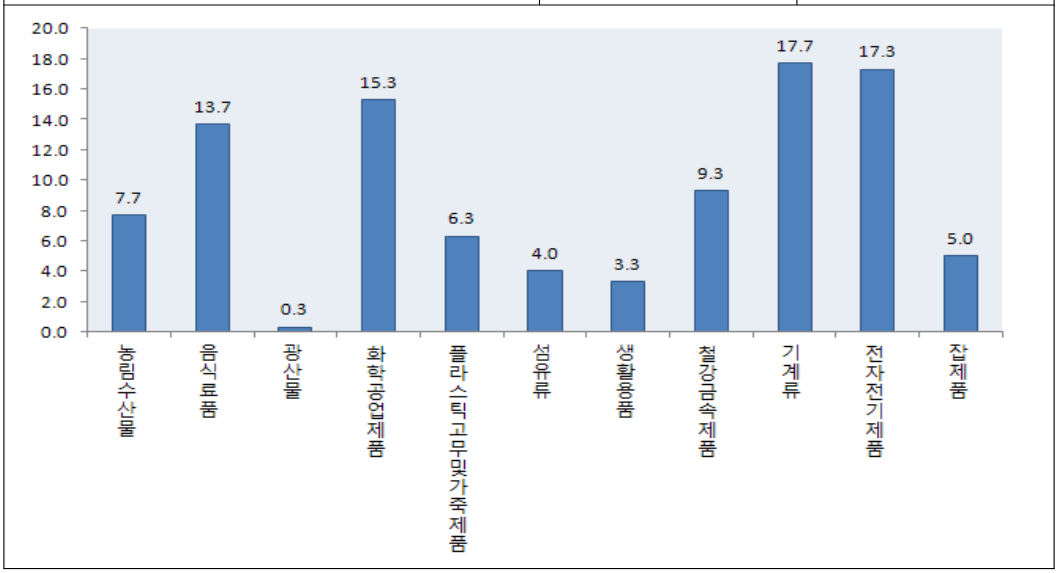
대기업을 포함한 충남의 주력산업이 자동차, 전자정보인데 비해,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경우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비중이 2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림어업과 음식료품 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34〉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주요제품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농림수산물	23	7.7
음식료품	41	13.7
광산물	1	0.3
화학공업제품	46	15.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9	6.3
섬유류	12	4.0
생활용품	10	3.3
철강금속제품	28	9.3
기계류	53	17.7
전자전기제품	52	17.3
잡제품	15	5.0
계	3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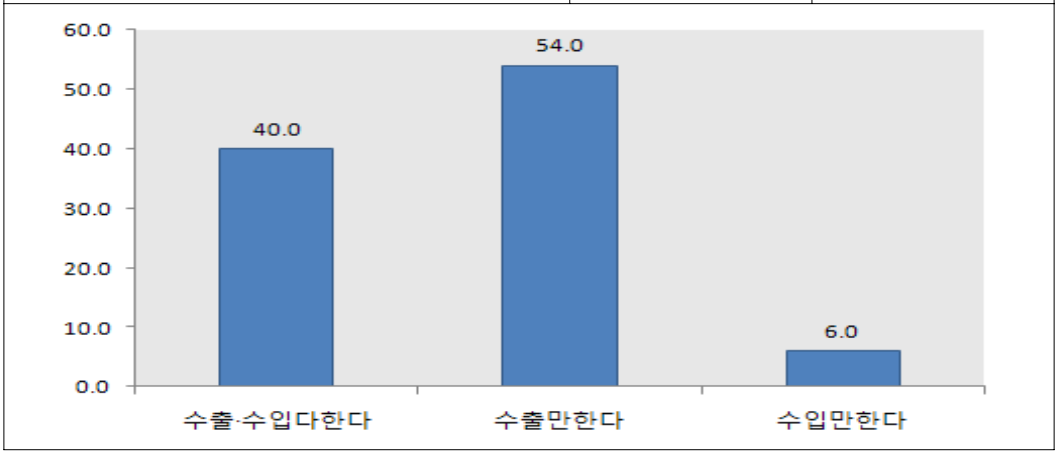
▶ 주요제품군(기계류,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음식료품+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가. 수출입 형태

〈표 35〉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수출입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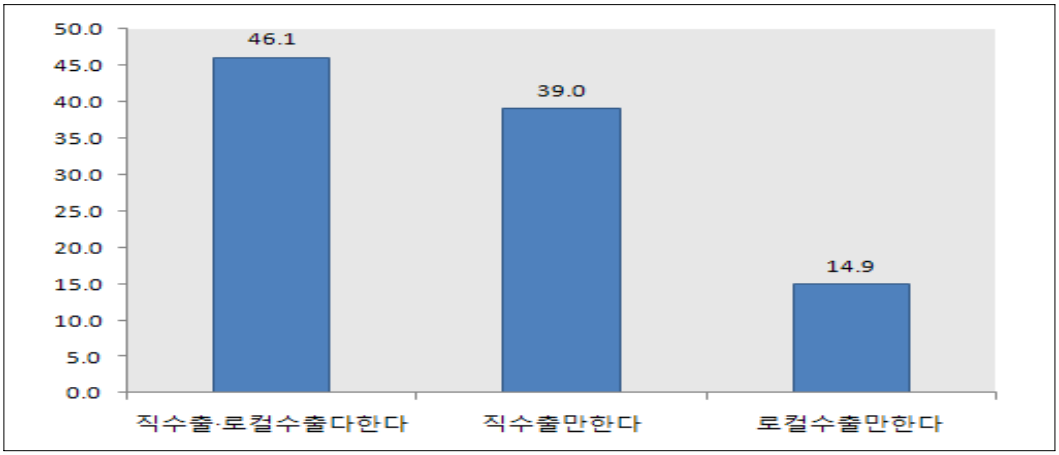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백분율
수출·수입 다한다	120.0	40.0
수출만 한다	162.0	54.0
수입만 한다	18.0	6.0



〈표 36〉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수출 형태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직수출·로컬수출 다한다	130.0	46.1
직수출만 한다	110.0	39.0
로컬수출만 한다	42.0	14.9



수출만하는 기업이 54%로 가장 많았고, 수출·수입을 다하는 기업이 40.0%로 나타났으며, 수입만 하는 기업은 많지 않았다. 수출만하는 기업 중 46.1%가 직수출과 로컬수출을 병행하고 있으며, 직수출만하는 기업은 39.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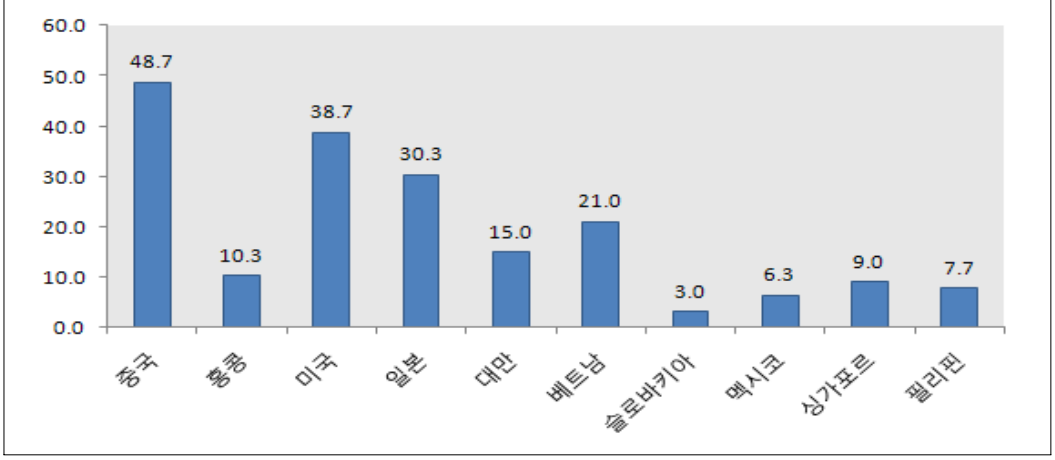
나.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주요수출지역

충남의 중소수출입기업 중 48.7%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며, 미국(38.7%), 일본(30.3%), 베트남(2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주요수출지역

(단위: %)

국가	수출비중
중국	48.7
홍콩	10.3
미국	38.7
일본	30.3
대만	15.0
베트남	21.0
슬로바키아	3.0
멕시코	6.3
싱가포르	9.0
필리핀	7.7



이처럼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주요수출국은 중국으로 특히 중국시장에 대한 거래선 발굴 지원과 중국시장의 정보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통적인 수출지역인 미국과 일본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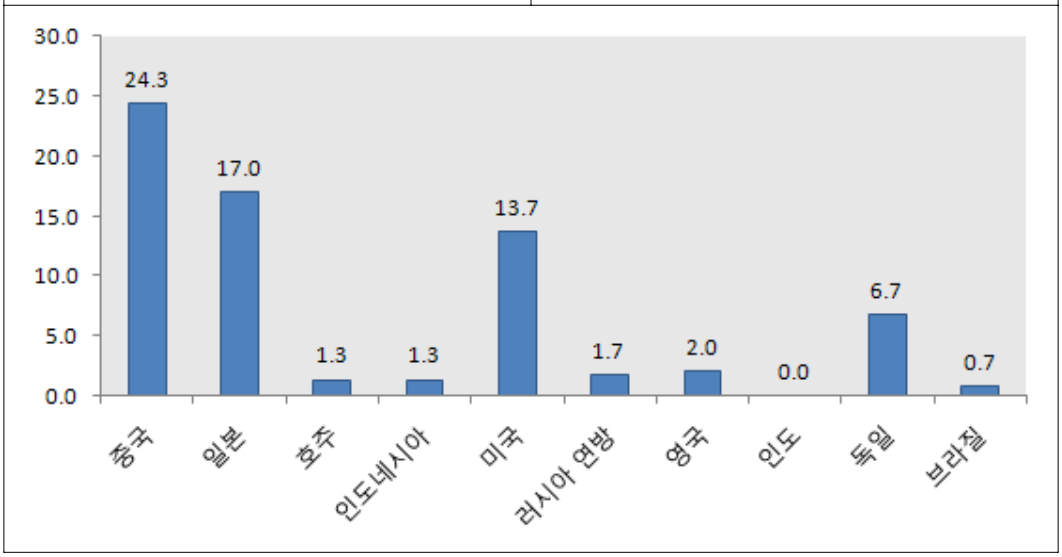
특히 베트남 쪽으로의 수출도 많은 편인데, 향후 동남아 시장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주요수입지역

〈표 38〉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주요수입지역

(단위: %)

국가	수입비중
중국	24.3
일본	17.0
호주	1.3
인도네시아	1.3
미국	13.7
러시아 연방	1.7
영국	2.0
인도	0.0
독일	6.7
브라질	0.7



충남의 중소 수출입 기업 중 24.3%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었으며, 일본(17.0%), 미국(13.7%), 독일(7.6%)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미국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무역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거래선 발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요약

▶ 대기업을 포함한 충남의 주력산업이 자동차, 전자정보인데 비해,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경우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비중이 2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림어업과 음식료품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충남 중소수출기업의 주요제품군은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화학공업제품, 음식료품+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임

▶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주요수출국은 중국으로 특히 중국시장에 대한 거래선 발굴지원과 중국시장의 정보지원을 강화해야 함

▶ 아울러 전통적인 수출지역인 미국과 일본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됨

▶ 특히 충남은 베트남 쪽으로의 수출도 많은 편인데,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동남아시아 무역사무소 개소 등 지원책 논의가 필요

▶ 중국, 일본, 미국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무역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거래선 발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2. 충남의 교역현황

1) 충남의 수출입 현황

2012년 충남의 총수출(통관기준)은 620억불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고 충남의 총수입(통관기준)은 335억불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였다.

〈표 39〉 충청남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충남수출	증가율	충남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2000	16,991		9,978		7,013
2001	11,653	-31.4	9,245	-7.3	2,407
2002	15,151	30.0	9,335	1.0	5,815
2003	19,806	30.7	11,262	20.6	8,544
2004	29,272	47.8	15,426	37.0	13,846
2005	33,520	14.5	17,863	15.8	15,656
2006	38,961	16.2	22,362	25.2	16,599
2007	47,823	22.7	26,674	19.3	21,149
2008	42,936	-10.2	29,556	10.8	13,380
2009	39,428	-8.2	19,129	-35.3	20,299
2010	54,054	37.1	24,893	30.1	29,161
2011	59,956	10.9	33,615	35.0	26,341
2012	62,031	3.5	33,509	-0.4	28,522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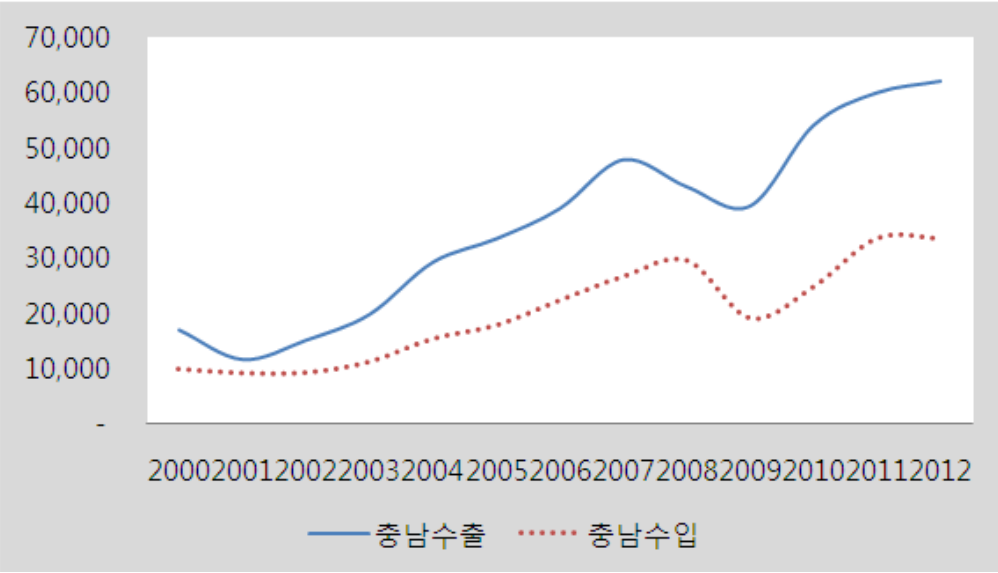
충남의 수출·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충남의 총수출은 2008년과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2010년 큰 폭으로 성장(전년대비 37.1%)하였으나 2012년 수출증가율은 3.5%로 증가세가 둔화하였다. 충남의 수입증가율은 2010년 이후 -0.4%의 마이너스 증가율이 나타났다.

국가의 수출입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2012년 충남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3.5%)은 국가의 수출증가율(-1.3%)보다 4.8%p 높았으며,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의 경우는 0.5%p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충남 수출증가율이 둔화한 것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재정긴축과 신흥국의 금융긴축으로 인한 세계경기가게 위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림 9〕 충남의 수출 및 수입 추세

(단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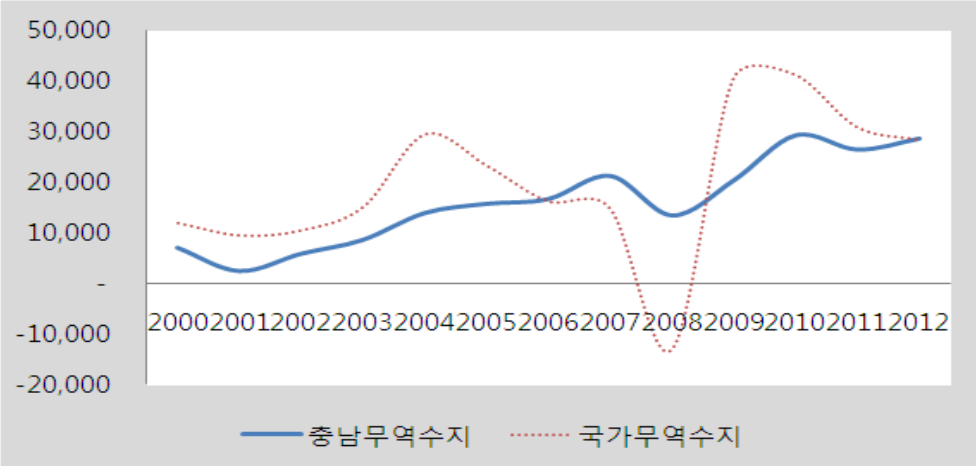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충남의 2012년 무역수지는 285억불로 2011년 263불보다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충남무역수지는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무역수지 282억불과 비슷한 규모이다. 그러나 무역수지가 비록 충남이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2010년에 비해 성장이 크게 둔화된 양상을 나타나고 있으며, 무역수지 둔화는 충남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0〕 충남의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 백만불)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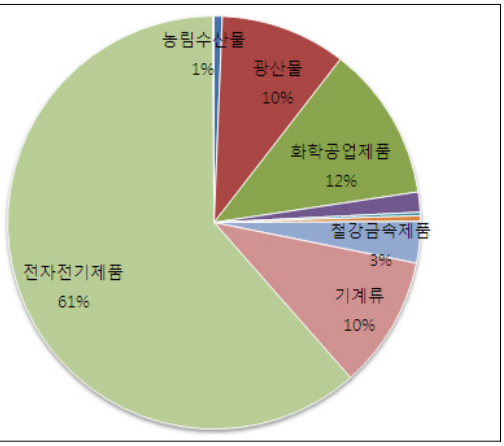
2) 충남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

충남의 품목별 수출 현황은 <표 40>과 같이 전자전기제품이 6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공업제품(11.6%), 기계류(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40〉 2012년 충남의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불)

구분	수출	비중
농림수산물	395	0.6
광산물	6,113	9.9
화학공업제품	7,527	12.1
플라스틱 외	976	1.6
섬유류	167	0.3
생활용품	274	0.4
철강금속제품	2,014	3.2
기계류	6,426	10.4
전자전기제품	38,084	61.4
잡제품	54	0.1
계	62,03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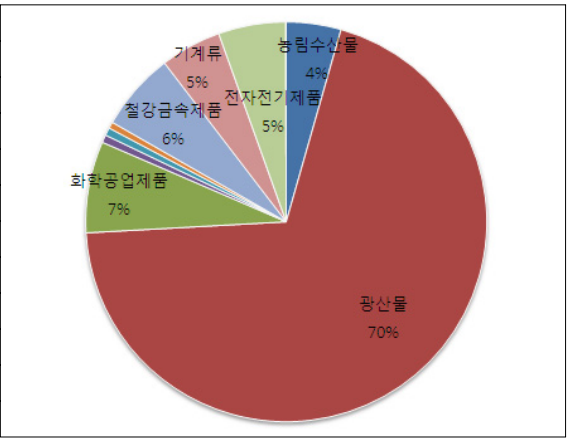
이처럼 충남의 수출품목은 대부분이 전자전기 제품, 화학공업품, 기계류에 편중되어 있고, 이러한 품목이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어서 세계경제위기에 큰 영향을 받기 쉬운 수출구조이다. 2012년 충남의 수출증가세둔화는 전자건기제품의 수출증가세 둔화가 가장 크게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충남의 품목별 수입 현황은 <표 41>과 같이 광산물이 6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공업제품(7.8%), 철강금속제품(7.4%) 순이다.

〈표 41〉 2012년 충남의 품목별 수입

(단위: 백만불)

구분	수입	비중
농림수산물	1,476	4.4
광산물	23,361	69.7
화학공업제품	2,478	7.4
플라스틱 외	209	0.6
섬유류	212	0.6
생활용품	175	0.5
철강금속제품	2,118	6.3
기계류	1,649	4.9
전자전기제품	1,818	5.4
잡제품	13	0.0
계	33,50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3) 충남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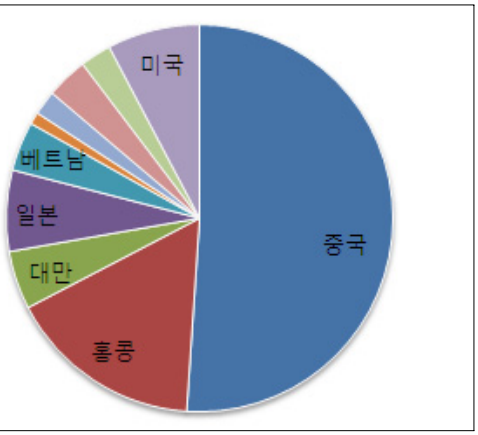
충남의 국가별 수출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이 대중국 수출이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14.0%), 미국(6.7%)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출비중(총 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충남의 국가별 수출추이를 보면 <표 44>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을 기점으로 대만과 홍콩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충남의 제1의 수출국으로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이 흐름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2012년 충남의 국가별 수출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출	비중	증가율
중국	27,366	44.1	12.7
홍콩	8,736	14.1	-8.7
대만	2,610	4.2	-31.7
일본	3,629	5.9	-10.9
베트남	2,210	3.6	138.1
말레이지아	544	0.9	-44.5
싱가포르	1,091	1.8	7.0
슬로바키아	1,862	3.0	27.7
멕시코	1,392	2.2	-16.0
미국	4,148	6.7	2.7
계	62,031	100	3.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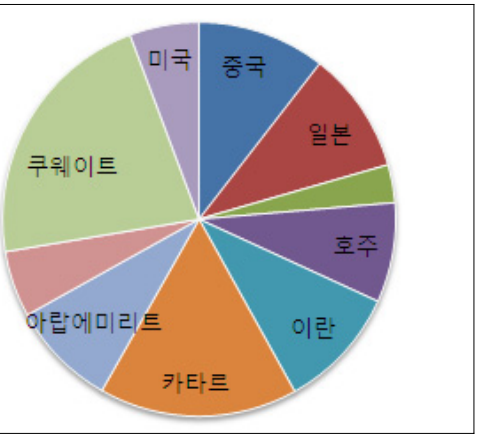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으로의 수출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일본으로의 수출증가도 미약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충남의 국가별 수입을 살펴보면 이란 수입이 1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쿠웨이트(9.8%), 중국(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2012년 충남의 국가별 수입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출	비중	증가율
중국	2,636	7.9	-9.0
일본	2,516	7.5	-4.3
러시아	783	2.3	51.6
호주	2,053	6.1	-14.4
이란	2,528	7.5	-47.2
카타르	4,092	12.2	46.0
아랍에미리트	2,182	6.5	-11.5
사우디	1,364	4.1	-6.4
쿠웨이트	5,497	16.4	66.3
미국	1,434	4.3	-5.8
계	33,509	10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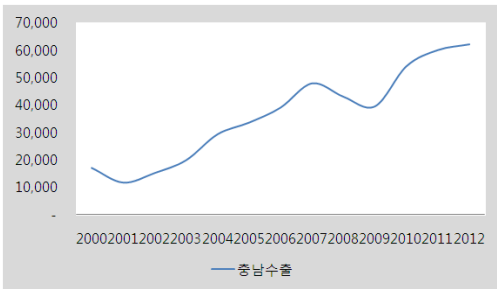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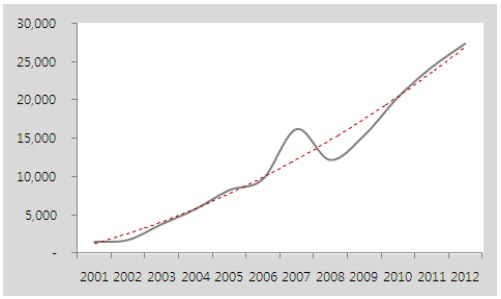
〈표 44〉 충남의 국가별 수출 추이

(단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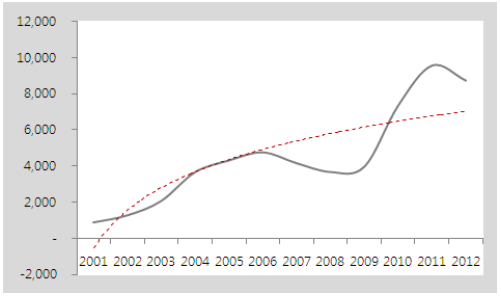
충남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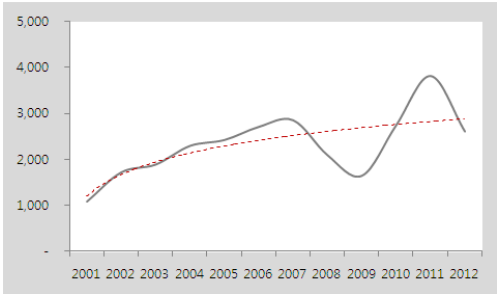
충남의 중국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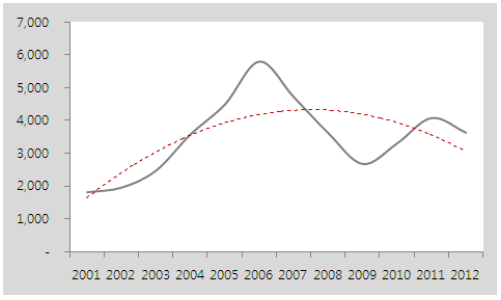
충남의 홍콩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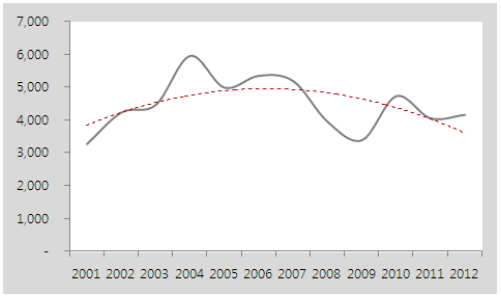
충남의 대만수출 추이



충남의 일본수출 추이



충남의 미국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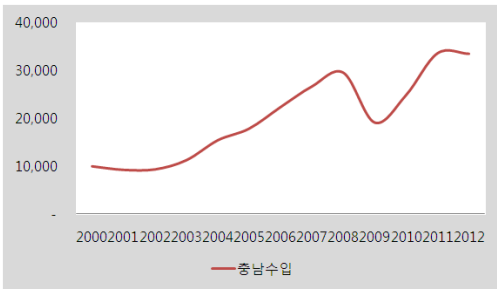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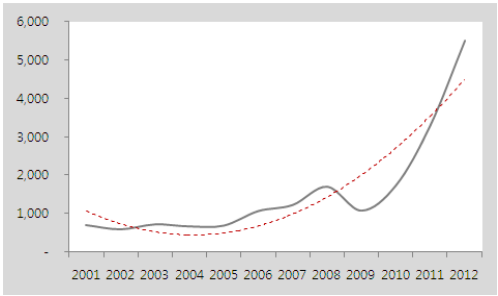
〈표 45〉 충남의 국가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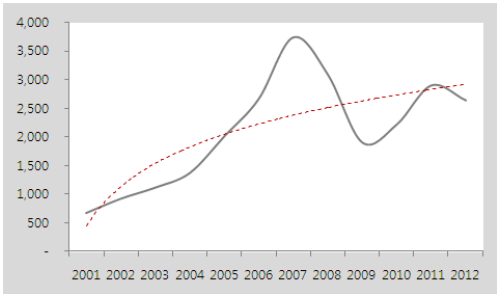
충남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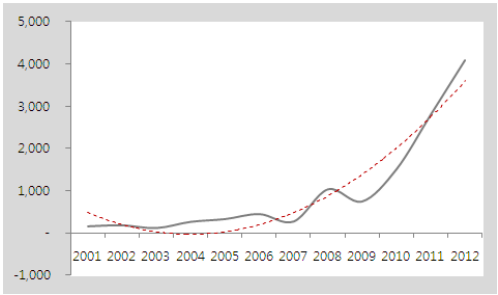
충남의 쿠웨이트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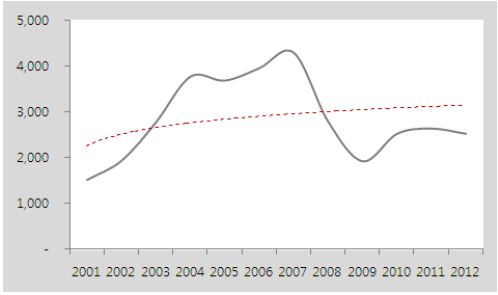
충남의 중국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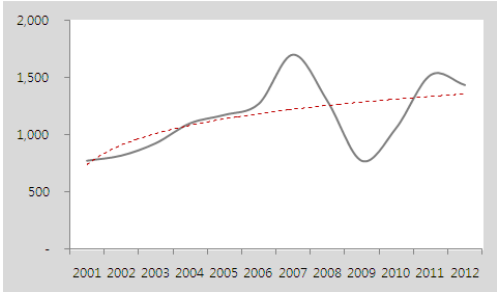
충남의 카타르수입 추이



충남의 일본수입 추이



충남의 미국수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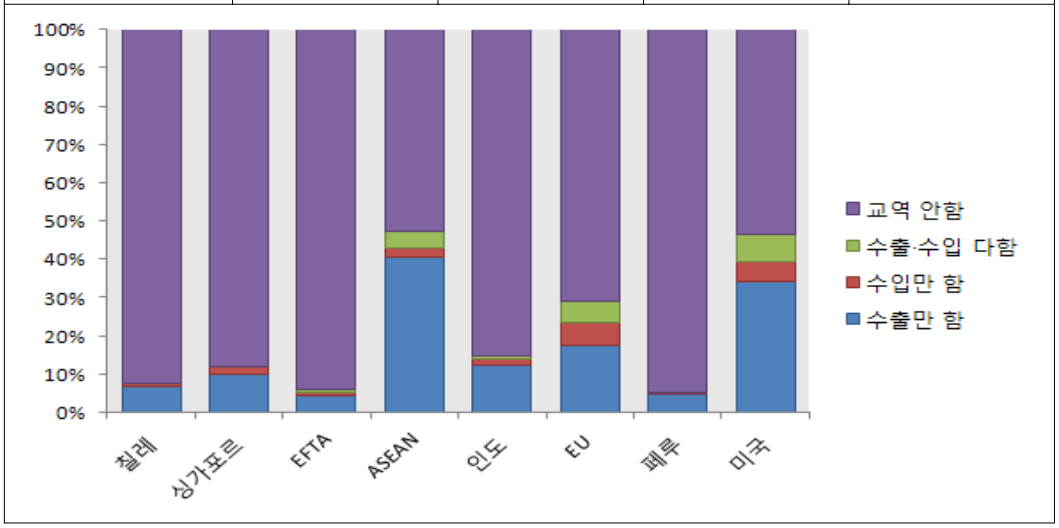
3. 기 발효 FTA가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에 미친 영향

1)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현황

〈표 46〉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현황

(단위: %)

국가	수출만 함	수입만 함	수출·수입 다함	교역 안함
칠레	6.7	0.7	0.0	92.7
싱가포르	9.7	2.0	0.3	88.0
EFTA[26]	4.3	1.0	0.7	94.0
ASEAN[27]	40.3	2.7	4.3	52.7
인도	12.3	1.7	0.7	85.3
EU	17.3	6.0	5.7	71.0
페루	4.7	0.3	0.0	95.0
미국	34.0	5.3	7.0	53.7



26)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는 1960년 1월 4일 창설된 기구로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규모는 작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협력체

27)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최근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해 모두 10개국으로 구성

수출의 경우, ASEAN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40.3%로 가장 많았고, 미국(34.0%), EU(17.3%), 싱가포르(9.7%) 순이었으며, 수입의 경우 EU로부터 수입하는 기업이 6.0%로 가장 많았다.

FTA 체결국 중 ASEAN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EU와의 교역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페루, EFTA의 경우 교역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ASEAN→미국→EU→인도→싱가포르→칠레→페루→EFTA 순으로 교역하는 중소수출입기업들이 많았는데, 특히 ASEAN, 미국, EU와 교역하는 기업들이 많아 이들 FTA국가에 대한 FTA활용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기 발효된 FTA 영향

(1)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영향

가. 피해 및 혜택 여부

기 발효된 FTA 국가와 교역이 있는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FTA에서 이득이 발생하였으나, ASEAN과 미국과의 FTA로 인한 피해기업도 소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FTA 국가인 칠레와 교역하는 중소수출입기업의 54.6%가 한·칠레 FTA로 이득을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며, 9.1%는 매우 이득을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주요 협정국가인 미국과 교역하는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38.2%가 한·미 FTA로 이득을 보았으며, EU와 교역하는 50.6%의 중소수출입기업이 한·EU FTA로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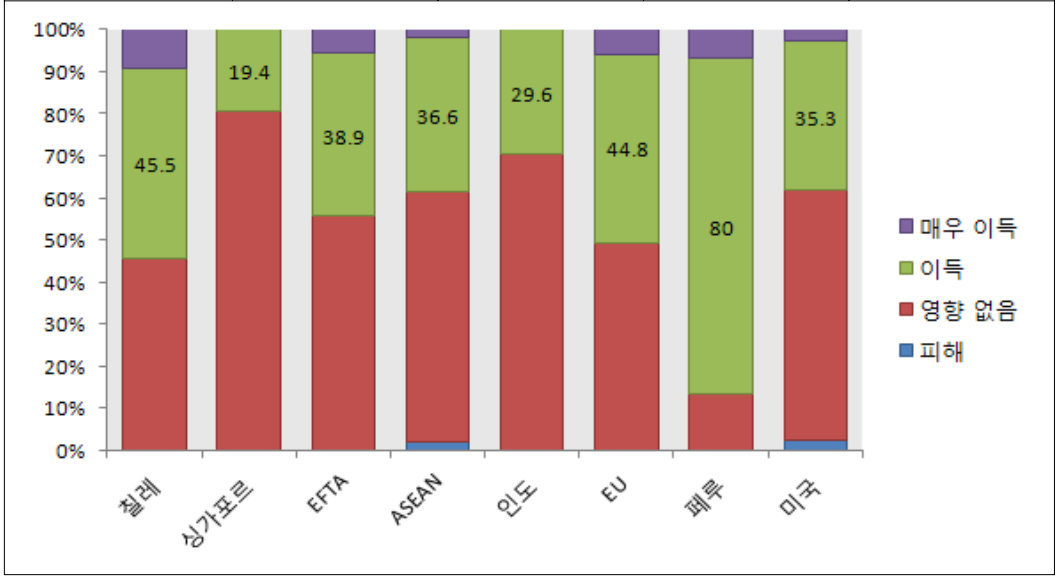
충남의 경우 높은 이득이 발생한 FTA는 페루, 칠레, EU, EFTA, ASEAN 순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이들 국가와 교역하는 36%의 중소수출기업이 FTA를 통해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득을 본 기업의 비율은 페루→칠레→EU→EFTA→ASEAN→미국→인도→싱가포르 순이었다. 충남은 주요협정 국가인 ASEAN, 미국과 교역하는 기업이 많은데(1위와 2위) 비해 이득을 본 기업수는 상대적으로 적어(5위와 6위)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47〉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국별 피해 및 혜택 여부

(단위: %)

국가	피해	영향 없음	이득	매우 이득
칠레	0.0	45.5	45.5	9.1
싱가포르	0.0	80.6	19.4	0.0
EFTA	0.0	55.6	38.9	5.6
ASEAN	2.1	59.2	36.6	2.1
인도	0.0	70.5	29.6	0.0
EU	0.0	49.4	44.8	5.8
페루	0.0	13.3	80.0	6.7
미국	2.2	59.7	35.3	2.9
전체	2.0	62.0	35.0	1.0



이를 제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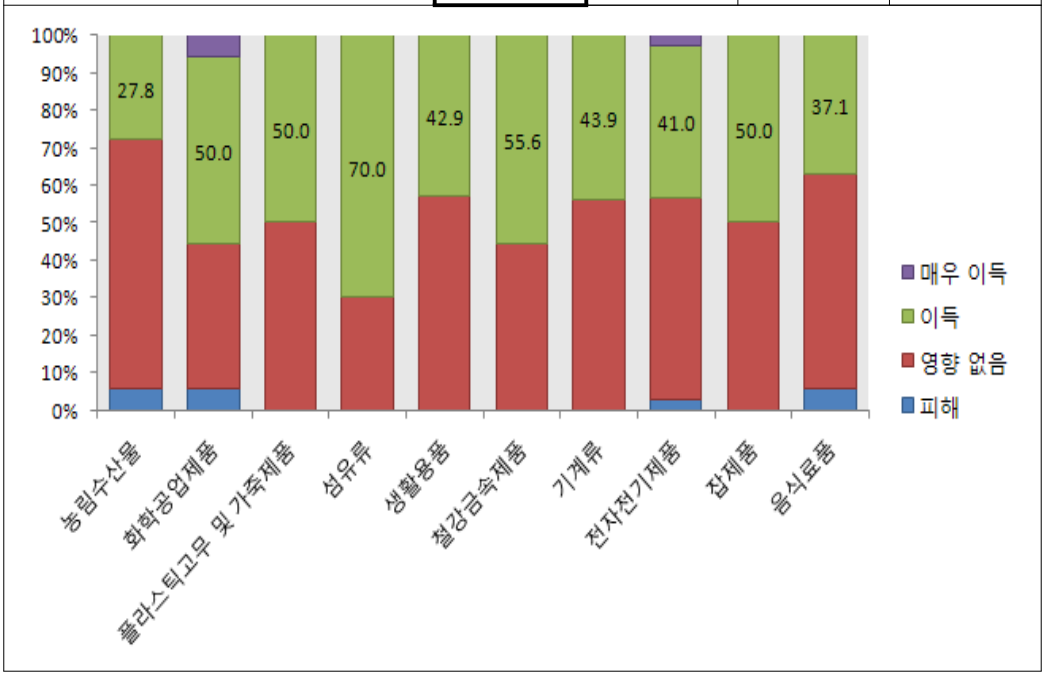
FTA 국가와 교역이 있는 기업을 제품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음식료품 수출업체에서 적은 수지만 피해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제품영역에서 FTA로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피해와 이득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 발효된 FTA로 피해를 본 기업은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음식료품 제조업 등이며, 특히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제조업은 성격이 유사하며, 충남의 농업과 관련이 깊어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제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표 48〉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제품별 피해 및 혜택 여부

(단위: %)

제품	피해	영향 없음	이득	매우 이득
농림수산물	5.56	66.67	27.78	0.0
화학공업제품	5.56	38.89	50.0	5.5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0.0	50.0	50.0	0.0
섬유류	0.0	30.0	70.0	0.0
생활용품	0.0	57.14	42.86	0.0
철강금속제품	0.0	44.44	55.56	0.0
기계류	0.0	56.1	43.9	0.0
전자전기제품	2.56	53.85	41.03	2.56
잡제품	0.0	50.0	50.0	0.0
음식료품	5.71	57.14	37.14	0.0



나. 매출액 증가여부

〈표 49〉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국별 매출액 증가여부

(단위: %)

국가	평균값
칠레	7.9
싱가포르	4.1
EFTA	4.3
ASEAN	7.4
인도	4.3
EU	6.9
페루	6.7
미국	7.4
전체	13.5

이득을 본 기업의 매출액 증가여부를 살펴보면 한·칠레 FTA에서 매출액 증가폭이 전체 매출액 대비 7.9%로 가장 컸으며, 미국·ASEAN(7.4%), EU(6.9%), 페루(6.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이득의 증가폭은 칠레→미국·ASEAN→EU→페루→EFTA·인도→싱가포르 순이었다.

충남은 ASEAN, 미국, 인도, 싱가포르 시장에서 더 많은 충남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양질의 바이어를 발굴하여 거래선을 확충하고, 이득이 적은 페루, EFTA, 인도, 싱가포르의 경우는 FTA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50〉 기 발효된 FTA 영향 요약

구분	1	2	3	4	5	6	7	8
교역 기업수	ASEAN	미국	EU	인도	싱가포르	칠레	페루	EFTA
이득 기업수	페루	칠레	EU	EFTA	ASEAN	미국	인도	싱가포르
이득 증가폭	칠레	미국·ASEAN		EU	페루	EFTA·인도		싱가포르
피해 산업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음식료품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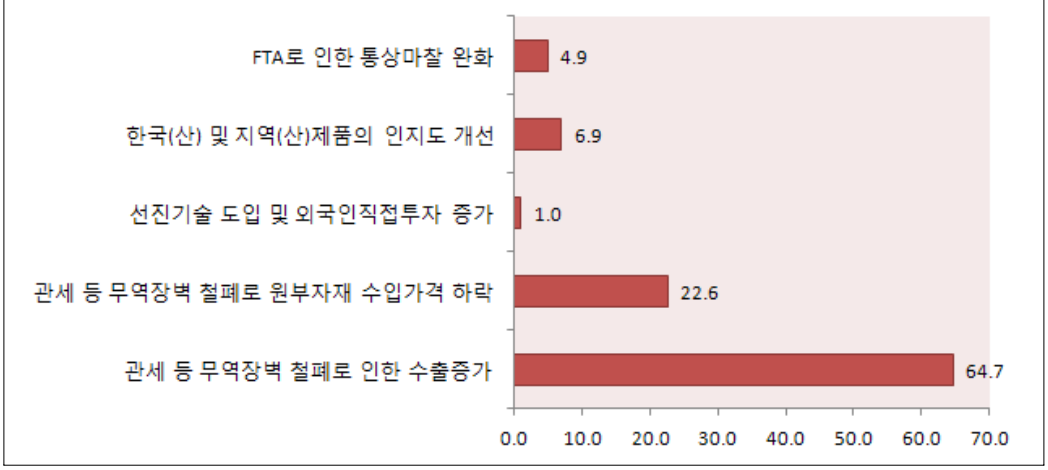
(2) 피해 및 혜택의 이유

가. 이득을 본 이유

〈표 51〉 기 발효된 FTA로 이득을 본 이유

(단위: %)

구분	백분율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수출증가	64.7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로 원부자재 수입가격 하락	22.6
선진기술 도입 및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1.0
한국(산) 및 지역(산)제품의 인지도 개선	6.9
FTA로 인한 통상마찰 완화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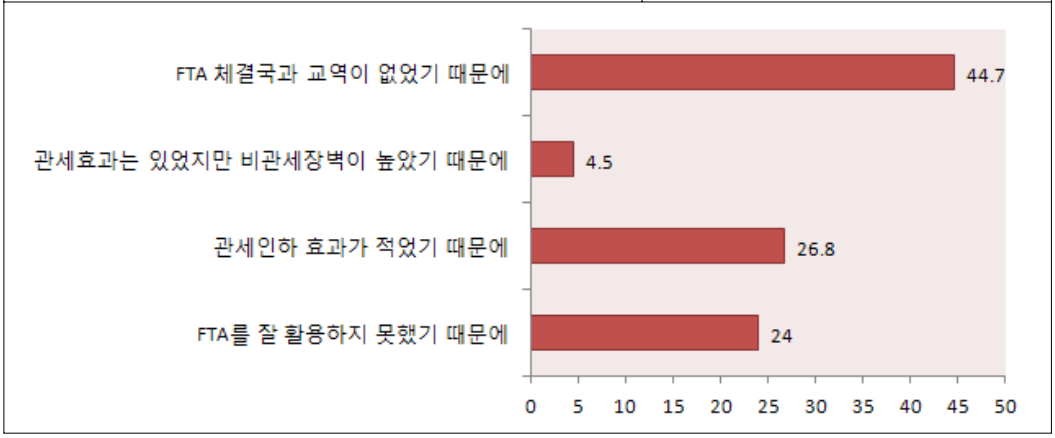
FTA로 이득을 본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수출증가'가 64.7%로 가장 높았으며,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로 원부자재 수입가격 하락'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2.6%로 나타났다. 이처럼 FTA로 인한 이득은 주로 관세와 무역장벽철폐에 따른 수출증가라고 할 수 있다.

나. 영향이 없었던 이유

〈표 52〉 기 발효된 FTA의 영향이 없었던 이유

(단위: %)

구분	백분율
FTA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24.0
관세인하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26.8
관세효과는 있었지만 비관세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4.5
FTA 체결국과 교역이 없었기 때문에	44.7



FTA로 영향이 없었던 이유로는 'FTA 체결국과 교역이 없었기 때문에'가 44.7%로 가장 높았으며, '관세인하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8%, 'FTA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24.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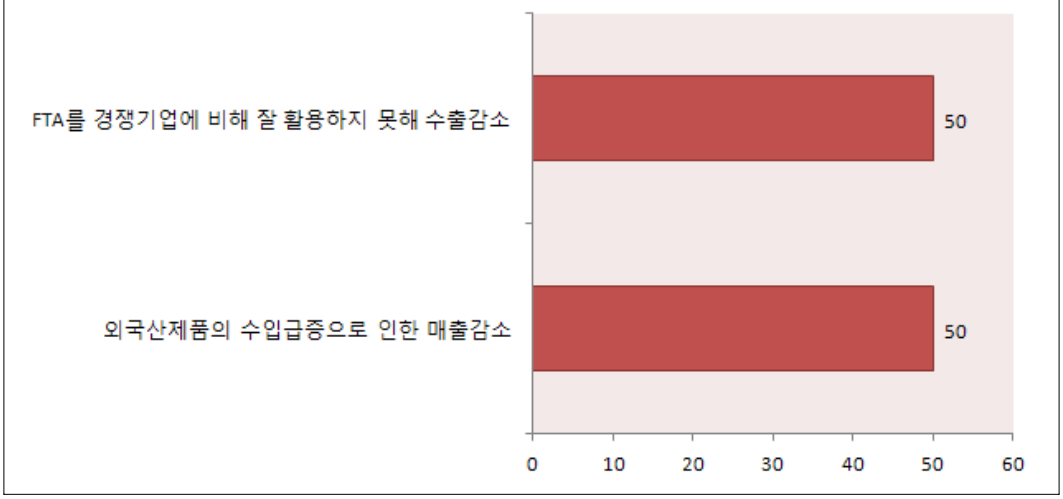
FTA 활용여부는 정책적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FTA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피해를 본 이유

〈표 53〉 기 발효된 FTA로 피해를 본 이유

(단위: %)

구분	백분율
외국산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매출감소	50.0
FTA를 경쟁기업에 비해 잘 활용하지 못해 수출감소	50.0



FTA로 피해를 본 이유로는 '외국산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50.0%, 'FTA를 경쟁기업에 비해 잘 활용하지 못해 수출감소'가 50.5%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경우 값싼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FTA를 경쟁기업에 비해 잘 활용하지 못해 수출이 감소했다는 기업도 50%에 달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요약

▶ 충남은 ASEAN→미국→EU→인도→싱가포르→칠레→페루→EFTA 순으로 교역하는 중소수출입기업들이 많음

▶ 특히 ASEAN, 미국, EU와 교역하는 기업들이 많아 이들 FTA국가에 대한 FTA활용지원을 강화해야 함

▶ 이득을 본 기업의 비율은 페루→칠레→EU→EFTA→ASEAN→미국→인도→싱가포르 순

▶ 충남은 주요협정 국가인 ASEAN, 미국과 교역하는 기업이 많은데(1위와 2위) 비해 이득을 본 기업수는 상대적으로 적어(5위와 6위)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이 필요

▶ 기 발효된 FTA로 피해를 본 기업은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음식료품 제조업 등이며, 특히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제조업은 성격이 유사하며, 충남의 농업과 관련이 깊어 주의를 요함

▶ 따라서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제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득의 증가폭은 칠레→미국·ASEAN→EU→페루→EFTA·인도→싱가포르 순

구분	1	2	3	4	5	6	7	8
교역 기업수	ASEAN	미국	EU	인도	싱가포르	칠레	페루	EFTA
이득 기업수	페루	칠레	EU	EFTA	ASEAN	미국	인도	싱가포르
이득 증가폭	칠레	미국·ASEAN		EU	페루	EFTA·인도		싱가포르
피해 산업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음식료품 제조업							

▶ ASEAN, 미국, 인도, 싱가포르 시장에서 더 많은 충남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양질의 바이어를 발굴하여 거래선을 확충하고, 이득이 적은 페루, EFTA, 인도, 싱가포르의 경우는 FTA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 FTA로 인한 이득은 주로 관세와 무역장벽철폐에 따른 수출증가 임

▶ FTA 활용여부는 정책적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FTA 컨설팅이 이루어진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특히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경우 값싼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여겨짐

▶ 또한 FTA를 경쟁기업에 비해 잘 활용하지 못해 수출이 감소했다는 기업도 50%에 달해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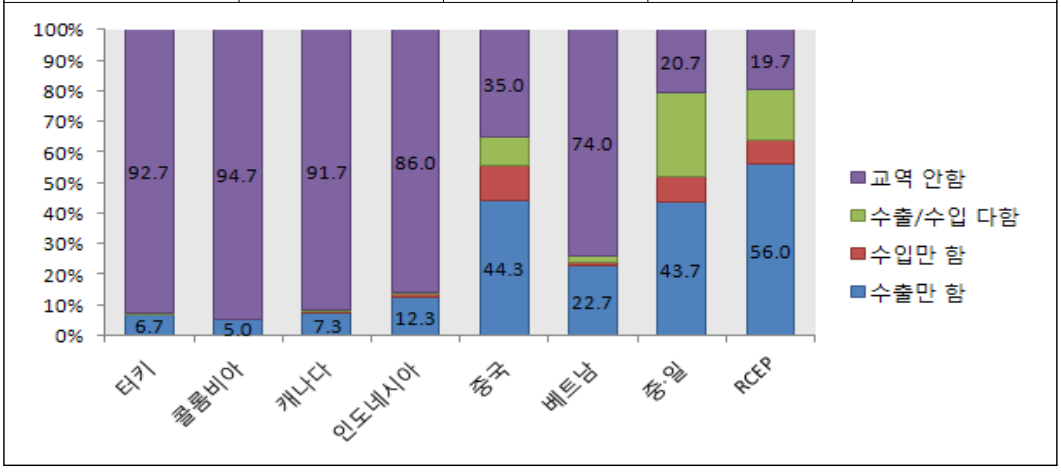
4. 추진 중인 FTA가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에 미친 영향

1)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 예정국과의 교역현황

〈표 54〉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 예정국과의 교역현황

(단위: %)

국가	수출만 함	수입만 함	수출/수입 다함	교역 안함
터키	6.7	0.0	0.7	92.7
콜롬비아	5.0	0.3	0.0	94.7
캐나다	7.3	0.7	0.3	91.7
인도네시아	12.3	1.0	0.7	86.0
중국	44.3	11.0	9.7	35.0
베트남	22.7	1.3	2.0	74.0
중·일	43.7	8.3	27.3	20.7
RCEP	56.0	8.0	16.3	19.7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경우 RCEP[28]와의 교역이 80.3%로 가장 많았고, 중·일(79.3%), 중국(65.0%), 베트남(26.0%) 순이었다.

FTA 체결 예정국 중 RCEP와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며, 중국, 일본, 베트남과의 교역수준도

28)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도네시아, 캐나다, 터키, 콜롬비아의 경우 교역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충남은 RCEP→중·일→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캐나다→터키→콜럼비아 순으로 교역하는 중소수출입기업들이 많았다. 따라서 충남은 교역기업이 많은 RCEP, 중국, 일본, 베트남 시장정보를 파악하여,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이 향후 FTA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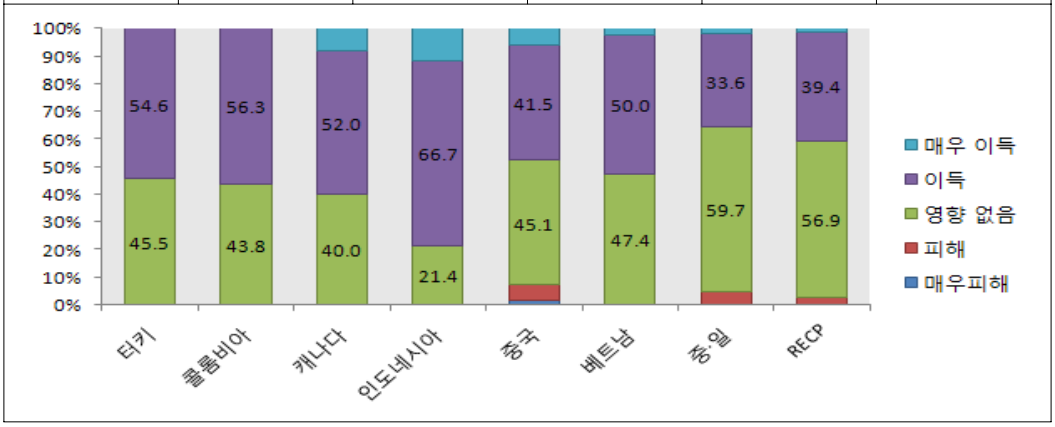
(1)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 영향

가. 피해 및 혜택 여부

〈표 55〉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 예정국별 피해 및 혜택 여부

(단위: %)

국가	매우피해	피해	영향 없음	이득	매우 이득
터키	0.0	0.0	45.5	54.6	0.0
콜롬비아	0.0	0.0	43.8	56.3	0.0
캐나다	0.0	0.0	40.0	52.0	8.0
인도네시아	0.0	0.0	21.4	66.7	11.9
중국	1.5	5.6	45.1	41.5	6.2
베트남	0.0	0.0	47.4	50.0	2.6
중·일	0.0	4.6	59.7	33.6	2.1
RECP	0.0	2.5	56.9	39.4	1.2



F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와 교역이 있는 충남 중소수출기업의 향후 FTA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FTA에서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한·중과 한·중·일과의 FTA에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존재하였다.

충남의 주요 교역국가인 중국과 교역하는 충남 중소수출기업 중 47.7%가 한·중 FTA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RECP FTA로 RECP와 교역하는 충남 중소수출기업 중 40.6%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비율은 인도네시아→캐나다→콜럼비아→터키→베트남→중국→RECP→중·일 순이었다.

충남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에 대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7.7%로 상당히 낮고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도 7.1%로,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의 FTA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충남은 한·중 FTA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고, 특히 농림어업 분야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중·일 FTA의 경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7%로 가장 낮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 매출액 증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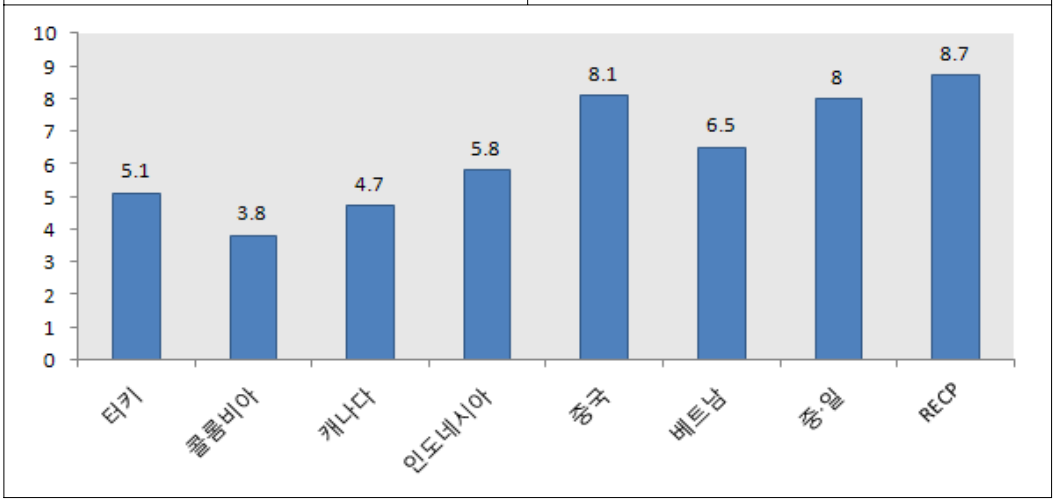
향후 FTA로 인한 매출액 증가여부를 살펴보면 한·RECP FTA에서 매출액 증가폭이 8.7% 정도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한·콜럼비아 FTA에서 매출액 증가폭이 3.8%로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득의 증가폭은 RECP→중국→중·일→베트남→인도네시아→터키→캐나다→콜럼비아 순으로 나타났다.

〈표 56〉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체결 예정국별 매출액 증가여부

(단위: %)

국가	평균값
터키	5.1
콜롬비아	3.8
캐나다	4.7
인도네시아	5.8
중국	8.1
베트남	6.5
중·일	8.0
RECP	8.7



(2)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 찬반여부

가. FTA 찬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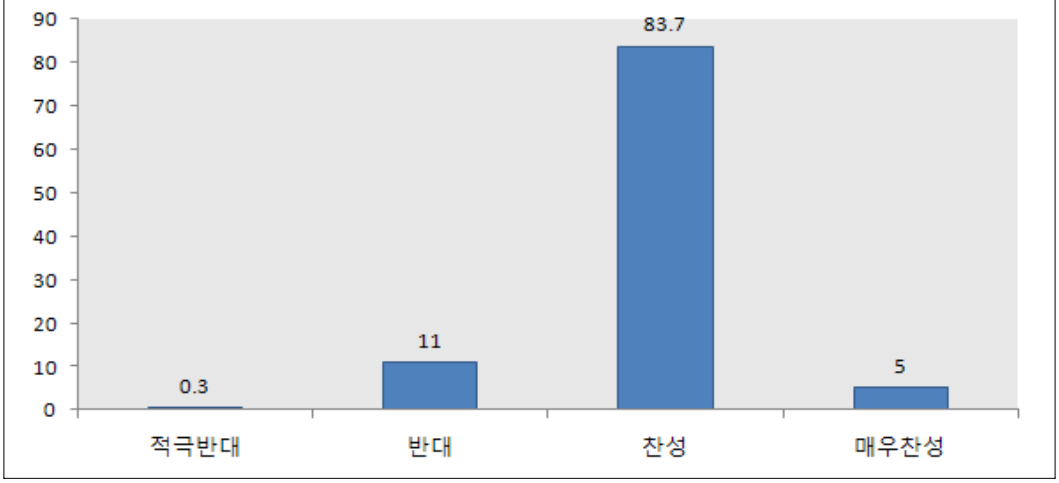
정부가 추진 중인 FTA에 대해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88.7%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3%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었다.

특히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5.0%는 매우찬성이라고 응답하여 향후 FTA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57〉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 찬반여부

(단위: %)

구분	빈도	백분율
적극반대	1	0.3
반대	33	11.0
찬성	251	83.7
매우찬성	15	5.0



이를 기업을 수출 제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제품별 FTA 찬반여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 향후 FTA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수출 제품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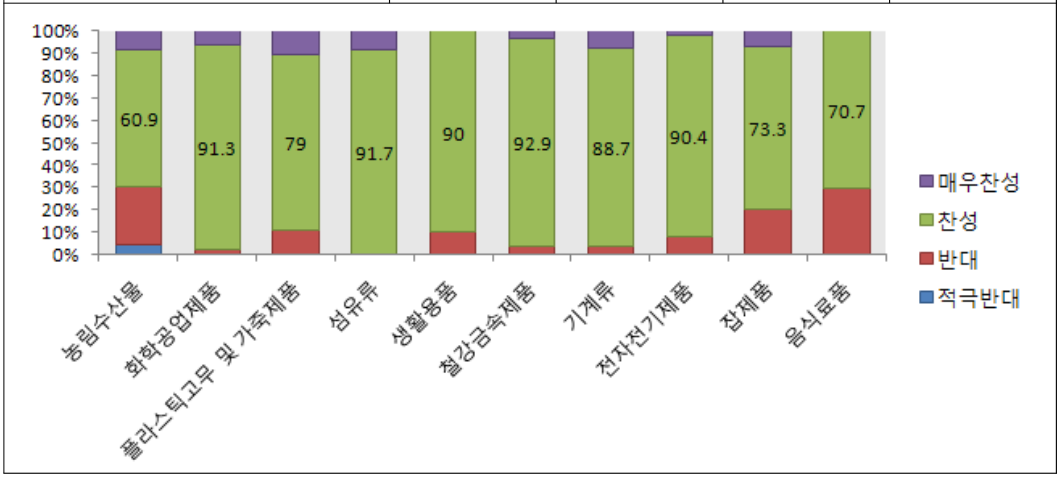
특히 농림수산물, 음식료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 추진 중인 FTA를 반대하는 비중이 각각 30.44%, 29.27%로 높게 나타났으며,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10.5%), 전자전기제품(7.7%)을 수출하는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고, 이들 기업의 경우 향후 FTA에 대해 반대하는 비중도 높아, 이들 제품군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농림수산물의 경우 적극반대도 4.4%에 달해 충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8〉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에 대한 제품별 찬반여부

(단위: %)

제품	적극반대	반대	찬성	매우찬성
농림수산물	4.4	26.1	60.9	8.7
화학공업제품	0.0	2.2	91.3	6.5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0.0	10.5	79.0	10.5
섬유류	0.0	0.0	91.7	8.3
생활용품	0.0	10.0	90.0	0.0
철강금속제품	0.0	3.6	92.9	3.6
기계류	0.0	3.8	88.7	7.6
전자전기제품	0.0	7.7	90.4	1.9
잡제품	0.0	20.0	73.3	6.7
음식료품	0.0	29.3	70.7	0.0



다. FTA 찬성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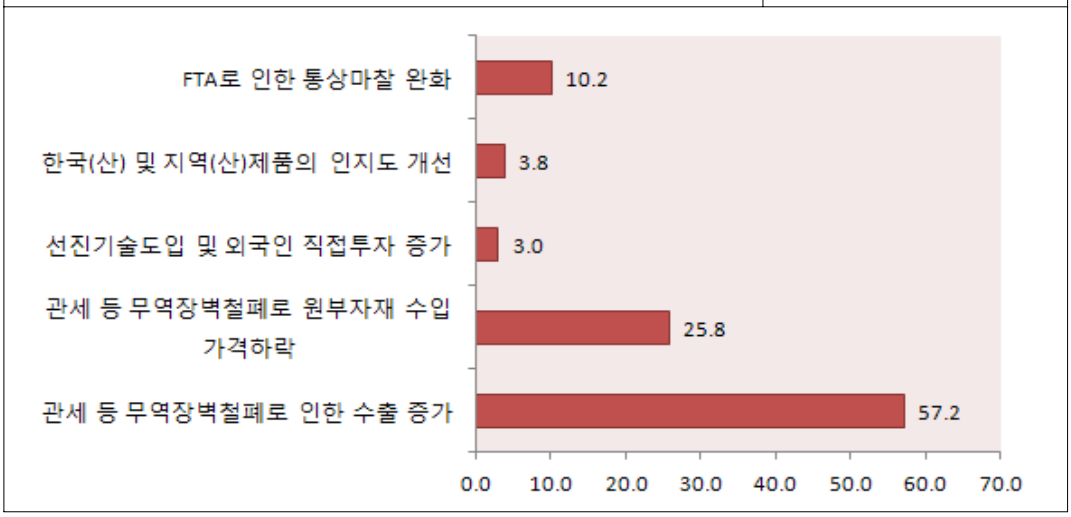
정부가 추진 중인 FTA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관세 등 무역장벽철폐로 인한 수출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관세 등 무역장벽철폐로 원부자재 수입가격하락'(25.8%), FTA로 인한 통상마찰 완화(10.2%) 순이었다.

이처럼 대부분 FTA에 대한 찬성이유는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표 59〉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에 대한 찬성이유

(단위: %)

구분	백분율
관세 등 무역장벽철폐로 인한 수출 증가	57.2
관세 등 무역장벽철폐로 원부자재 수입 가격하락	25.8
선진기술도입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3.0
한국(산) 및 지역(산)제품의 인지도 개선	3.8
FTA로 인한 통상마찰 완화	10.2



라. FTA 반대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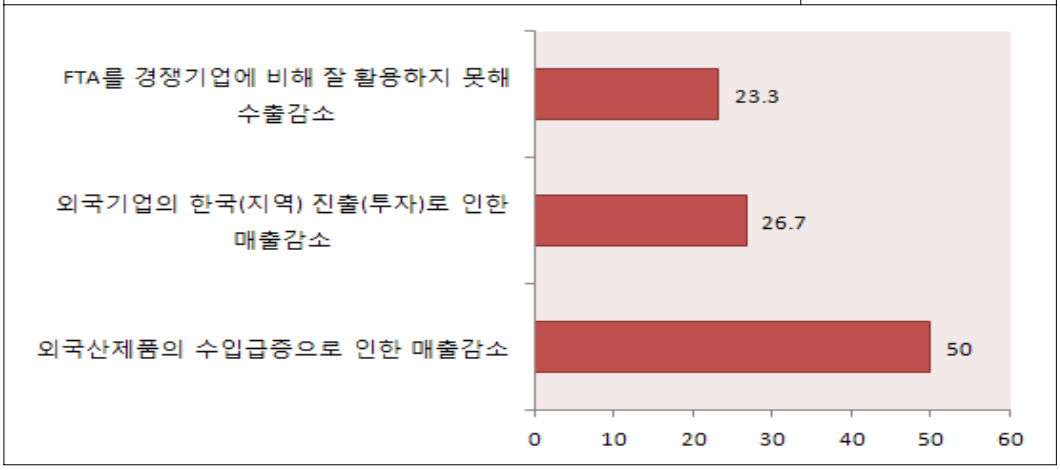
FTA 반대이유로는 '외국산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매출감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나, 'FTA를 경쟁기업에 비해 잘 활용하지 못해 수출감소'라고 응답한 비율도 23.3%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농림수산물, 음식료품의 경우는 수입방어에 초점을 두고 타 제품군은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FTA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60〉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에 대한 반대이유

(단위: %)

구분	백분율
외국산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매출감소	50.0
외국기업의 한국(지역) 진출(투자)로 인한 매출감소	26.7
FTA를 경쟁기업에 비해 잘 활용하지 못해 수출감소	23.3



(3)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대비책 마련 여부

가. 대비책 마련 여부

정부가 추진 중인 FTA에 대해 대비책을 이미 마련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3%에 불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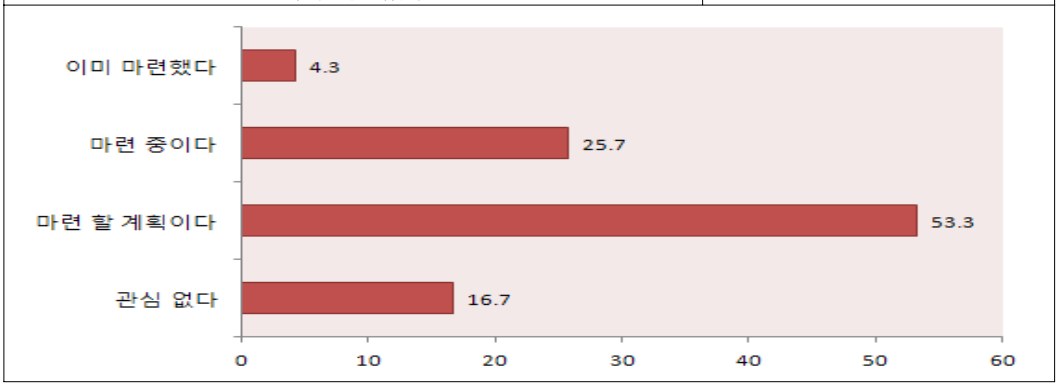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마련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7%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향후 추진 중인 FTA에 대한 기업차원에서의 대비책 마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속적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1〉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에 대한 대비책 마련 여부

(단위: %)

구분	백분율
관심 없다	16.7
마련 할 계획이다	53.3
마련 중이다	25.7
이미 마련했다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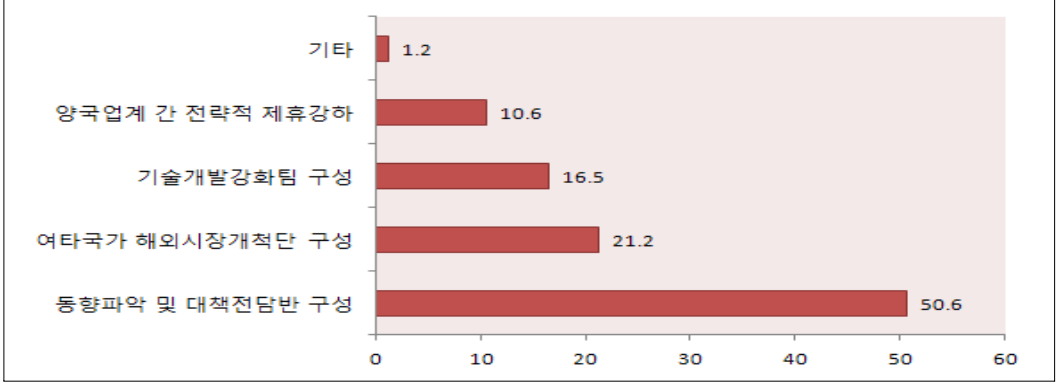


나. 마련 중인 대책

〈표 62〉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향후 FTA에 대한 대비책

(단위: %)

구분	백분율
동향파악 및 대책전담반 구성	50.6
여타국가 해외시장개척단 구성	21.2
기술개발강화팀 구성	16.5
양국업계 간 전략적 제휴강하	10.6
기타	1.2



이미 마련했거나 마련 중인 대비책으로는 '동향파악 및 대책전담반 구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여타국가 해외시장개척단 구성'(21.2%), 기술개발강화팀 구성(16.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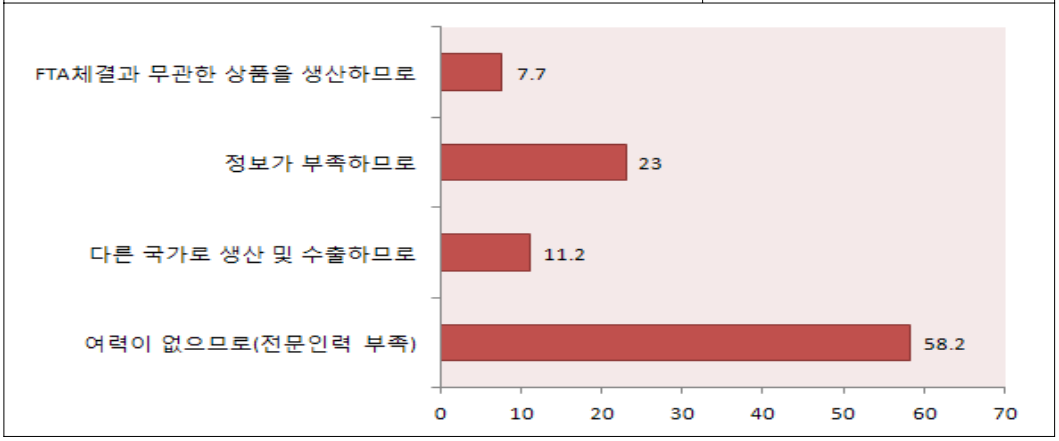
대비책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동향파악 정도의 수준에 불가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남도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

〈표 63〉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이 향후 FTA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

(단위: %)

구분	백분율
여력이 없으므로(전문인력 부족)	58.2
다른 국가로 생산 및 수출하므로	11.2
정보가 부족하므로	23.0
FTA체결과 무관한 상품을 생산하므로	7.7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여력이 없으므로(전문인력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2%로 매우 높았고, '정보가 부족하므로'라는 의견도 23.0%로 나타나, 충남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주로 수출전문인력 부족과 정보의 부재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 인력이 충남 중소수출기업에 적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수출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기업에게는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해당기업 담당인력의 대응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요약

▶ 충남은 RCEP→중·일→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캐나다→터키→콜럼비아 순으로 교역하는 중소수출입기업들이 많음

▶ 충남은 교역기업이 많은 RCEP, 중국, 일본, 베트남 시장정보를 파악하여,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이 향후 FTA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비율은 인도네시아→캐나다→콜럼비아→터키→베트남→중국→RECP→중·일 순

▶ 충남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에 대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7.7%로 상당히 낮고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도 7.1%로,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의 FTA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 충남은 한·중 FTA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고, 특히 농림어업 분야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한·중·일 FTA의 경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7%로 가장 낮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이득의 증가폭은 RECP→중국→중·일→베트남→인도네시아→터키→캐나다→콜럼비아 순

▶ 충남은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고, 이들 기업의 경우 향후 FTA에 대해 반대하는 비중도 높아, 이들 제품군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특히 농림수산물의 경우 적극반대도 4.4%에 달해 충남도 차원에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

▶ 대부분 FTA에 대한 찬성이유는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음

▶ 농림수산물, 음식료품의 경우는 수입방어에 초점을 두고 타 제품군은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FTA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짐

구분	1	2	3	4	5	6	7	8
교역 기업수	RCEP	중·일	중국	베트남	인도 네시아	캐나다	터키	콜럼 비아
이득 기업수	인도 네시아	캐나다	콜럼 비아	터키	베트남	중국	RECP	중·일
이득 증가폭	RECP	중국	중·일	베트남	인도 네시아	터키	캐나다	콜럼 비아
반대 산업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제조업							

▶ RCEP, 중국, 일본, 베트남은 충남과 교역이 많은 시장이나 FTA로 인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많지 않음

▶ RCEP, 중국, 일본, 베트남과 FTA가 체결되면, 이들 국가들에 대한 FTA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

▶ 아직까지 향후 추진 중인 FTA에 대한 기업차원에서의 대비책 마련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속적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대비책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동향파악 정도의 수준에 불가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남도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

▶ 지속적인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들 인력이 충남 중소수출기업에 적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수출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기업에게는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해당기업 담당인력의 대응수준을 높여가야 함

5. 충남 중소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실태분석 및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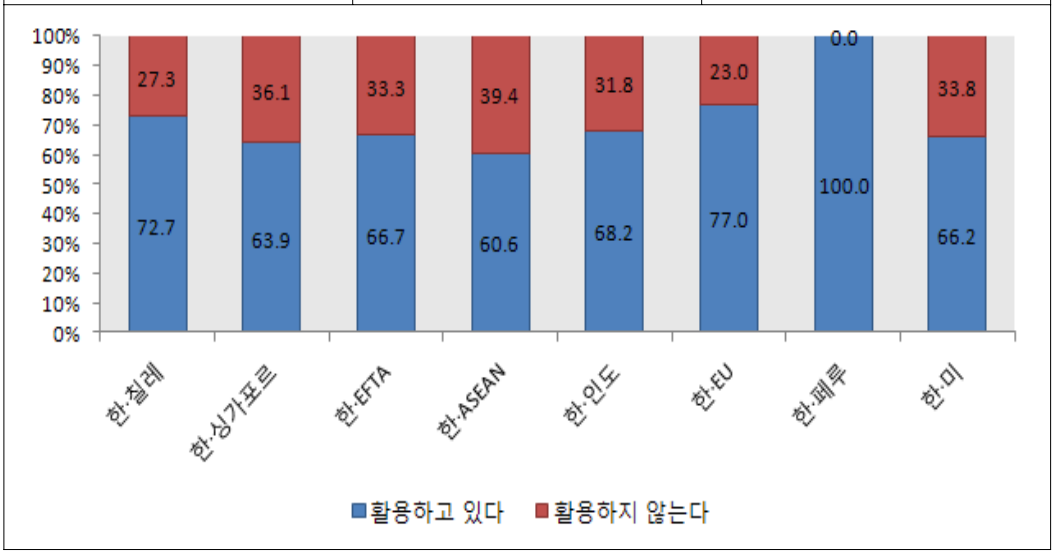
1) FTA 활용개요

(1) FTA 활용실태

〈표 64〉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실태

(단위: %)

구분	활용하고 있다	활용하지 않는다
한·칠레	72.7	27.3
한·싱가포르	63.9	36.1
한·EFTA	66.7	33.3
한·ASEAN	60.6	39.4
한·인도	68.2	31.8
한·EU	77.0	23.0
한·페루	100.0	0
한·미	66.2	33.8



FTA 국가와 교역이 있는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의 경우 칠레와 교역이 있는 기업의 72.7%가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FTA국가인 미국과 EU의 경우 각각 66.2%와 77.0%가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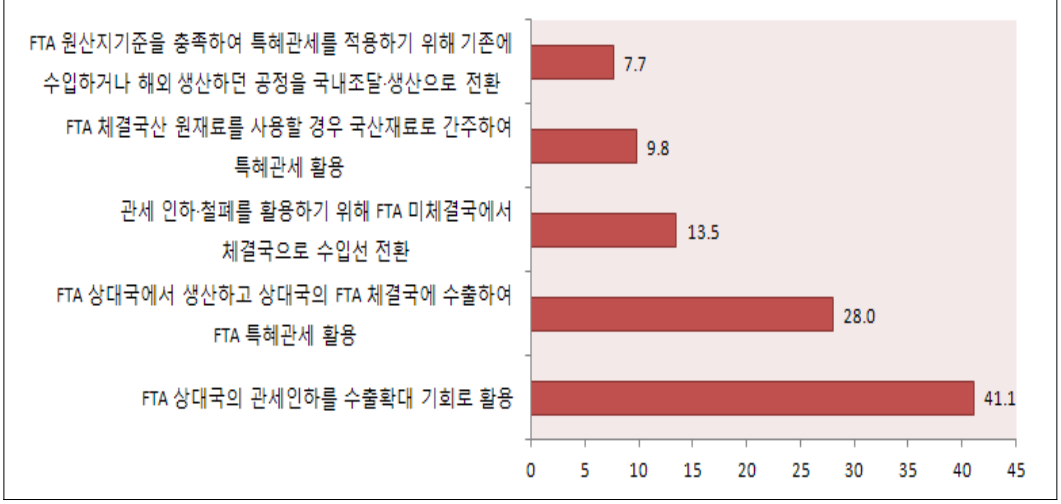
FTA 활용기업의 비율은 페루→EU→칠레→인도→EFTA→미국→싱가포르→ASEAN 순으로 한·미 FTA와 한·ASEAN FTA의 활용도를 더 높여가야 한다.

특히 ASEAN은 교역하는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아 이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

〈표 65〉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활용형태

(단위: %)

구분	백분율
FTA 상대국의 관세인하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	41.1
FTA 상대국에서 생산하고 상대국의 FTA 체결국에 수출하여 FTA 특혜관세 활용	28.0
관세 인하·철폐를 활용하기 위해 FTA 미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 수입선 전환	13.5
FTA 체결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국산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 활용	9.8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수입하거나 해외 생산하던 공정을 국내조달·생산으로 전환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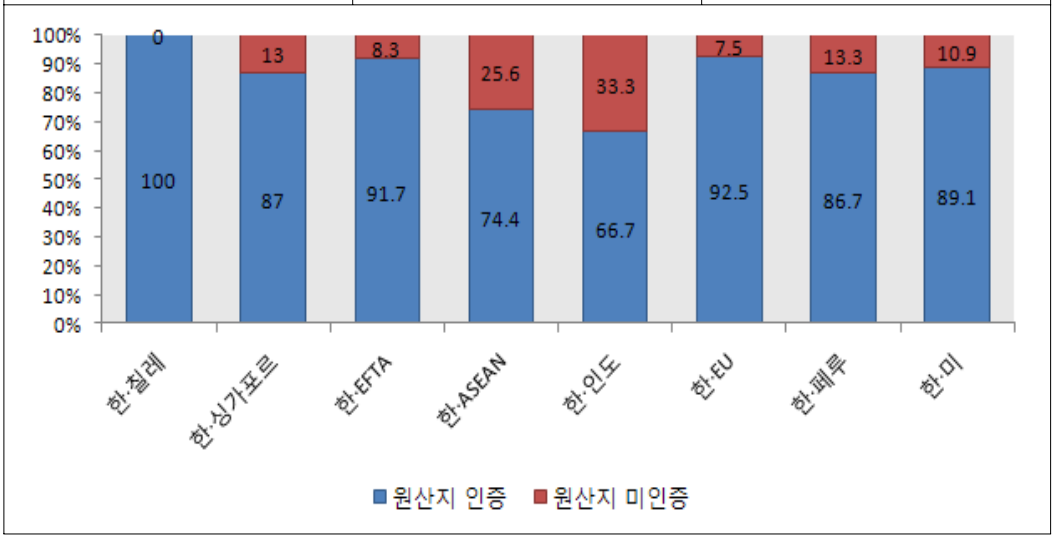
FTA 활용형태는 'FTA 상대국의 관세인하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1%로 가장 높았으며, 'FTA 상대국에서 생산하고 상대국의 FTA 체결국에 수출하여 FTA 특혜관세 활용'(28.0%)이 다음 순이었다.

충남 중소수출입 기업들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효과를 수출의 확대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원산지 인증 증명서 발급여부

(단위: %)

구분	원산지 인증	원산지 미인증
한·칠레	100.0	0.0
한·싱가포르	87.0	13.0
한·EFTA	91.7	8.3
한·ASEAN	74.4	25.6
한·인도	66.7	33.3
한·EU	92.5	7.5
한·페루	86.7	13.3
한·미	89.1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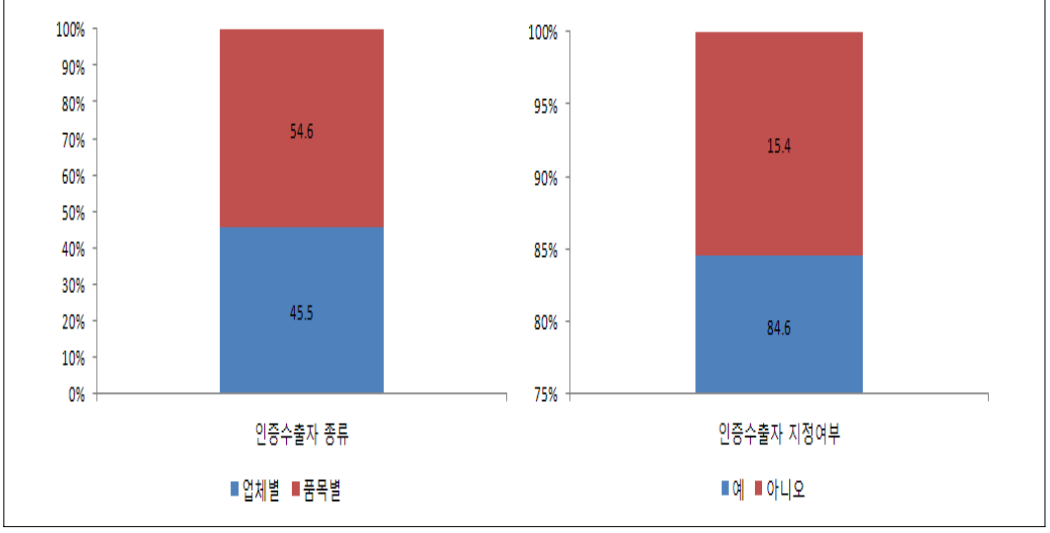
FTA 활용기업의 원산지 인증 증명서 발급여부를 살펴보면, 매우 높은 인증 증명서 발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인도와 ASEAN의 경우 인증비율이 각각 66.7%, 74.4%로 다소 낮았다.

주요 FTA 국가인 EU[29]와 미국의 경우 각각 92.5%, 89.1%의 높은 인증 증명서 발급률을 보이고 있다. 높은 원산지 인증 증명서 발급률은 그동안 FTA활용지원센터의 컨설팅과 충남 중소 수출기업의 자구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도와 ASEAN의 경우 원산지 인증 증명서 발급률이 다소 낮아 주의를 요한다.

〈표 67〉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여부

(단위: %)

인증수출자 지정여부	백분율	인증수출자 종류	백분율
예	84.6	업체별	45.5
아니오	15.4	품목별	54.6



EU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여부의 경우 한·EU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84.6%가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45.5%가 업체별 인증을, 54.6%가 품목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며,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2) FTA 관세인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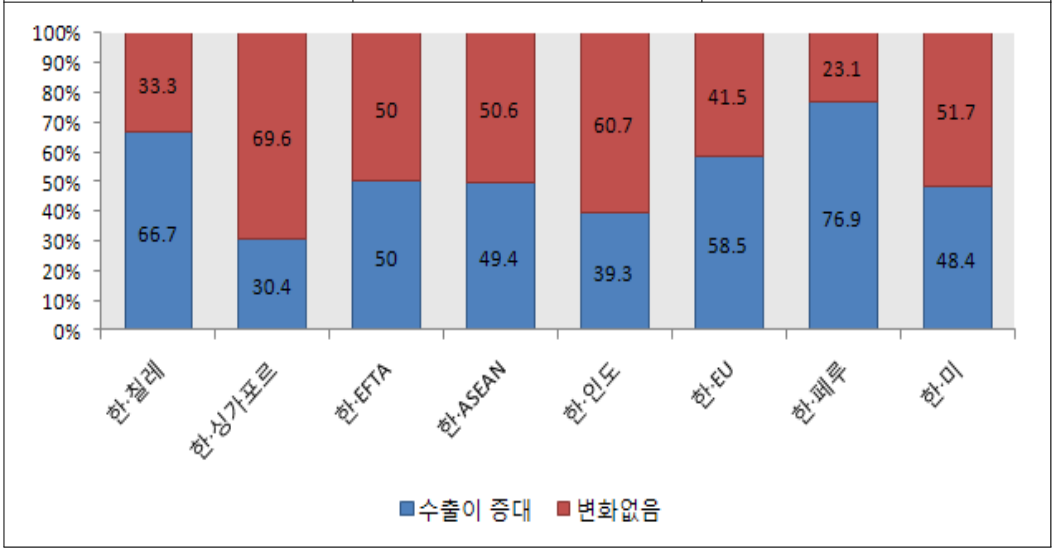
FTA 관세인하 효과로 인한 수출 증대여부를 살펴보면, 한·칠레 FTA의 경우 66.7%의 기업에서 수출이 증대하였으며, 주요 국가인 한·미 FTA, 한EU FTA의 경우 각각 48.4%, 58.5%의 기업에서 수출이 증대하였다.

FTA로 인한 수출 증대 기업의 비율은 페루→칠레→EU→EFTA→ASEAN→미국→인도→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

〈표 68〉 FTA로 인한 수출증대여부

(단위: %)

구분	수출이 증대	변화없음
한·칠레	66.7	33.3
한·싱가포르	30.4	69.6
한·EFTA	50.0	50.0
한·ASEAN	49.4	50.6
한·인도	39.3	60.7
한·EU	58.5	41.5
한·페루	76.9	23.1
한·미	48.4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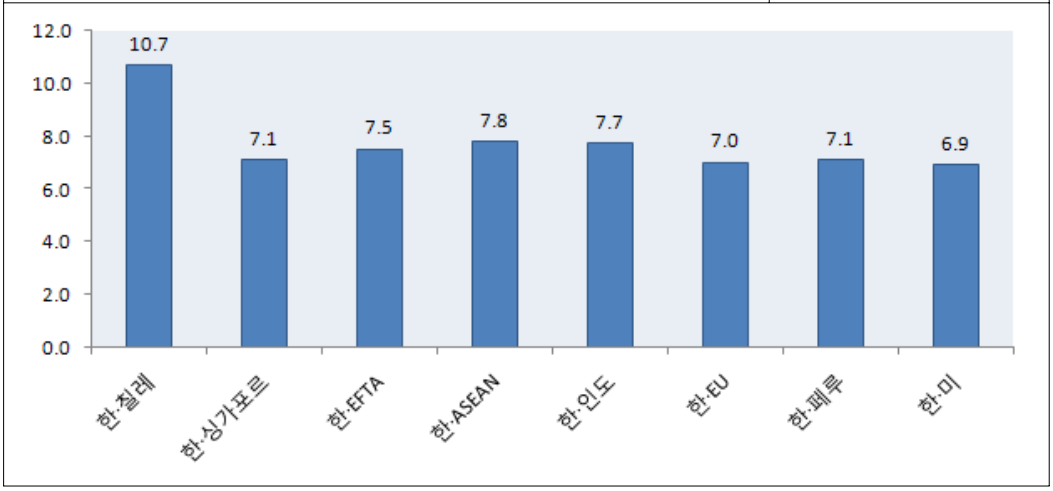
수출증대효과는 한·칠레 FTA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10.7% 증가), 한·미 FTA에서 가장 작았다(6.9% 증가). FTA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는 칠레→ASEAN→인도→EFTA→싱가포르·페루→EU→미국→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협정국가인 미국과 EU의 수출증대효과는 각각 6.9%, 7.0% 증가로 다른 FTA에 비해 효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FTA로 인한 수출증대효과

(단위: %)

구분	평균값
한·칠레	10.7
한·싱가포르	7.1
한·EFTA	7.5
한·ASEAN	7.8
한·인도	7.7
한·EU	7.0
한·페루	7.1
한·미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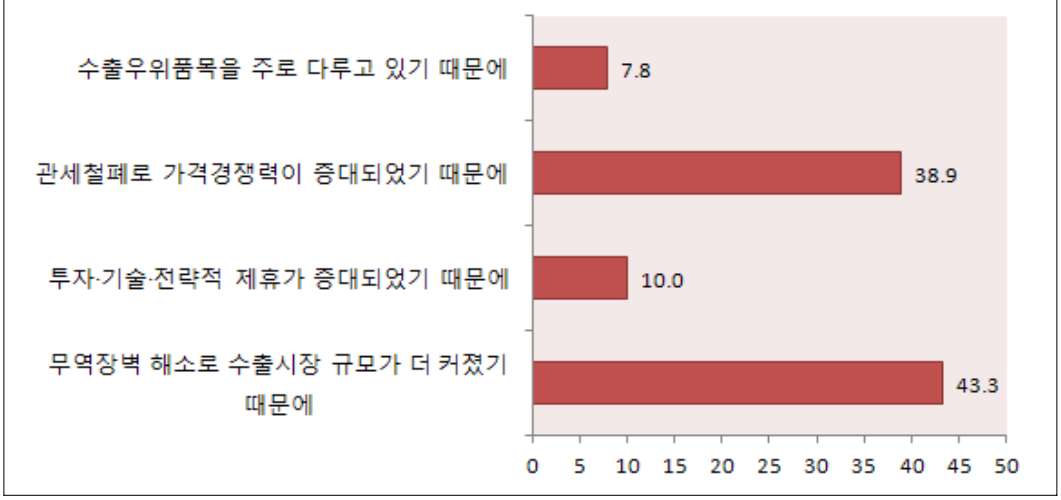
수출이 증가한 이유로는 '무역장벽 해소로 수출시장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관세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에'라는 응답도 38.9%로 높게 나타났다.

FTA는 가격경쟁력의 증대뿐만 아니라, 협정 자체만으로도 수출시장규모를 키우는 효과가 있다. FTA를 통해 관세효과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관습이나, 유통정보 등 비관세장벽 활용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70〉 FTA로 수출이 증가한 이유

(단위: %)

구분	백분율
무역장벽 해소로 수출시장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43.3
투자·기술·전략적 제휴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10.0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38.9
수출우위품목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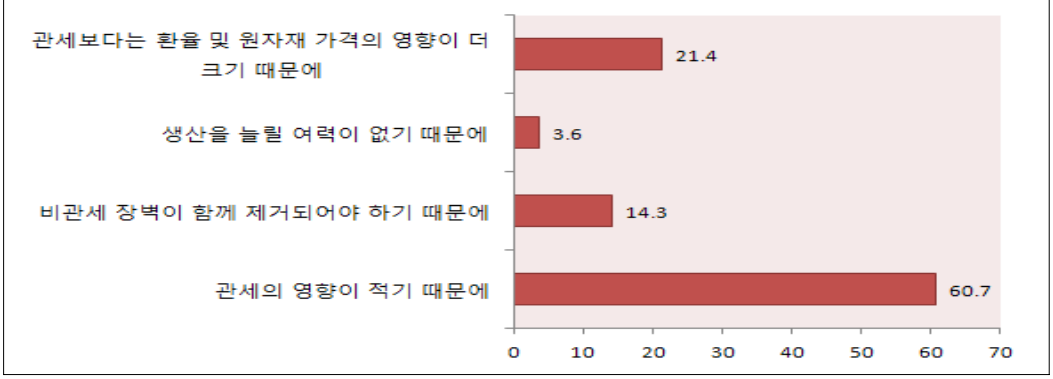
수출에 변화가 없었던 이유로는 '관세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관세 장벽이 함께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도 14.3%로 나타나, 비관세 장벽완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출의 확대는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환경, 비관세장벽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장정보의 획득 등 관련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1〉 FTA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변화가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백분율
관세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60.7
비관세 장벽이 함께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14.3
생산을 늘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3.6
관세보다는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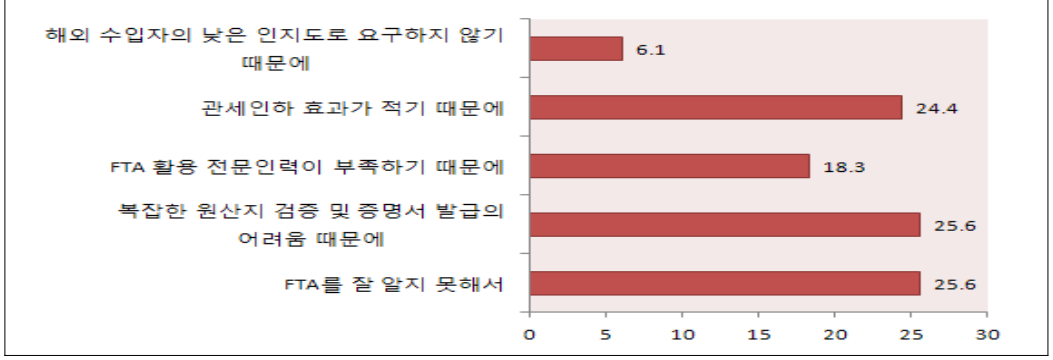


(3) FTA 미활용실태

〈표 72〉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구분	백분율
FTA를 잘 알지 못해서	25.6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	25.6
FTA 활용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8.3
관세인하 효과가 적기 때문에	24.4
해외 수입자의 낮은 인지도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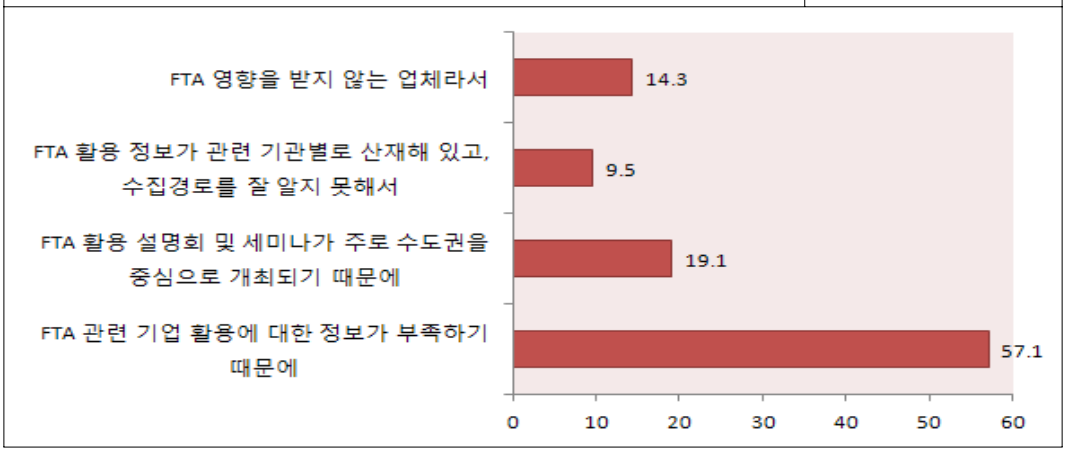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FTA를 잘 알지 못해서',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6%로 가장 높았으며, '관세인하 효과가 적기 때문에'도 24.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한 FTA 관련 정보의 제공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73〉 'FTA를 잘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이유

(단위: %)

구분	백분율
FTA 관련 기업 활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57.1
FTA 활용 설명회 및 세미나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19.1
FTA 활용 정보가 관련 기관별로 산재해 있고, 수집경로를 잘 알지 못해서	9.5
FTA 영향을 받지 않는 업체라서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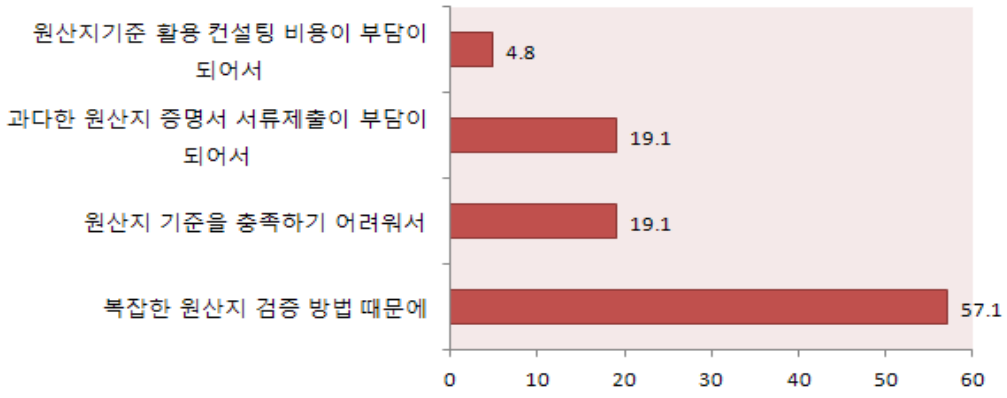
'FTA를 잘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의 57.1%가 'FTA 관련 기업 활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FTA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라고 응답한 기업의 57.1%가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방법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 원산지 관련 컨설팅을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을 위한 교육기회를 늘려나가야 한다.

〈표 74〉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라고 응답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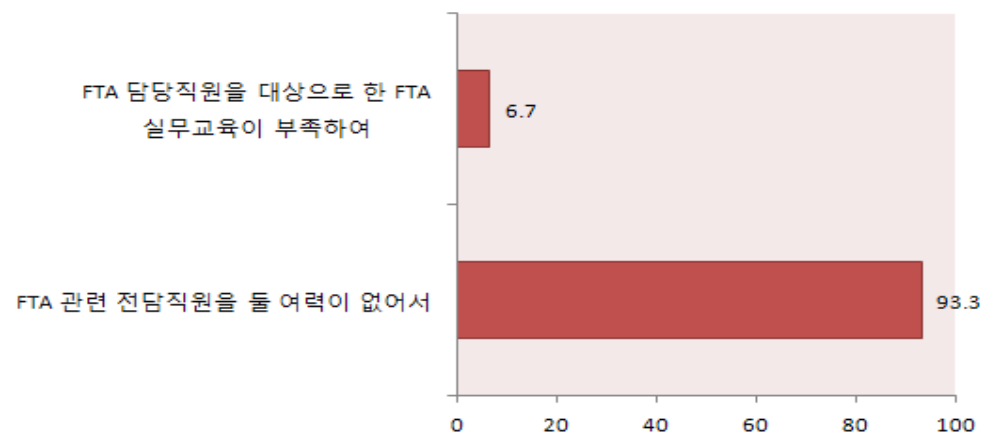
구분	백분율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방법 때문에	57.1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19.1
과다한 원산지 증명서 서류제출이 부담이 되어서	19.1
원산지기준 활용 컨설팅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4.8



〈표 75〉 'FTA 활용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이유

(단위: %)

구분	백분율
FTA 관련 전담직원을 둘 여력이 없어서	93.3
FTA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한 FTA 실무교육이 부족하여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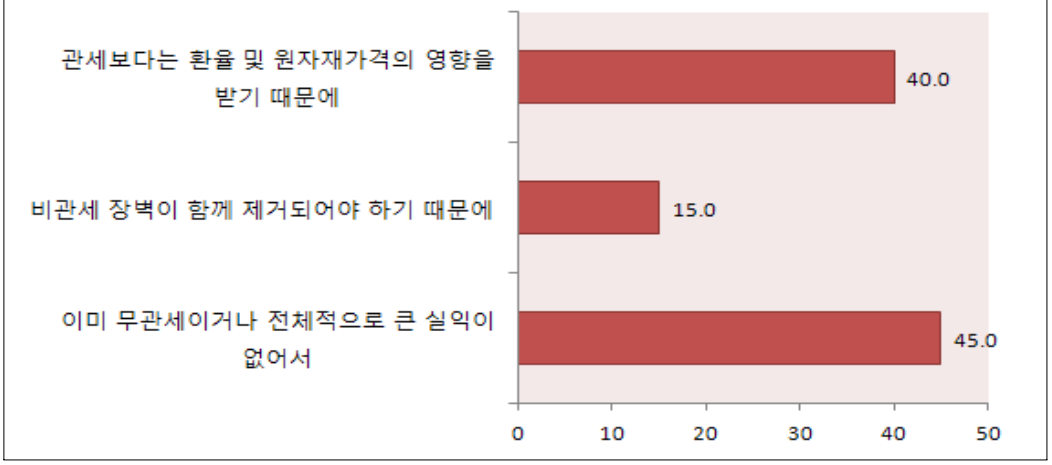
‘FTA 활용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에 라고 응답한 기업의 대부분이 ‘FTA 관련 전담직원을 둘 여력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충남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되고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전담인력을 확보하기까지 한시적이라도 수출전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76〉 ‘관세인하 효과가 적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이유

(단위: %)

구분	백분율
이미 무관세이거나 전체적으로 큰 실익이 없어서	45.0
비관세 장벽이 함께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15.0
관세보다는 환율 및 원자재가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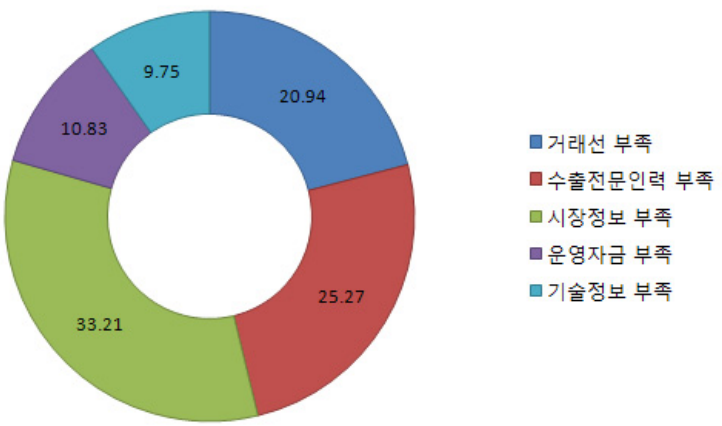
‘관세인하 효과가 적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기업의 45.0%가 ‘이미 무관세이거나 전체적으로 큰 실익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미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관세 효과 보다는 지자체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수출지원 필요하다.

2)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표 77〉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

(단위: %)

구분	백분율
거래선 부족	20.94
수출전문인력 부족	25.27
시장정보 부족	33.21
운영자금 부족	10.83
기술정보 부족	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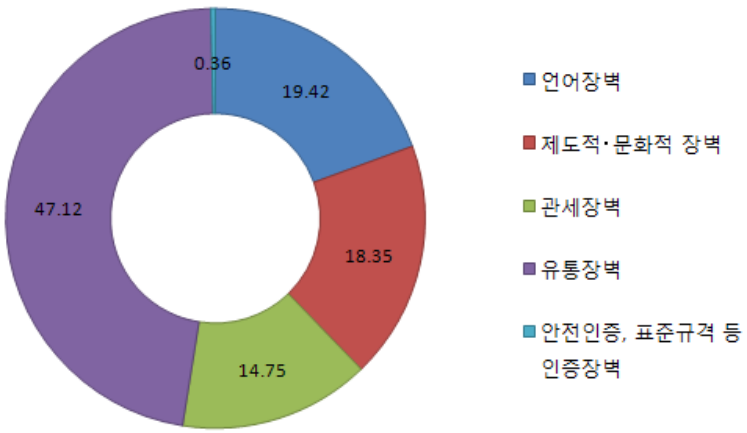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시장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33.21%로 가장 높았으며, 수출전문인력 부족(25.27%), 거래선 부족(20.94%)로 나타났다.

해외사무소, 지자체간 교류의 확대 등 시장정보를 빠르고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해외무역박람회, 무역사절단 등 거래선을 찾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 78〉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무역장벽

(단위: %)

구분	백분율
언어장벽	19.42
제도적·문화적 장벽	18.35
관세장벽	14.75
유통장벽	47.12
안전인증, 표준규격 등 인증장벽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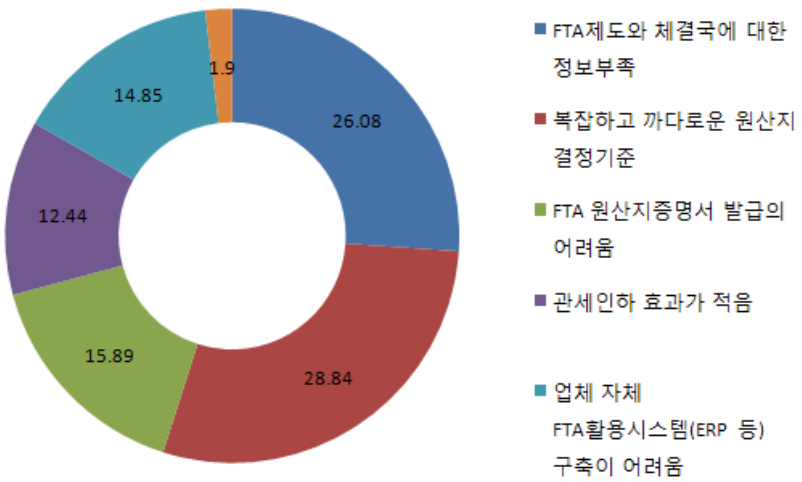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무역장벽은 관세장벽이 아닌 해외의 유통장벽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만으로 지역의 중소수출입기업의 수출이 쉽게 그리고 크게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장벽과 더불어 유통장벽을 허물수 있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79〉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단위: %)

구분	백분율
FTA제도와 체결국에 대한 정보부족	26.08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	28.84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15.89
관세인하 효과가 적음	12.44
업체 자체 FTA활용시스템(ERP 등) 구축이 어려움	14.85
해외 바이어의 낮은 인지도로 요구하지 않음	1.9



현재 FTA제도를 활용하면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과 'FTA제도와 체결국에 대한 정보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8%, 20.1%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충남 중소수출기업은 원산지 증명과 정보의 획득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확대하여 기업이 갖는 불안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요약

▶ FTA 활용기업의 비율은 페루→EU→칠레→인도→EFTA→미국→싱가포르→ASEAN 순으로 한·미 FTA와 한·ASEAN FTA의 활용도를 더 높여가야 할 것임

▶ 특히 ASEAN은 교역하는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아 이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함

▶ 충남 중소수출입 기업들은 FTA로 인한 관세인하효과를 수출의 확대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높은 원산지 인증 증명서 발급률은 그동안 FTA활용지원센터의 컨설팅과 충남 중소수출기업의 자구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인도와 ASEAN의 경우 원산지인증증명서 발급률을 좀 더 높여가야 함

▶ FTA로 인한 수출 증대 기업의 비율은 페루→칠레→EU→EFTA→ASEAN→미국→인도→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남

▶ FTA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는 칠레→ASEAN→인도→EFTA→싱가포르·페루→EU→미국→순으로 나타남

▶ 주요 협정국가인 미국과 EU의 수출증대효과는 각각 6.9%, 7.0% 증가로 다른 FTA에 비해 효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FTA는 가격경쟁력의 증대뿐만 아니라, 협정 자체만으로도 수출시장규모를 키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FTA를 통해 관세효과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남

▶ 수출의 확대는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환경, 비관세장벽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장정보의 획득 등 관련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한 FTA 관련 정보의 제공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FTA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며, 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개선도 필요
  - 원산지 증명 관련 컨설팅을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을 위한 교육기회를 늘려나가야 함
  -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전담인력을 확보하기까지 한시적이라도 수출전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이미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관세효과 보다는 지자체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수출지원 필요

제4장 충남도 FTA 대응방안

1. 충남도 FTA 활용활성화 방안

1) FTA활용 정책방향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FTA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여 '13.6월 기준으로 46개국과 9개 FTA가 발효되었다. 그 결과 현재 세계경제의 약 57.6%에 해당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우리나라 총교역의 34.8%를 FTA발효국과 교역중에 있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중국, 일본 등과의 FTA를 발효할 경우 전체 교역의 70%이상을 FTA발효국과 교역할 전망이다.

그 동안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으로 FTA활용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FTA활용에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분석된 내용처럼 애로를 호소하는데 있어서는 FTA활용지원에 대한 미비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발생함으로써 수입과 수출 양측면에서의 FTA에 대한 반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FTA의 체결과 발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지역산업과 지역기업의 입장에서는 FTA는 경영활동의 하나로 간주해야 할 만큼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이러한 FTA의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충남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FTA에 대한 활성화 방안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히 피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무상 서비스 확대 등의 일시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산업과 지역기업이 FTA와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의 목표라 할 수 있다.

(1) 기업경영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지원

세계 각국과의 FTA체결로 인한 영향은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 시장지배력, 기술수준, 경영상황 등에 따라 모두 다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업체가 생긴 반면, FTA체결만으로도 수주금액이 늘어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기업도 있다. FTA가 국가간 교역에 있어서 거쳐야 할 현실이라고 하면, 피해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여 글로벌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 목표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혜기업에 있어서는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생산 및 교역 확장 등의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정부의 FTA 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방향설정이 부족한 채 단기적인 지원사업 중심의 정책추진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정책은 단순히 수출입 등의 교역에 대한 정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기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2) 수요대응형 지원체계 구축

그동안 FTA 관련정책은 부처별, 사업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사업초기에는 지원시책이 FTA 이행과정을 중심으로 주로 국가별, 산업별, 업종별 전반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었고, 이후 정책이 다변화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업체별, 품목별 기업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범정부 차원에서 단계별·기업별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원스탑 애로 해소도 "FTA 통합 콜센터(1380)[30]을 개설함으로서 기업의 다각적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제공이 주요관련 기관별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에 많은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FTA종합지원센터와 지방중소기업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기업

30) FTA전문상담을 지원하는 콜센터를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13.6.24)

이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기업에 밀착한 지역별 수요대응형 지원체계를 장기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 종합대책

자료 : 중소기업 FTA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2013.6.27

(3) FTA의 지속적 인식 확대

우리나라 FTA 체결 초기 전국민의 관심사는 농업분야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고, 정책 또한 농업관련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FTA대상 국가와 상품자체가 점차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정부의 정책도 그만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FTA관련 각종 인식조사에 있어서 FTA체결에 대한 인지도는 대기업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중소기업은 매우 낮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기업의 협력업체로 갈수록 이러한 인식도는 더욱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FTA활용도 또한 매우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내 FTA관련 전문인력이 상주하거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하고 기업경영을 확대해 가는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자금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대응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에 대해 FTA에 적극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FTA활용 동반성장 우수사례'발굴, '수출협력사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수출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에 대한 FTA 인식 및 제도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홍보, 교육 등을 통한 FTA 인식확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기업간 자율적인 협력체계를 지원하여 FTA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FTA는 일시적인 협정이 아니라 상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 규정에 근거한 활용 촉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생 창업기업, 영세중소기업들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인식개선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기업간의 자율적인 인식제고와 제도 활용에 대한 방안과 인센티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FTA 활용활성화 3대 전략

현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차원에서 FTA관련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계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보호와 수출 등의 대외교역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다. 즉,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활용성을 높이고, 추진되는 사업이 기업의 현실적에 맞도록 효율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진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의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 현재의 인력과 조직구조상으로는 추가적인 지원사업의 기획과 중앙정부 추진사업 연계 확대 등이 어려워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정책과 연계, 도내 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창구 역할을 담당해 기업의 FTA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다. 단순히 설명회 몇 회, 컨설팅 몇 회 등의 단편적인 사업추진이 아닌 도내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자금과 인력 등의 문제로 FTA관련 문제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FTA정책이 중소기업지원정책

이라는 큰 틀과 같은 맥락에서 적극적인이고 공격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자체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비용최소화나 이익극대화가 아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은 기업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경영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조직, 시간 등의 제약조건 속에 속해 있다. 따라서 기업에 있어 FTA 지원정책의 접근성 강화나 기업의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의 찾아가는 공격적인 지원정책의 추진과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정책수요를 이끌어 내야 FTA활용지원사업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지원사업 활용극대화

FTA 활용지원사업의 활용극대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FTA활용지원센터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FTA활용지원센터가 활용지원사업 등의 정책에 대해 지역 기업에게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FTA활용지원사업 역시 큰 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충남도 및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병행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기능 강화
-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 확대(자금 지원)
- FTA지원기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중소기업에 대한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 우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발굴 및 실질적 지원 확대
- FTA Connecter 도입을 통한 활용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및 컨설팅 사업의 효율화 추진

나. 충남 FTA 지원사업 홍보 강화
- 지역 수출업체 협의체 모임 구성을 통한 민간 주도의 FTA 정보 교류 지원
- 중앙정부 FTA활용 정책과 지원기관의 통합된 지원사업 정보 제공

다. 충남 FTA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 충남형 FTA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수출업체의 수출협력사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트브 부여

* 컨설팅·사후검증 지원요청시 우선 지원, 컨설팅 자기부담금 완화, 수출지원프로그램 연계 추천, 충남도 정책자금지원시 가점 부여 등

(2) 지원사업 효율극대화

FTA 활용지원사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찾아오는 서비스보다 찾아가는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이상의 수출중소기업 등은 FTA활용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본 사업 절실한 영세중소기업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활용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도내 영세중소수출기업에 대한 리스트업을 통해 분기별, 반기별 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해 FTA활용 촉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영세중소협력업체와 연계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FTA지원, 원산지 발급서 작성 지원 등의 민간차원의 FTA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가. FTA 설명회 내실화

-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세분화된 FTA설명회 개최 및 확대
- 기업에 대한 1:1 컨설팅을 포함한 찾아가는 FTA설명회 도입
- FTA관련 자료의 웹서비스 운영

나. FTA 컨설팅 보완·개선

-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방문지도 컨설팅 확대, 관세사방문(3회/1일 2~3시간), 기술컨설팅 등
- 민간 자율형 컨설팅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이 협력업체(2,3차벤더)에 FTA 컨설팅 추진(동반성장 사례발굴 및 인센터브 부여)
- FTA관련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 및 홍보

다. FTA활용 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 및 공급

- 충남 도내 FTA 전문인력 풀 구성 및 운영(관세, 원산지 관리 등)
- 도내 대학에 산학연계 기업 실무인력의 FTA강좌 개설 및 지원
- 업종별 특화 교육 확대 및 중앙정부 교육프로그램 연계 교육 추진
- 도내 대학에 FTA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 운영 및 예산 지원
- 마이스터고, 전문대학과 연계한 FTA활용 교육프로그램 확대

(3) 관련기업 역량극대화

FTA의 추진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다. 현재 기재부, 산업부, KTRA, 지역별 FTA지원센터 등 다양한 FTA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별, 품목별 절차가 상이해 기업의 FTA담당자 혹은 기업관계자는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책의 이해에서부터 사후 관리의 문제까지 다양한 요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홍보·교육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의 간소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 자금지원·경영지원과 같은 중소기업지원시책과 병행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가. 원산지 확인 및 검증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원산지 품목분류 지원강화 (품목분류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
- 협정문상 사전심사 결정제도 활용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간소화 지원
-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에 대한 도내 상의, 진흥원의 교육 추진

* FTA KOREA(KT-NET), FTA-PASS(관세청) 등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 사후 검증지원 강화 및 통관 애로 해소 지원

나. FTA 원산지확인 완료기업 인센티브 제공

- 원산지 확인 우수협력기업 지정·운영
- FTA선도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 FTA선도기업 : 신규 FTA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全과정 밀착지원으로 성과 조기 창출 및 FTA 활용 롤모델 창출(한·EU/한·터키)

다. 관련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FTA활용 관련 기업간 공동협력 사례 발굴 및 포상
- 지역 중소기업 협의체 모임 구성을 통한 민간 주도의 FTA 정보 교류 지원(상의)

라.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FTA 수혜품목의 직접마케팅 확대 및 지원(충남도 해외프로그램 참여 촉진)
- 해외 수출마케팅에 대한 금융프로그램 연계 지원
- 기존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FTA 활용지원사업간의 연계 체제 구축(중복지원 방지 및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과의 체계화 필요)

2. 충남도 FTA지원사업 효율극대화 방안

1) 충남도 FTA지원사업 운영실태 진단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심도 있는 설문조사와 업체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 밀착형 연구를 지향한다. 본 절에서는 FTA 지원사업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업체의 인터뷰를 통해 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살펴본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각 질문사항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인터뷰를 통해 얻은 불편사항, 의견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항목에 정리했다.

①비용 : 지원받은 금액 혹은 부담금에 대한 의견
②인력 : 지원받은 인력 혹은 행사 등에 동원된 인력, 사업의 수행사 및 여행사에 대한 의견
③홍보 : 동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위, 인지도에 대한 의견
④효율성 : 동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동 사업이용 후 계약체결에 대한 의견

⑤행정 : 동 지원사업의 신청 및 사전·사후관리에 대한 의견

⑥횟수 : 동 지원사업의 신청·이용횟수에 대한 의견

⑦기타 : 상기 항목 이외의 의견 및 인터뷰 총체의견 정리

인터뷰는 6월4일부터 9월13일까지 약 4개월간 총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표 80 참조). 인터뷰는 최초 대면(face-to-face) 인터뷰를 실시한 후, 추후 문의사항 발생 시 전화 혹은 이메일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대상 기업들이 대부분 지원사업을 다수 이용하고 있어, 본 연구의 진단대상 지원사업별로 최소 1사, 최대 6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정리했다. 道 주체사업의 경우 이용업체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충실하게 이용하고 있었지만, FTA활용지원센터의 사업의 경우, 동 센터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하여, 지원사업별 이용업체를 다양하게 컨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진단사업은 아니나 업체들이 이용했던 기타 지원사업은 <기타>의 형식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각 사업별 진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0〉 인터뷰 기업리스트 및 내용

활용사업 \ 기업 및 소재지		A사 천안	B사 천안	C사 천안	D사 천안	E사 아산	F사 금산	G사 부여	H사 부여	I사 천안	J사 아산	K사 공주
충남도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			●	●		●	●			●
	해외전시회 박람회(단체참가)		●					●	●	●		●
	해외전시회 박람회(타깃개별참가)	●	●					●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		●	●		●			●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	
	(기타)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							
	(기타) 초보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				●				●
	(기타)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FTA활용지원센터	FTA 콜센터 운영									●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실시											●
	FTA 활용담당자를 위한 실무지식 교육			●	●					●	●	
	FTA 시장설명회											
	중소기업의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FTA 전문인력 지원알선											
	(기타)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	●	●						●		●

(1) 충남도

①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해외 무역사절단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미국, 유럽 등 방문 경우, 체제비 부담이 너무 큼 (중국, 동남아시아쪽 국가와 차등지원 고려필요)
②인력	△	통번역 지원인력 검증필요(특수언어)
③홍보	◎	지속적인 메일링 및 道의 Fax, 중진공 정보제공 등으로, 정보 입수 루트는 상당히 다양함
④효율성	◎	바이어의 질(Quality)에 대해 만족감 높음 (유럽 경우, 수 적으나 양질바이어 많음. 아시아 경우, 수 많으나 소득은 별로 없음) 유무형의 소득에 대한 기대감 표시 당시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추후 구형모델이 되어 가격이 맞으면 계약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 잠재적 바이어 발굴의 의미로 가능한 참가하는 경향
⑤행정	◎	신청~선정 절차가 특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 없음 선정 후에도 3~4회 메일왕래로 바이어와의 미팅조율
⑥횟수	○	현 1년에 4회 신청가능. 횟수 증가된다면 참가하고 싶다는 의견 많음 (기업이 원하는 국가를 말할 수 있는 대화채널 마련필요)
⑦기타		- 예외적, 돌발적 상황발생 시 발생하는 금액이 각 회사에 전가 (ex. 미팅날짜 급변경 시, 통역비용 자사부담) - 사후 진행되는 계약에 있어 번역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 있음 (사후지원사업 미비, 사후관리 인력풀 고려필요) - 참가업체 중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아직 사내에 해외영업담당 인력 미비) 경우, 실무자교육, 수출초보기업지원, 통번역 서비스 등 체계적, 단계적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 필요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②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참가국에 따라 평가가 크게 차이남. -모든 박람회의 지원금액은 동일한데, 일본·중동·유럽·미국의 경우는 부스임차료가 800~900만원을 선회하여 자부담이 큰 관계로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반면, 중국·동남아의 경우는 지원금이 적절하다고 평가함. (자부담이 큰 국가는 1천만원, 자부담이 적은 국가는 6백만원 식으로 차등지원 고려 필요)
②인력	○	-통역에 대한 불만은 특별히 없음. 충남도 해외사무소의 통역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 -여행사에 따라 평가 상이함 (ex. 여행사가 준비한 일정에 대한 불만, 여행사 상품이 개별예약보다 비쌈 등등)
③홍보	◎	지속적인 메일링 및 道의 Fax, 중진공 정보제공 등으로, 정보 입수 루트는 상당히 다양함
④효율성	◎	제품군이 특수한 경우일수록, 박람회참가를 통한 바이어발굴에 대한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
⑤행정	◎	신청 및 사후보고 무난 단, 조사내용이 대부분 대동소이하여 통일된 조사를 시행했으면 함.
⑥횟수	◎	타깃개별참가와 병행하여 실시하면 횟수는 충분함
⑦기타		동 사업은 해외박람회 참가를 처음 시도하는 기업이 활용하는 사업임. 따라서 개별참가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ex. 자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선정 후에 들어 당황했다는 사례)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③ 해외전시박람회 (타깃 개별참가)

	해외전시박람회 (타깃 개별참가)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총비용(부스설치비, 카탈로그 인쇄비 등) 대비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신청부담 큼(특히 미국, 유럽 개최 박람회 경우 총비용 6천만원 정도 소요) 항공비 지원의 차등화 필요(유럽, 미국 - 아시아지역)
②인력	△	대부분 경우, 제품의 전문, 특수용어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통역은 자사직원이 대응. (경험상 통역원의 질(Quality)에 대한 불신 높음)
③홍보	◎	메일링 통해 동 사업지원에 대한 정보입수
④효율성	◎	유럽 개최의 박람회 경우, 유럽 각국에서 다양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만족도 높음. 유럽, 미국의 박람회는 참가 자체가 기업의 수준 증명의 의미가 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음.
⑤행정	○	신청~선정까지의 절차에는 대부분 만족 사후보고 시, 결과보고용 포맷이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 똑같은 내용을 각각의 포맷에 맞춰 재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포맷 통일 혹은 기관간 정보공유가 된다면 좋을 듯함.
⑥횟수	△	만족도가 높아 횟수증설을 원하는 기업이 많으나, 자부담이 커 모두 참가할 지는 미지수임. 다양한 기업이 골고루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업의 자부담이 큰 관계로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니면 동 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못해, 활용기업이 편중된다는 모순 존재.
⑦기타		동 사업을 활용하는 기업은 수출초보 단계를 지난 기업이 많음. 수출선도화 사업 등 다음단계 사업 안내 및 양질의 바이어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수출도약을 도와줄 필요 있음.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④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업체부담이 없어 비용면에서 만족도 높음
②인력	△	통역자 질 제고 필요. 사전교육(Orientation) 등을 통해 전문, 기술적 용어 습득기회 제공. 통역자의 역량에 분위기 좌우되는 면이 큼
③홍보	◎	메일링, 유관기관의 정보제공으로 정보입수 용이
④효율성	△	아직 유형의 실적은 없으나 기대감 있음.(제품홍보측면 큼) 단, 바이어 선정에 대한 의문.(미스매칭) 바이어 실적 체크하여 일정횟수동안 실적이 없는 바이어는 초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제도 필요(ex. 초청바이어 투아웃제)
⑤행정	◎	신청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신청~선정까지 시간도 길지 않음 계약성사 시 보고서도 간단함.
⑥횟수	◎	현 2회(상하반기 1회씩) 적당함
⑦기타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이 자사제품의 해외시장 평판 체크의 기회로 동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동 사업을 계기로 수출 준비하고, 수출선으로부터 FTA 관세 혜택 요구에 의해 FTA신청절차를 준비하는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동 사업 참여기업에게는 초보기업 육성사업, FTA 실무자교육 등 다음단계를 대비할 체계적 지원사업 안내 필요 -특정제품군(식품, 화장품 등)의 경우 위생허가 등 각종 허가 문제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계약체결이 주저되는 경우 발생. 초보기업의 참가가 많은 사업인만큼, 각종 제도안내, 비용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 있으면 좋을 듯.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⑤ FTA 전략지역 타깃마케팅

	FTA전략지역 타깃 마케팅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수행사(콤파스社)에게 지원금이 넘어가면 그 금전흐름에 대해 업체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
②인력	△	수행사와 교류가 적음. e카달로그 작성시, 송부한 카달로그를 그대로 업로드 협의, 내용에 대한 회의 없었음. 전화통화 정도로 마무리함
③홍보	◎	道로부터 설명 들음
④효율성	○	타 수행사(EC plaza, EC 21)보다 만족 현 수행사의 시스템(200포인트 지급. 바이어 1사 정보 다운로드 당, 포인트 차감) 만족 개별적으로 바이어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었음
⑤행정	◎	수출실적 있으면 무리없이 신청가능. 제출서류도 간소화 수행사에 제출하는 월간 레포트 있음.
⑥횟수	-	
⑦기타		-존재하지 않는 메일주소 등, 정보 업데이트 필요 -회원사가 직접 이메일 컨택 하는 것보다, 수행사를 통해 이메일 컨택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컨택 성공률이 향상될 듯(직접 컨택할 경우, 스팸메일 취급) -계약기간 종료후, 사이트의 업체정보 행방에 대한 설명부족.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⑥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무료이므로 업체부담 없음
②인력	○	강사 1인. 강사에 따른 만족도 차이 큼 (4시간 정도 수업) 큰 틀에서만 설명. 추후 개별연락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 제공
③홍보	◎	메일, FAX로 홍보는 많음
④효율성	△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초보수준 교육이어서 2회 들으면 충분
⑤행정	◎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참가확인까지 완료
⑥횟수	○	기관마다 비슷한 교육이 많아 횟수는 충분하나 대부분 초보교육
⑦기타		-단계별 교육마련 및 안내 필요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리스트업 하여, 업체들이 체계적으로 계획 세울 수 있도록 정비필요 -업체입장에서는 동 사업과 FTA활용지원센터의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에 대한 구별 모호. (사업중복. 도와 센터의 사업구분 및 체계화 필요)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기타①〉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숙박비 지원 고려필요 (대부분 좋은 호텔에서 전시회가 이뤄지는데, 통솔문제로 동일 호텔 숙박을 하게 되어 숙박비 부담이 다소 큼)
②인력	△	특수언어국가(동남아 등) 경우, 통역인원 부족 및 질 보장안됨 통역원 사전교육(Orientation)을 통해 전문,특수어가 많은 전시회 통역 질 제고필요
③홍보	◎	메일링, Fax, 유관기관들의 정보발신으로, 정보입수 루트는 다양함
④효율성	△	방문하는 바이어들의 질(Quality)에 대한 의구심 구매욕이 보이지 않았음 (목적없이 둘러보고 가는 바이어 다수)
⑤행정	◎	신청~선정까지 어려움 없음 (한번 신청해 놓으면 추후 활용가능)
⑥횟수		
⑦기타		세관통관 등 돌발상황 발생하는 회사 발생. 대처 매뉴얼 작성,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사전교육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임. 무역사절단과 사업내용 중복. 통폐합 및 집중지원 논의 필요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기타②〉 초보수출기업 역량강화 사업

	초보수출기업 역량강화 사업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매칭비용 없으나, 업체부담금(30%. 초보기업 경우 10%) 있음. 500만원 내에서 몇개 사업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어서 좋았음
②인력	△	-수행업체가 2개월 1회씩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등 수행내용이 있으나 그다지 지켜지지 않음.(A사)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는 관계로, 미팅을 잡는 데에는 큰 어려움 없었음(B사)
③홍보	○	메일링 서비스 등 정보입수 채널은 다양함. 단, 동 지원사업과 같은 다소 특수한 사업의 경우, 관심있는 업체들의 자발적 조사를 통해 얻는 경우가 더 많음.
④효율성	○	-(A사)수행업체의 일회성,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불만. 1년 사업수행 후 사후평가, 사후대응 미흡 -(B사)금액대비 만족스러운 사업내용 'inquiry 등록시스템' 통해 해외에서 연락이 오는 곳과 매칭해 주는 시스템 만족
⑤행정	◎	신청~심사~선정까지 필요서류는 많으나 납득가능하므로 불만은 없음 사후보고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편리했음. 내용을 꼼꼼히 적어야 하나 납득가능함
⑥횟수	△	계속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면 차기년도에도 신청희망
⑦기타		선정기업에 대한 정보가 너무 공개되어, 수행업체들로부터 홍보 전화가 너무 많이 옴.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기타③〉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약 150만원 자사부담이나, 해외출장비를 생각하면 절대 아깝지 않은 부담임
②인력	○	사무소 담당직원과의 궁합은 복불복적인 면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만족
③홍보	△	타사업에 참여했던 리스트를 통해 연락받음
④효율성	◎	출장 한두번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상주직원의 대응도 만족스러움. 바이어 컨택요청은 10회 전후. 계약이 성사되어 물품 송부시, 혹은 스펙 등 변경사항 발생시 상주직원의 대응도 신속하고 만족스러움.
⑤행정	◎	기존에 활용하는 사업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신청서류 등을 활용, 응용하면 신청에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음.
⑥횟수	○	사업이용 3년차인 현재 계속 갱신 중임. 3년 연속이용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계속 이용하고 싶은 지원사업임.
⑦기타		취급품목이 단일품목, 소형, 특정 생활용품 등인 경우, 무역사절단, 바이어초청 상담회처럼 참가비 부담이 크거나 취급 카테고리가 큰 바이어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성과를 올리기 힘듦. 동 사업은 상기특징의 품목 제조업체에게 적합하고 만족도도 높은 지원사업이라 생각됨.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2) FTA 활용지원센터

① FTA 콜센터 운영

	FTA 콜센터 운영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업체부담이 없어 비용면에서 만족도 높음
②인력	◎	즉시 대응. 만족도 높음
③홍보	×	현장방문컨설팅을 계기로 알게 됨
④효율성	◎	즉시 대응. 만족도 높음
⑤행정	◎	특별한 신청 등 없어 업체의 만족도 높음
⑥횟수	◎	이용제한 없어 업체의 만족도 높음
⑦기타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②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실시

	FTA활용 담당자를 위한 실무지식 교육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기업부담 3만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만족
②인력	◎	3일간 8시간 교육.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위주 교육 4~5명의 강사 대부분 좋았음
③홍보	×	현장방문컨설팅 통해 알게됨.
④효율성	◎	낮은 기업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만족
⑤행정	◎	신청은 특별히 번거롭지 않았으나 교육 바로 전에 공지가 옴
⑥횟수	-	
⑦기타		동 교육을 들어야만 FTA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할 것임. 교육장소(新도청)가 너무 먼 것 이외에는 만족스러움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③ FTA 활용담당자를 위한 실무지식 교육

	원산지 관리사 양성교육 실시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무료이므로 기업측 부담 없음
②인력	△	-강사 1인 -강사에 따라 만족도 상이
③홍보	◎	메일링 등을 통해 정기적, 수시로 교육일정 안내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통해 정보입수
④효율성	×	분야별로 나눈 강의 필요(현재 종합 일괄교육) 300p정도 책자 중, 해당내용은 10p 미만인 경우 많음 강의시간 너무 길다고 느낌(전체 교육시간 1시~5시) 내용 어려움
⑤행정	◎	신청 간단
⑥횟수	△	FTA인증교육에 이어 사후검증 관련교육에 대한 과정신설 필요
⑦기타		-수강자 중 재교육자의 교육내용 기대치에 대한 대응 필요 (ex. 초급-중급 등 단계별 교육화) -사후검증관련에 관한 교육 신설 필요 (이전의 인증교육 수강자들이 현재 사후검증관련업무에 대한 불안감 안고 있음.)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기타①〉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진단여부	진단내용
①비용	◎	무료이므로 기업부담 없음
②인력	○	홍보부족으로 동 컨설팅을 아는 기업이 매우 적어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음 단, 신청기업이 늘어나면 현 인력으로는 한계있음
③홍보	×	대다수 기업이 동 컨설팅을 처음 받았고, 지원받은 사업의 성과 청취를 겸해 동 컨설팅을 행하는 경우가 많음. 동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적극적 홍보 필요.
④효율성	○	동 컨설팅을 통해 전반적인 FTA지원제도를 접하고, 콜센터, infobiz 홈페이지 등을 소개받는 계기가 됨.
⑤행정	◎	아직까지는 신청~방문까지 대기기간 거의 없음 신청시 전화, 이메일로 조율하여 큰 어려움 없음
⑥횟수	○	횟수제한 없고, 아직까지는 신청기업이 적어 방문횟수에 대한 불만 없음
⑦기타		활용지원센터 1명이 FTA관련 전(全)업무 담당 추후 실제적으로 필요한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서비스라는 의견이 많아, 향후 동 업무량 증가 시, 지원에 한계봉착 예상 인력보충을 통한 업무분담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시급 1차 개괄소개-2차 회사별 맞춤컨설팅 형태로 진행되는데 현재의 인력으로는 향후 업무로드 가중이 예상됨.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3) 결과종합

운영 주체	사업명칭	항 목 ① 비용	② 인력	③ 홍보	④ 효율성	⑤ 행정	⑥ 횟수	⑦ 기타
道	①해외무역사절단 운영	△	△	◎	◎	◎	○	
	②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	○	◎	◎	◎	◎	
	③해외전시박람회 타깃 개별참가	△	△	◎	◎	○	△	
	④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	◎	△	◎	◎	
	⑤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	△	◎	○	◎	-	
	⑥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	○	◎	△	◎	○	
	•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	△	◎	△	◎	-	
	• 초보수출기업 역량강화 사업	◎	△	○	○	◎	△	
	•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	△	◎	◎	○	
충남 FTA활용 지원센터	①FTA 콜센터 운영	◎	◎	×	◎	◎	◎	
	②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실시	◎	◎	×	◎	◎	-	
	③FTA활용 담당자를 위한 실무지식 교육	◎	△	◎	×	◎	○	
	④FTA시장 설명회							
	⑤맞춤형 컨설팅 지원							
	⑥중소기업의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⑦FTA전문인력 지원알선							
	•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	○	×	○	◎	○	

◎ 매우양호 ○양호 △취약 ×매우취약

각 항목별 진단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비용

업체의 자부담이 큰 지원사업(ex. 무역사절단, 박람회참가)의 경우, 비용부담에 대해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가장 큰 사항은 박람회 개최국(대륙)별 차등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박람회 참가(단체참가) 유럽·미국·두바이 등 물가가 비싼 국가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의 경우, 지원금으로 부스임대료를 커버하기에도 버거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해외 유명 박람회의 경우, 참가 자체가 업체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여, 충남도의 역량있는 기업들의 참가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선별기준 조정, 차등지원 기준마련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

② 인력

통역인력이 업체제품의 특수용어에 익숙치 않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행사 전 사전미팅 혹은 이메일로 자사제품 카탈로그 송부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박람회 단체참가에 이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업체에 따라 혹은 참가한 국가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상이해 일괄적으로 평가하기에 힘든 면이 있다.

교육관련 사업의 경우, 강사 1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으로 인해, 당일 강사의 역량에 따라 만족도가 상이했다. 강사에 따라 수업 진행스타일이 다르고, 수업 후에도 개별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이메일을 제공하는 등, 당일 강사의 강의스타일에 대한 만족여부에 따라 평가가 상당히 좌우되었다. 수업후 만족도조사를 통해 인기강사 pool을 구축함으로써 강의 만족도 향상에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FTA활용지원센터의 콜센터, 찾아가는 방문컨설팅 등 대면적(face-to-face) 지원사업의 경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동 서비스는 행정기관과의 거리감과 저항감을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인력 확충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목소리를 좀더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홍보

각 사업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 이메일, FAX 등을 통해 입수하기 용이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④ 효율성

대체적으로 업체들은 직접 해외에 나가는 지원사업의 경우(무역사절단, 박람회) 만족도가 높고, 참가 후 컨택률 및 계약성사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틈새시장(Niche market)을 노리는 특성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 높다.

한편,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와 교육관련 사업의 경우 예상외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는데,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의 경우는 전술한 제품특성으로 인해 업체의 취급제품과 해외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의 미스매칭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취급품목이 '문구'인 해외바이어는 오피스용 문구를 취급하는 업체를 찾고 있으나, 참가업체는 아동용 팬시용품을 다루는 경우이다.

더불어, 초청된 바이어의 실적에 대해 의문을 갖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었다. 해외바이어의 실적, 희망품목의 세분화 등을 통해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육관련 사업의 경우, 다양한 기관에서 유사한 과정명의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사업중복 및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道와 FTA활용지원센터의 교육관련 지원사업만이라도 '무역실무 초-중-고급 과정', 'FTA 인증취득- 사후관리 과정'과 같이 단계별 과정으로 나누어 수강자들의 만족도 및 업무과정에 필요한 교육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FTA관련교육의 경우, 사후관리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인증취득 교육을 지나 업무자들이 안고 있는 FTA사후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교육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⑤ 행정

신청까지 이메일 혹은 온라인 접수 등으로 편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업참가 후 각기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동소이한 앙케이트에 응해야 한다는 점이 불만사항으로 지적됐다.

⑥ 횟수

횟수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크게 불만은 나타나지 않았다.

⑦ 기타

수출초보기업이 이용하는 사업과 그 단계를 지난 기업이 이용하는 사업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보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안내를 충실히 하여 참가업체의 불안감을 경감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ex. 자부담 등에 대한 안내, 통관 문제발생시 대처법, 현지 일정변경에 따른 자부담 발생 등)

수행사를 통해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ex. FTA 전략지역 타깃마케팅, 초보수출기업 역량강화사업 등), 수행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현재, 수행사가 바이어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업체가 개별적으로 컨택하는 상황에서는 업체의 메일이 스팸메일로 처리되어 컨택률이 그리 높지 않다. 이를 수행사 이름으로 메일발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개별업체보다 월등히 지명도가 높은 수행사의 이름으로 발송되는 메일이므로 컨택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수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 생각된다.

교육관련 지원사업의 경우, 업체에서는 道주체의 사업인지 FTA활용지원센터 주체의 사업인지 기타 관련기관의 사업인지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무역실무능력 배양과 FTA 활용담당자용 교육과정도 대동소이했다. 교육과정을 리스트업하여 업체들이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교육과정 통폐합 및 정비(단계별 교육)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본 진단사업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터뷰를 통해, 道주체의 지원사업 중 '수출통번역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수출액 실적 5백만$ 미만의 기업이 신청가능하다는 기준으로 인해, 이제부터 수출을 계획하는 전년도 실적이 전무한 중소기업은 신청대상이 못 되는 모순점을 발견했다. 본 사업 이외에도 신청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사절단 등의 기회를 통해 바이어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수출에 앞서 선결해야 하는 각종 허가취득(특히 식품분야)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계약으로 성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했다. 수출을 위한 국가별 허가취득 등에 대해, 교육과정 중에 안내하거나 컨설팅 내용 중에 인지시키는 등 홍보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허가취득에

필요한 지원사업 신설도 고려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충남의 주요 수출국이면서 현재 FTA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베트남과의 교역을 늘일 수 있도록, 무역사절단·해외박람회참가 등에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시아 쪽 교류를 늘이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아직 수출비율은 적지만 FTA에서 높은 이득을 보인 남미(페루, 칠레 등)는 높은 무역잠재력을 바라보고 무역사절단 코스를 신설하는 것과 해외바이어 초청 시 바이어 섭외도 고려할 수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은 FTA지원사업의 현상(現狀)을 가리키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지금까지 '얕고 폭넓은 지원'을 실시해왔다면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위사업별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사사업 통폐합 및 과정정비가 필요하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의견을 반영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지원사업의 단계별 활용은 다음과 같다.

〈표 81〉 FTA지원사업 단계별 활용(案)

단계	목적	활용사업
1단계	FTA인증 취득을 통해 가격경쟁력 갖추기	현장방문컨설팅, 교육과정 (FTA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무역실무능력 배양 등)
가능한 기업은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차후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있음)		
2단계	기업홍보·제품역량 강화 (카탈로그, 디자인 등 보완)	초보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3단계	제품 홍보 및 출품	수출 통번역 지원사업, 바이어 발굴·매칭사업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참가,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등)
4단계	보완 및 FTA 관리 바이어 발굴 지속 수출지원	수출 통번역 지원사업, FTA 콜센터 등 바이어 발굴·매칭사업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참가,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등)

다음 절에서는 상기 진단에 기반하여 향후 5년간(중기계획)의 FTA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충남도 FTA지원사업 개선방안(중기계획)

(1) 충남도

①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2014년 차등지원에 대한 의견수렴 2015년까지 차등지원 국가/대륙 선정 및 지원금액 조정(案) 2016년까지 차등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작성 완료, 시행준비				
인력	통역지원인력 검증 및 교육, 통역인력pool 구축				
홍보					
효율성					
행정					
횟수	새로운 방문국(대륙) 개척 및 이에 따른 횟수증설				
기타	사후관리 매뉴얼 및 번역지원체제 구축				

② 해외전시박람회(단체참가)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2014년 차등지원에 대한 의견수렴 2015년까지 차등지원 국가/대륙 선정 및 지원금액 조정(案) 2016년까지 차등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작성 완료, 시행준비				
인력	2014년까지 기존 이용여행사 만족도 조사 통역지원인력 검증 및 교육, 통역인력pool 구축				
홍보					
효율성					
행정					
횟수					
기타	해외박람회 처녀참가가 많은 사업인만큼, 안내매뉴얼 정비				

③ 해외전시박람회(타깃 개별참가)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2014년까지 기존 활용업체 의견수렴 -고액의 부스임차료에 대한 부담경감에 대한 논의				
인력	통역인력pool 연계방안				
홍보					
효율성					
행정	사후보고 통일화에 대한 논의				
횟수	만족도 높으나 기업지원 형평성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는 사업인만큼, 횟수증설에 대한 논의 필요				
기타	수출초보단계 지난 기업의 활용이 많으므로, 체계화된 지원사업 제시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구축				

④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인력	통역지원인력 검증 및 교육, 통역인력pool 구축 (특히 특수언어)				
홍보					
효율성	실적없는 바이어 걸러낼 수 있는 제도 마련 (ex. 초청바이어 투아웃제)				
행정					
횟수					
기타	식품, 화장품 등 특정제품군의 까다로운 허가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 혹은 비용지원 등 제도적 보완				

⑤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인력	수행사와 대면접촉 증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홍보					
효율성	수행사를 통한 바이어 컨택 시스템 개선가능성 타진 및 추진				
행정					
횟수					
기타	수행사에게 바이어정보 업데이트 지속적 요구				

⑥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인력	강사 만족도 조사 강사pool 구축				
홍보					
효율성	2014년까지 각기관별 유사교육 리스트업 2015년까지 초-중-고급 등 단계별 커리큘럼 마련. 2015~16년 실행 및 의견수렴				
행정					
횟수					
기타	(활용지원센터의 FTA교육과 중복가능성) 통폐합 or 수행기관별 단계분할 2014년까지 교육통폐합 여부 결정 2016년까지 커리큘럼 재조정, 시행 및 체크				

⑦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인력	콜센터, 현장방문컨설팅 등 향후 이용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을 위한 인력보강				
홍보	2015년까지 센터의 존재 및 사업 집중홍보				
효율성					
행정					
횟수					
기타	道와 중복되는 사업 통폐합 or 사업구분 FTA관련 단계별 교육구상 및 실행, 만족도 조사의 feed-back의 과정을 통해 내실화				

〈기타①〉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인력	통역지원인력 검증 및 교육, 통역인력pool 구축 (특히 특수언어)				
홍보					
효율성	바이어 질 제고방안 구축				
행정					
횟수					
기타	-무역사절단과 사업내용 중복 -통폐합 및 집중지원에 대한 논의				

〈기타②〉 초보수출기업 역량강화사업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인력	수행사와 대면접촉 증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홍보					
효율성	수행사의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 및 추진, 상황체크				
행정					
횟수					
기타					

(2) FTA 활용지원센터

① FTA 콜센터 운영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인력		홍보와 이용증가에 따른 인력보충			
홍보	FTA교육 시 소개 등을 통해 적극적 홍보				
효율성					
행정					
횟수					
기타					

②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실시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인력					
홍보	FTA교육 시 소개 등을 통해 적극적 홍보				
효율성					
행정					
횟수					
기타	홍보와 함께, 동 교육을 수강해야만 FTA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의 신청자격이 부여됨을 통해 동 교육의 중요성 공지				

③ FTA 활용담당자를 위한 실무지식 교육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인력	강사 만족도 조사 강사pool 구축				
홍보					
효율성	커리큘럼 재구성 (분야별, 수준, 단계 등) 및 실시, 의견수렴				
행정					
횟수					
기타	사후검증에 대한 교육 신설, 실시				

〈기타〉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용					
인력	홍보 및 이용증가에 따른 인력보충				
홍보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 홍보 강화				
효율성					
행정					
횟수	홍보 및 이용증가에 따른 횟수증가 예상				
기타					

요약

▶ 총 6개 항목별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①비용: 업체의 자부담이 큰 지원사업(ex. 무역사절단, 박람회참가)의 경우, 비용부담에 대해 조정을 요청. 선별기준 조정, 차등지원 기준마련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

②인력: 통역인력이 동원되는 사업의 경우, 업체제품의 특수용어에 익숙치 않음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사전미팅 등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함.

교육관련 사업의 경우, 당일 강사의 역량에 따라 만족도가 상이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강사pool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대면적 지원사업(콜센터, 찾아가는 방문컨설팅 등)의 경우, 만족도 높음.

③홍보: 특별히 불만사항 없음.

④효율성: 직접 해외에 나가는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계약성사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반면 해외바이어초청사업의 경우 바이어매칭에 대한 개선 요구. 해외바이어의 실적, 제품 세분화 등을 통해 미스매칭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함.

교육관련 사업의 경우, 다양한 기관의 유사한 과정명, 유사한 내용의 교육에 대해 사업중복 및 비효율성 지적. '초-중-고급' 및 'FTA인증 취득-사후관리 과정' 등 단계별 과정을 구분해 교육수요자들이 알기 쉽고,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게 하는 개선이 필요함.

⑤행정: 신청과정이 편리하고 제출내용도 적정하다고 평가. 단, 다른 여러기관으로부터 사업참가후 대동소이한 앙케이트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불만사항으로 지적.

⑥횟수: 큰 불만사항 없음.

▶ 수출초보기업이 이용하는 사업과 그 이후단계 기업이 이용하는 사업을 구분할 수 있음. 초보기업이 이용하는 사업의 경우, 안내를 충실히 하여 불안감 경감의 노력이 필요함.

▶ 수행사를 통한 지원사업의 경우, 수행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요구 높음. (ex. 수행사의 인지도를 활용한 메일발송 시스템)

요약

▶ 교육관련 사업의 경우, 교육수요자인 업체에서는 사업주체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음. 대동소이한 과정명과 내용의 교육에 대해 교육과정의 리스트업, 교육과정 통폐합 및 정비가 필요함.

▶ 지원사업을 통해 바이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수출에 앞서 선결해야 하는 각종 허가취득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계약이 불발되는 상황도 있음. 수출을 위해 선(先)취득해야하는 허가 등에 대해 교육내용 중 안내, 컨설팅을 통한 홍보가 필요함. 나아가, 필요하다면 허가취득에 필요한 지원사업 신설도 고려 필요.

▶ 앞의 실태조사결과를 참조하면, 무역사절단·해외박람회 참가 등에 동남아시아 및 남미 코스 신설 및 해외바이어 초청시 섭외도 고려 필요.

▶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얕고 폭넓은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별 효율성 및 만족도 제고로 방향전환 필요.

▶ 본연구가 제안하는 지원사업의 단계별 활용은 다음과 같음.

단계	목적	활용사업
1단계	FTA인증 취득을 통해 가격경쟁력 갖추기	현장방문컨설팅, 교육과정 (FTA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무역실무능력 배양 등)
2단계	기업홍보·제품역량 강화 (카탈로그, 디자인 등 보완)	초보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3단계	제품 홍보 및 출품	수출 통번역 지원사업, 바이어 발굴·매칭사업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참가,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등)
4단계	보완 및 FTA 관리 바이어 발굴 지속 수출지원	수출 통번역 지원사업, FTA 콜센터 등 바이어 발굴·매칭사업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참가,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등)

제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충남의 주력산업이 자동차, 전자정보인데 비해, 충남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의 비중이 21.4%로 상당히 높았다. 또한 충남의 중소 수출기업 중 48.7%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며, 미국(38.7%), 일본(30.3%), 베트남(21.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림어업과 음식료품 산업에 대한 수출지원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통적인 수출지역인 미국과 일본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충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인 베트남 쪽으로의 수출도 많은 편인데,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일본, 미국은 충남에 있어 수출과 수입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무역박람회, 시장개척단 등 거래선 발굴과 시장정보 파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 발효된 FTA가 충남 중소수출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FTA에서 이득이 발생하였으나, ASEAN과 미국과의 FTA에서는 피해기업도 소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협정국가인 미국과 교역하는 충남 중소수출기업의 38.2%가 한·미 FTA로 이득을 보았으며, EU와 교역하는 50.6%의 중소수출기업이 한·EU FTA로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득을 본 기업의 비율은 페루→칠레→EU→EFTA→ASEAN→미국→인도→싱가포르 순이었다. 충남은 주요협정 국가인 ASEAN, 미국과 교역하는 기업이 많은데(1위와 2위) 비해 이득을 본 기업수는 상대적으로 적어(5위와 6위)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제품별로 살펴보면, 기 발효된 FTA로 피해를 본 기업은 농림수산물, 화학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 음식료품 제조업인데, 특히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제조업은 성격이 유사하고,

충남 농어민의 소득과 직결되어 주의를 요한다.

충남은 ASEAN, 미국, 인도, 싱가포르 시장에서 더 많은 충남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FTA 활용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충남 중소수출기업은 FTA 체결 예정국 중 RCEP[31]와의 교역이 80.3%로 가장 많았고, 중·일(79.3%), 중국(65.0%), 베트남(26.0%) 순이었다.

이처럼 RCEP와의 교역이 가장 활발하며, 중국, 일본, 베트남과의 교역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도네시아, 캐나다, 터키, 콜롬비아의 경우 교역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남은 교역이 많은 RCEP, 중국, 일본, 베트남 시장정보를 파악하여, 충남 중소수출기업이 향후 FTA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충남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FTA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나, 한·중과 한·중·일과의 FTA에서는 피해기업도 예상된다.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비율은 인도네시아→캐나다→콜럼비아→터키→베트남→중국→RECP→중·일 순이었다. 충남 수출의 상당부분, 아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에 대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47.7%로 상당히 낮고 피해를 예상하는 기업도 7.1%나 되어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의 FTA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충남은 한·중 FTA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고, 특히 농림어업 분야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본을 포함한 한·중·일 FTA의 경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7%로 가장 낮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충남의 중소수출입 기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FTA에 대해 대부분 찬성(88.7%)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이를 수출 제품별로 살펴보면 다른 양상도 나타난다. 특히 농림수산물, 음식료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FTA를 반대하는 비율이 각각 30.44%, 29.27%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은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고, 이들 기업의 경우 향후 FTA에 대해 반대하는 비중도 높아, 이들 제품군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농림수산물의 경우 적극반대도 4.4%에 달해 충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충남은 FTA의 활용도를 높여 FTA가 충남 중소수출기업의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

3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

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의 경우 칠레와 교역이 있는 기업의 72.7%가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FTA국가인 미국과 EU의 경우 각각 66.2%와 77.0%가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기업의 비율은 페루→EU→칠레→인도→EFTA→미국→싱가포르→ASEAN FTA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ASEAN은 교역하는 충남 중소수출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아 이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

FTA 활용기업의 원산지 인증증명서 발급여부를 살펴보면, 매우 높은 인증증명서 발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인도와 ASEAN의 경우 인증비율이 각각 66.7%, 74.4%로 비교적 낮았다.

주요 FTA 국가인 EU[32]와 미국의 경우 각각 92.5%, 89.1%의 높은 인증증명서 발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높은 원산지 인증증명서 발급률은 그동안 FTA활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충남 중소수출기업 자구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인도와 ASEAN의 경우 원산지 인증 증명서 발급률이 다소 낮아 주의를 요한다.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FTA를 잘 알지 못해서',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6%로 가장 높았으며, '관세인하 효과가 적기 때문에'도 24.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FTA 미활용 기업에 대한 FTA 관련 정보의 제공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충남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정부의 FTA지원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보전과 관련한 제도 중 사업전환지원제도의 경우 82.7%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FTA 원산지 증명을 위한 FTA-PASS의 경우 인지도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각종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FTA활용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는데, 주요 FTA 컨설팅이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인지도를 더 높여가야 할

32) 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며,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피해보전은 FTA 피해기업(특히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제조업)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와 지원강화가 필요하며, 충남 FTA 활용 지원센터의 경우 인력을 더 확보하고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충남 중소수출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원제도는 자금지원(4.41)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시장 진출진출강화(4.21), 무역구제제도(4.15)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원제도는 FTA활용지원센터(3.44)로 나타났으며, 해외시장 진출지원강화(3.41), FTA무역종합지원센터(3.38) 순이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차이가 가장 심한 지원제도는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FTA활용지원센터의 경우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느끼는 지원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남 중소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6.3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특히 음식료품과 섬유류를 수출하는 기업에서 점수가 낮았으며, 화학공업제품,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향후 낮은 FTA 지원제도의 평가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음식료품 제조업의 만족도가 낮은데, 이는 FTA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산업에 대한 융자 등 자금지원의 강화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 지속적인 밀착지원이 필요하다.

충남 지원사업의 인지도의 경우,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 콜센터 운영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충남도 사업의 경우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등 거래선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충남 FTA활용 지원센터의 경우 FTA활용 실무지식 교육, FTA 컨설팅 지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 FTA 지원사업의 경우 충남도와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간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두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영역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거래선발굴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충남 FTA활용지원센터는 실무교육과 컨설팅 등 교육에 초점을 두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충남 중소수출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4.22)으로 나타났으며, FTA 시장설명회(4.19), FTA 컨설팅 지원(4.18)와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원사업은 FTA 시장설명회(3.55)로 나타났으며, FTA 컨설팅 지원(3.54),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3.42) 순이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차이가 가장 심한 사업은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었다.

이처럼 충남 중소수출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해외마케팅, 시장설명회 등 바이어의 발굴이었으며 다음으로는 FTA 컨설팅으로, 향후 거래선 확보와 초보 수출기업의 수출을 돕는 컨설팅 위주의 사업재편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충남도 FTA활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약해서,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충남 FTA활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무역전문인력의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6.7로 역시 높은 편은 아니었다. 특히 음식료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 점수가 낮았으며, 섬유류와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FTA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경우는 전체 기업 중 1.3%에 불과하여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수출초보기업이 참여할 만한 사업이 부족하다. 따라서 수출이 전무하여도,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수출초보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초보기업만을 위한 단계적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충남도는 충남 중소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혜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소수출입기업 또한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업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그 안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FTA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충남에서 지원하는 FTA 지원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FTA 우수활용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그 노하우를 FTA 초보기업들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FTA활용지원센터는 그 실효성과 만족도가 높아 충남도 차원에서 예산과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둘째, FTA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FTA 설명회를 단순 정보의 제시가 아닌 참

여기업의 특색과 주 수출분야를 고려한 차별화된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FTA 관련전문가 양성에도 힘써, 향후 컨설팅과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FTA활용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부질없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FTA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FTA 원산지인증 완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부 록]

FTA 활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충청남도는 도내 중소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 5.1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46개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한·중, 한·중·일 FTA 등 세계 각국과 FTA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FTA 발효에 따라 충청남도는 도내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조사원의 귀 사 방문시 설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에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정부 및 충청남도의 FTA 활용 극대화 및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사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 등)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조사결과는 산업별, 분야별로 취합·분석된 형태로 공개되며 개별기업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계법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는 등 비밀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다망하실 줄 아오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응답해 주실 때 꼭 지켜 주십시오 ◑

1. 설문은 판매, 조달, 연구개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므로 귀사의 경영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서의 관리담당자(대리급 이상)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곤란한 경우에는 “모름”이라고 표시해서 빈칸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도청 국제협력과 김민규
☎ (042)220-3853, Fax(042)220-3219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김양중
☎ (041)840-1163, Fax(041)840-1163, E-mail : kyj0509@cdi.re.kr

A 사업체 일반현황

회사형태	① 주식회사 ② 기타법인 ③ 개인회사 ④ 기타( )				
설립연도	( )년	종업원수	( )명	회사위치	( )시·군
주 업 종	MTI코드 1단위( )				
2012년 매출액	( )백만원		2012년 수출액	( )백만원	
			2012년 수입액	( )백만원	

A1. 귀사의 수출입 형태는 무엇입니까?(로컬수출도 포함)

① 수출·수입 다 한다 ② 수출만 한다 ③ 수입만 한다

A2. 그렇다면 귀사의 수출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직수출·로컬수출 다 한다 ② 직수출만 한다 ③ 로컬수출만 한다

[수출할 경우] 주요 수출 품목은 최대 3개까지, 주요 수출시장, 수출품 유형은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중복선택 가능)

주요 수출품 (MTI코드 2단위)	① ( ) ② ( ) ③ ( )
주요 수출시장	① 중국 ② 홍콩 ③ 미국 ④ 일본 ⑤ 대만 ⑥ 베트남 ⑦ 슬로바키아 ⑧ 멕시코 ⑨ 싱가포르 ⑩ 필리핀 ⑪ 기타 ( )( )
수출품 유형	① 완제품 ② 반제품(부품) ③ 원자재 ④ 기타( )

[수입할 경우] 주요 수입품목은 최대 3개까지, 주요 수입시장, 수입품 유형은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중복선택 가능)

주요 수입품 (MTI코드 2단위)	① ( ) ② ( ) ③ ( )
주요 수입시장	① 중국 ② 일본 ③ 호주 ④ 인도네시아 ⑤ 미국 ⑥ 러시아 연방 ⑧ 영국 ⑦ 인도 ⑨ 독일 ⑩ 브라질 ⑪ 기타 ( )( )
수입품 유형	① 완제품 ② 반제품(부품) ③ 원자재 ④ 기타( )

B 기 발효된 FTA 영향

B1. 귀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음의 FTA 경제권 또는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습니까?

발효국가	교역 현황
칠레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싱가포르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EFTA (4개국)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ASEAN(10개국)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인도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EU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페루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미국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B2. 그렇다면 귀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음의 FTA로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발효국가	FTA의 영향				
칠레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싱가포르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EFTA (4개국)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ASEAN (10개국)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인도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EU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페루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미국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FTA 전체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B3. **이득을 보았다면** 귀사의 총 매출액은 FTA 발효이전 대비 얼마나 증가하였습니까?

B4. **피해를 보았다면** 귀사의 총 매출액은 FTA 발효이전 대비 얼마나 감소하였습니까?

발효국가	B3(매출액 증가)	B4(매출액 감소)
칠레	( ) %	( ) %
싱가포르	( ) %	( ) %
EFTA (4개국)	( ) %	( ) %
ASEAN(10개국)	( ) %	( ) %
인도	( ) %	( ) %
EU	( ) %	( ) %
페루	( ) %	( ) %
미국	( ) %	( ) %
FTA 전체	( ) %	( ) %

B5. 전반적인 FTA 체결로 이득을 보았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수출 증가
②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로 원부자재 수입가격 하락
③ 선진기술 도입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④ 한국(산) 및 지역(산) 제품의 인지도 개선
⑤ FTA로 인한 통상마찰 완화
⑥ 기타( )

B6. 전반적인 FTA 체결로 영향이 없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FTA를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② 관세인하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③ 관세효과는 있었지만 비관세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④ FTA 체결국과 교역이 없었기 때문에
⑤ 기타( )

B7. 전반적인 FTA 체결로 피해를 보았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외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
② 외국기업의 한국(지역) 진출(투자)로 인한 매출 감소
③ FTA를 경쟁기업에 비해 잘 활용하지 못해 수출 감소
④ 기타( )

C 향후 FTA 영향

C1. 귀사는 우리나라가 최근 타결했거나 협상중인 다음의 FTA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습니까?

타결	FTA의 영향
터키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콜롬비아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협상진행	**FTA의 영향**
캐나다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인도네시아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중국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베트남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중일(중국·일본)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RCEP(15개국)	① 수출을 함 ② 수입을 함 ③ 수출·수입 다함 ④ 교역 안함

C2. 귀사는 우리나라가 최근 타결했거나 협상중인 FTA로 향후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타결	FTA의 영향				
터키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콜롬비아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협상진행	**FTA의 영향**				
캐나다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인도네시아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중국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베트남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한중일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RCEP(15개국)	① 매우피해	② 피해	③ 영향 없음	④ 이득	⑤ 매우이득

C3.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 귀사의 총 매출액이 FTA 발효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4.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 귀사의 총 매출액이 FTA 발효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B3(매출액 증가)	B4(매출액 감소)
터키	( ) %	( ) %
콜롬비아	( ) %	( ) %
캐나다	( ) %	( ) %
인도네시아	( ) %	( ) %
중국	( ) %	( ) %
베트남	( ) %	( ) %
한중일	( ) %	( ) %
RCEP(15개국)	( ) %	( ) %

C5. 향후 FTA체결에 대해 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④	⑤
적극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C6. 앞에서 ④ 찬성 ⑤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수출 증가
②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로 원부자재 수입가격 하락
③ 선진기술 도입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④ 한국(산) 및 지역(산) 제품의 인지도 개선
⑤ FTA로 인한 통상마찰 완화
⑥ 기타( )

C7. 앞에서 ① 적극 반대 ② 반대라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외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
② 외국기업의 한국(지역) 진출(투자)로 인한 매출 감소
③ FTA를 경쟁기업에 비해 잘 활용하지 못해 수출 감소
④ 기타( )

C8 귀사는 향후 FTA체결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관심 없다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 중이다	이미 마련했다

C9. 앞에서 ③과 ④라고 응답했다면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① 동향파악 및 대책 전담반 구성
② 여타 국가 해외시장개척단 구성
③ 기술개발 강화팀 구성
④ 양국 업계 간 전략적 제휴 강화
⑤ 기타( )

C10. 앞에서①과 ②라고 응답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여력이 없으므로(전문인력 부족)
② 다른 국가로 생산 및 수출하므로
③ 정보가 부족하므로
④ FTA체결과 무관한 상품을 생산하므로
⑤ 기타( )

D FTA 지원제도

◆ **다음은 정부의 FTA 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D1. 다음은 FTA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귀사는 이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정부의 FTA 지원제도	주지원처	인지여부	
			예	아니오
피해보전	무역조정지원제도	중진공	①	②
	사업전환지원제도	중진공	①	②
	자금금융지원	중기청/중진공	①	②
	무역구제제도(구제/분쟁해결)	무역위원회	①	②
경쟁력강화	해외시장 진출지원강화	KOTRA	①	②
	기술협력 및 R&D 지원	중기청	①	②
	FTA-PASS	관세청	①	②
FTA 지원센터	FTA 원스톱 지원센터	관세청	①	②
	FTA 활용 지원센터	산업부	①	②
	FTA 무역종합 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①	②

D2. 귀사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음의 FTA 지원제도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FTA 지원제도	매우 중요치 않음		⇦⇨		매우 중요함
무역조정지원제도	①	②	③	④	⑤
사업전환지원제도	①	②	③	④	⑤
자금금융지원	①	②	③	④	⑤
무역구제제도(구제/분쟁해결)	①	②	③	④	⑤
해외시장 진출지원강화	①	②	③	④	⑤
기술협력 및 R&D 지원	①	②	③	④	⑤
FTA-PASS	①	②	③	④	⑤
FTA 원스톱 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FTA 활용 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FTA 무역종합 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D3. 귀사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음의 FTA 지원제도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정부의 FTA 지원제도	매우 불만족		⇦⇨		매우 만족
무역조정지원제도	①	②	③	④	⑤
사업전환지원제도	①	②	③	④	⑤
자금금융지원	①	②	③	④	⑤
무역구제제도(구제/분쟁해결)	①	②	③	④	⑤
해외시장 진출지원강화	①	②	③	④	⑤
기술협력 및 R&D 지원	①	②	③	④	⑤
FTA-PASS	①	②	③	④	⑤
FTA 원스톱 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FTA 활용 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FTA 무역종합 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D4. 정부의 전반적인 FTA 지원제도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점~10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 다음은 충남의 FTA 지원사업의 인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D5. 다음은 충남의 FTA 지원사업입니다. 귀사는 이 사업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적이 있는지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충남의 FTA 지원제도		인지여부		실제참여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충남도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①	②	①	②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①	②	①	②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①	②	①	②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①	②	①	②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①	②	①	②
충남 FTA활용 지원센터	FTA 콜센터 운영	①	②	①	②
	FTA 원산지 관리사 양성 교육	①	②	①	②
	FTA 활용 실무지식 교육	①	②	①	②
	FTA 시장설명회	①	②	①	②
	FTA 컨설팅 지원	①	②	①	②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①	②	①	②
	FTA 전문인력 지원 알선	①	②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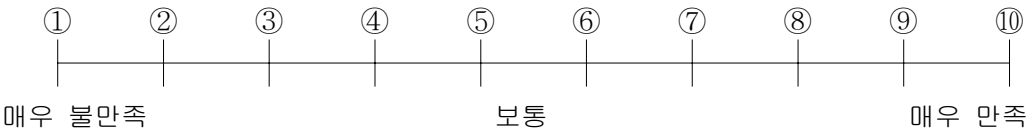
D6. 귀사는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음의 FTA 지원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남의 FTA 지원제도	매우 중요치 않음		⇦ ⇨		매우 중요함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①	②	③	④	⑤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①	②	③	④	⑤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①	②	③	④	⑤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①	②	③	④	⑤
FTA 콜센터 운영	①	②	③	④	⑤
FTA 원산지 관리사 양성 교육	①	②	③	④	⑤
FTA 활용 실무지식 교육	①	②	③	④	⑤
FTA 시장설명회	①	②	③	④	⑤
FTA 컨설팅 지원	①	②	③	④	⑤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①	②	③	④	⑤
FTA 전문인력 지원 알선	①	②	③	④	⑤

D7. 귀사는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FTA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충남의 FTA 지원제도	매우 불만족		⇦ ⇨		매우만족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①	②	③	④	⑤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①	②	③	④	⑤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①	②	③	④	⑤
FTA전략지역 타깃마케팅	①	②	③	④	⑤
중소기업 무역실무능력 배양	①	②	③	④	⑤
FTA 콜센터 운영	①	②	③	④	⑤
FTA 원산지 관리사 양성 교육	①	②	③	④	⑤
FTA 활용 실무지식 교육	①	②	③	④	⑤
FTA 시장설명회	①	②	③	④	⑤
FTA 컨설팅 지원	①	②	③	④	⑤
FTA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①	②	③	④	⑤
FTA 전문인력 지원 알선	①	②	③	④	⑤

D8. 충남도의 전반적인 FTA 지원사업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1점~10점)



D9. 귀사는 정부나 충남의 FTA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처음 성공했습니까?
① 지원사업으로 수출에 성공했다. ② 지원사업 전부터 수출했다. ③ 수출하지 않는다.

D10.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앞의 사업 외에 향후 시행되었으면 하는 FTA 지원사업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 FTA 활용실태

◆ FTA 활용실태는 B1문항에서 ①, ②, ③이라고 응답한 교역국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1. 귀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음의 FTA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발효 FTA	활용 현황	
한·칠레	① 활용하고 있다	② 활용하지 않는다
한·싱가포르	① 활용하고 있다	② 활용하지 않는다
한·EFTA (4개국)	① 활용하고 있다	② 활용하지 않는다
한·ASEAN(10개국)	① 활용하고 있다	② 활용하지 않는다
한·인도(CEPA)	① 활용하고 있다	② 활용하지 않는다
한·EU	① 활용하고 있다	② 활용하지 않는다
한·페루	① 활용하고 있다	② 활용하지 않는다
한·미	① 활용하고 있다	② 활용하지 않는다

◆ 다음은 FTA 활용기업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2. FTA를 활용하고 있다면 주로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
① FTA 상대국의 관세인하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
② FTA 상대국에서 생산하고 상대국의 FTA 체결국에 수출하여 FTA 특혜관세 활용
③ 관세 인하·철폐를 활용하기 위해 FTA 미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 수입선 전환
④ FTA 체결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국산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 활용
⑤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수입하거나 해외생산하던 공정을 국내조달·생산으로 전환
⑥ 기타( )

E3. 귀사는 다음 FTA 체결 국가와 교역시 원산지 인증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까? 원산지 인증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았다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종류는 무엇입니까?

발효국가	원산지 인증 증명서 발급 여부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부여	원산지 인증 수출자 종류
칠레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업체별 ② 품목별
싱가포르	① 예 ② 아니오		
EFTA (4개국)	① 예 ② 아니오		
ASEAN (10개국)	① 예 ② 아니오		
인도	① 예 ② 아니오		
EU	① 예 ② 아니오		
페루	① 예 ② 아니오		
미국	① 예 ② 아니오		

E4. FTA로 인한 상대국의 관세인하가 귀사의 수출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E5. 수출이 증가하였다면 수출증대 효과는 FTA 발효전 대비 대략 몇 % 입니까?

발효 FTA	활용 현황(E4)	발효전 대비 수출증대효과(E5)
한·칠레	① 수출이 증대 ② 수출에 변화 없음	( )%
한·싱가포르	① 수출이 증대 ② 수출에 변화 없음	( )%
한·EFTA (4개국)	① 수출이 증대 ② 수출에 변화 없음	( )%
한·ASEAN(10개국)	① 수출이 증대 ② 수출에 변화 없음	( )%
한·인도(CEPA)	① 수출이 증대 ② 수출에 변화 없음	( )%
한·EU	① 수출이 증대 ② 수출에 변화 없음	( )%
한·페루	① 수출이 증대 ② 수출에 변화 없음	( )%
한·미	① 수출이 증대 ② 수출에 변화 없음	( )%

E6. 수출이 증가하였다면 수출이 증대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무역장벽 해소로 수출시장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② 투자·기술·전략적 제휴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③ 관세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④ 수출우위품목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⑤ 기타( )

E7. 수출에 변화가 없었다면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세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② 비관세 장벽이 함께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③ 생산을 늘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④ 관세보다는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⑤ 기타( )

E8. FTA로 인한 상대국의 관세인하가 귀사의 수입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E9. 수입이 증가하였다면 수입증대 효과는 FTA 발효전 대비 대략 몇 % 입니까?

발효 FTA	활용 현황(E8)	발효전 대비 수입증대효과(E9)
한·칠레	① 수입이 증대 ② 수입에 변화 없음	( )%
한·싱가포르	① 수입이 증대 ② 수입에 변화 없음	( )%
한·EFTA (4개국)	① 수입이 증대 ② 수입에 변화 없음	( )%
한·ASEAN(10개국)	① 수입이 증대 ② 수입에 변화 없음	( )%
한·인도(CEPA)	① 수입이 증대 ② 수입에 변화 없음	( )%
한·EU	① 수입이 증대 ② 수입에 변화 없음	( )%
한·페루	① 수입이 증대 ② 수입에 변화 없음	( )%
한·미	① 수입이 증대 ② 수입에 변화 없음	( )%

E10. 수입이 증대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무역장벽 해소로 수입시장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② 투자·기술·전략적 제휴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③ 관세철폐로 수입이 유리해졌기 때문에
④ 수입우위품목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⑤ 기타( )

E11. 수입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세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② 비관세 장벽이 함께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③ 수입을 늘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④ 관세보다는 환율 및 원자재 가격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⑤ 기타( )

◆ 다음은 FTA 미활용기업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4. 귀사가 FTA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FTA를 잘 알지 못해서
②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때문에
③ FTA 활용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④ 관세인하 효과가 적기 때문에
⑤ 해외 수입자의 낮은 인지도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⑥ 기타( )

E5. ‘FTA를 잘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FTA 관련, 기업 활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② FTA 활용 설명회 및 세미나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③ FTA 활용 정보가 관련 기관별로 산재해 있고, 수집경로를 잘 알지 못해서
④ FTA 영향을 받지 않는 업체라서
⑤ 기타( )

E6.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및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복잡한 원산지 검증 방법 때문에
②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③ 과다한 원산지 증명서 서류제출이 부담이 되어서
④ 원산지기준 활용 컨설팅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⑤ 기타( )

E7. ‘FTA 활용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FTA 관련 전담직원을 둘 여력이 없어서
② FTA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한 FTA 실무교육이 부족하여
③ FTA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한 FTA 실무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④ 주요 업종별 FTA 활용 심화 교육이 부족해서
⑤ 기업 실무자들을 위한 FTA 업무 매뉴얼이 부족해서
⑥ 기타( )

E8. ‘관세인하 효과 적음’이라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이미 무관세이거나 전체적으로 큰 실익이 없어서
② 비관세 장벽이 함께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③ 관세보다는 환율 및 원자재가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④ FTA와 관련 없는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⑤ 기타( )

E9. ‘해외 수입자의 낮은 인지도로 요구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상대국가 기업의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무관심으로 FTA 활용률 저조
② FTA 상대국 현지 수입업자가 관세당국에 협정관세 적용을 산정하지 않음
③ 상대국가의 수입업자가 우리측 기업에 원산지 증명을 요청하지 않음
④ 원산지 증명서 발급 관련 서류제출 및 비용 발생 때문에 요청하지 않음
⑤ 기타( )

F 수출중소기업 애로사항

F1. 귀사의 해외수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거래선 부족 ② 수출전문인력 부족 ③ 시장정보 부족
④ 운영자금 부족 ⑤ 기술정보 부족 ⑥ 기타( )

F2. 귀사의 해외수출에 있어 가장 큰 무역장벽은 무엇입니까?
① 언어장벽 ② 제도적·문화적 장벽 ③ 관세장벽
④ 유통장벽 ④ 안전인증, 표준규격 등 인증장벽
⑤ 기타( )

F3. 현행 FTA제도를 활용하면서 경험한 애로요인은 무엇입니까?( )( )
① FTA제도와 체결국에 대한 정보부족
②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
③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어려움
④ 관세인하 효과가 적음
⑤ 업체 자체 FTA활용시스템(ERP 등) 구축이 어려움
⑥ 해외 바이어의 낮은 인지도로 요구하지 않음
⑦ 기타(

참고 문헌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외 (2011)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외 (2012) 한·중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효과 및 대응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손수석 외 (2012)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한·EU FTA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외 (2009) 한·EU FTA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2012) 한·미 FTA가 경북지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외 (2012) FTA체결과 대구경북 지역경제의 예측 및 결과 분석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외 (2013) 한·중 FTA의 영향과 대구경북의 대응책

대전발전연구원 김기희 (2007) 한·미 FTA가 대전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전상공회의소 (2012) 대전지역 수출·수입기업의 FTA 활용실태조사
대전지역기업의 FTA 활용 활성화방안

전남발전연구원 이기웅·조창완 (2012)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전남의 대응방안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외 (2011) FTA체결(예정)국가에 대한 충청남도 수출확대방안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2) 한·중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일본 機械輸出組合 (2010) EPAの普及·利用促進に關する調査報告書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2013년 FTA활용지원센터 사업계획

충청남도청 2013년 충청남도 통상진흥시책사업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3.6.27) 중소기업의 FTA 활용촉진으로 경제의 활력을 찾는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간사 · 이민정 충남발전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백운성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종윤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13-10 · 충남도 FTA 활용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글쓴이 · 김양중, 백운성, 이민정, 이종윤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3년 12월 31일 / 발행 · 2013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163(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226-4 03350

http://www.cdi.re.kr

ⓒ 2013.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